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심치열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일기언>의 번역 양상 연구

2016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우유나(牛維娜)

<제일기언>의 번역 양상 연구

심치열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우유나(牛維娜)

인 준 서

牛維娜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6년 5월

심사위원장 _____ (서명 또는 인)

심 사 위 원 _____ (서명 또는 인)

심 사 위 원 _____ (서명 또는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최근 중한 번역 문헌 연구소를 중심으로 조선시대 번역소설의 원전 정리와 주석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필사본으로만 존재하던 <제일기연>이 정규복·박재연 교수에 의해 소개된 일은 고무적이다. 이 교주본은 국어학적으로 어휘적 특징을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되나 문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번역과정에서 원본과 달라진 부분이 적지 않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원본인 <경화연>과 번역본인 <제일기연>을 대조하여 번역과정에서 달라진 부분을 연구해야하는 중요한 과제가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두 작품을 비교 고찰하였다. 특히 <제일기연>은 중국소설이 한국에 유입되어 두터운 독자층을 확보해 나가던 시기에 한글로 번역된 작품으로 당대의 번역 양상을 살피는 데 중요한 기점이 된다. 따라서 <제일기연>과 원본인 <경화연>을 비교 연구하여 번역양상에 대해 고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일반적으로 번역본은 주로 직역되는 경향이 있는데 <제일기연>의 경우 일반적인 번역본과 다르게 작가의식이 반영되어 나타난다. 따라서 <제일기연> 곳곳에 <제일기연>만의 독특한 개성이 드러나 중국과 조선의 문화적 인식차이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그러나 두 작품의 연관성에 주목한 논문은 그리 많지 않다. 비록 연관성을 가지고 두 작품을 연구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소개한 정도에 지나지 않아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고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두 작품의 번역 양상을 비교해봄으로써 두 나라의 문화적 차이와 개작의도를 살펴봄으로써 번역 작품이 가지는 의의를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 목적	1
2. 연구사 및 연구방법	3
II. <제일기언>의 예비적 고찰	8
1. 작가의 생애 및 번역 의도	8
2. <제일기언>의 번역 텍스트	11
3. <제일기언>의 회차 구성	15
III. <제일기언>의 번역양상 비교	22
1. 삭제	23
1) 소설 구성요소	23
2) 문화적 요소	31

2. 변이	45
1) 소설 구성요소	45
2) 문화적 요소	48
3) 작가 인식	51
3. 첨가	55
1) 소설 구성요소	56
2) 문화적 요소	60
3) 작가 인식	63
IV. <제일기언> 번역의 의미	69
V. 결론	76
참고문헌	
ABSTRACT(영문초록)	
부록	

I. 서론

1. 연구 목적

<경화연>은 청대 이여진(李汝珍)이 쓴 낭만적 풍격의 풍자소설로, 중국에서는 어린아이에게도 인기가 있을 만큼 그 위상이 대단한 작품이다. <경화연>에 대해 중국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아Q정전』의 작가 魯迅¹⁾은 ‘학술의 집하’이며 ‘문예의 나열’ 로써 ‘만보전서, 즉 백과전서와 유사’ 하다고 평가할 만큼 <경화연>은 방대한 양의 정보를 담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다. 魯迅이 말한 바와 같이 <경화연>에는 실제로 신화에 나오는 기이한 해외 이국의 묘사뿐만 아니라 반절 및 쌍성 등의 음운학적 지식도 포함되어 있으며 열사병, 이질, 천연두 등에 대한 의학적 상식 및 치료 방법 까지도 소개되고 있다. 그밖에도 소화(笑話), 속담, 수수께끼, 각종 놀이 방법 등이 소설 속에 자연스럽게 삽입되어 있다.

또한 <경화연>의 판본에는 여러 개의 서평이 삽입되어 있다. 먼저 무림(武林) 홍채원(洪棣元)²⁾은 “<경화연>과 비교할 수 있는 책이 없다. 매번 읽을 때마다 쾌락을 느낀다. 백 번 읽어도 지루하지 않다” 라는 서평을 기록했고, 석화(石華) 허교림(許喬林)³⁾은 “남의 글을 가져온 데가 하나도 없고 문장은 옛

1) 魯迅, 『中國小說史略』, 商務印書館, 2011. 234쪽.

2) 總未有如此書之, 一讀一快, 百讀不厭也, 觀夫繁稱博引, 包括靡遺, 自始至終新奇獨造, 其義顯其辭文其言進其旨遠, 後生小子頓教啟發, 心思博彥, 鴻儒藉得博資探訪, 匪特此也, 正人心端, 風化是尤, 作者之深意存焉, 不知者, 僅以說部目之, 知之者直以經義讀之。(古本小說集成編委會 編, 『古本小說集成』, 上海古籍出版社, 1978, 7~10쪽)

3) 無一字拾他人牙慧, 無一處落前人窠臼, 枕經藉史子秀集華兼貫九流, 旁涉百戲, 聰明絕世, 異境天開, 即飲程鄉千里之酒而手此一編, 定能驅遣睡魔, 雖包孝肅, 笑比河清, 讀之必當噴飯, 綜其體要, 語近滑稽而意主勸善, 且津逮淵富足稗見聞, 昔人稱其正不入腐, 奇不入幻, 另具一副手眼, 另出一種筆墨, 為虞, 初九, 百中獨開生面, 雅俗共賞之作, 知言哉。(古本小說集成編委會 編, 위의 책, 1~5쪽)

책보다 못한 데가 하나도 없다. 내용은 구류(九流)를 꿰뚫고 백 가지의 유희도 포함하여 <경화연>을 보게 되면 잠을 없애고 사람을 웃게 할 수 있다. 그 말은 익살스럽고 뜻은 선을 권한다. 옛 사람이 이를 칭찬하여 ‘바르되 진부하지 않고, 기괴한 이야기지만 환상적이지는 않다.’ 라고 하였다” 는 서평을 남겼다.

또한 <경화연>이 처음 발간된 이후 1년 만에 재판이 간행될 정도로 당시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작품으로, 한국과 비교하면 <춘향전>처럼 대중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경화연>은 드라마나 애니메이션 등의 매체로까지 이어져 현재까지도 중국인들의 일상에 가장 깊게 침투되어 있는 작품이다. 또한 중국 문학사에서도 그 위치가 매우 대단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경화연>은 조선에도 알려져 홍희복에 의해서 <제일기연>으로 번역되었다. <제일기연>은 번역된 이후 분명 향유되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다지 인기는 없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왜냐하면 다른 중국 번역소설들 - 예컨대 <홍루몽>이나 <삼국연의> 등 - 에 비해 이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이본의 수만으로 인기를 측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으나 인기가 있다면 여러 이본이 존재하기 마련이므로 이본 수를 통해 그 인기를 대략적으로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조선에서 <홍루몽> 이본이 6개⁴⁾가 존재하고, <삼국연의> 완역본은 17개⁵⁾의 이본이 존재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그 차이는 확연하다.

그러나 <제일기연>이 비록 인기가 많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경화연>을 번역한 작품이라는 점에서는 분명 의의가 있다. 특히 번역 과정에서 <경화연>과는 다른 <제일기연>만의 개성이 드러난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4) 趙惠珍, 『紅樓夢在韓國的翻譯流傳及其對韓國文學的影響』, 江南大學校 碩士論文, 2013, 4 쪽.

5) 민관동a, 「三國演義在韓國的流傳與再創作」, 『比較文化研究』 7집,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회, 2004. 56쪽.

있다. 이는 조선과 중국의 문화적 인식차이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작품에 대한 본격적인 비교 분석이 필요한 실정이나 현재 두 작품의 연관성에 주목한 논문은 그리 많지 않다. 또한 연관성을 연구한 논문조차도 세밀한 비교 연구라기보다는 간략한 소개 정도에 그치고 말았다. 본고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중국 원작인 <경화연>과 조선의 번역본인 <제일기연>의 번역 양상을 비교해봄으로써 두 나라의 문화적 차이를 비교해 보고 <제일기연> 번역의 의미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2. 연구사 및 연구방법

그동안 <경화연>에 대한 연구는 주로 창작시기, 구성, 여성문제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창작시기’와 ‘구성’에 관한 연구는 정영호와 하정옥에 의해 진행되었다. 정영호⁶⁾는 이여진이 <경화연>을 창작할 때 고증학의 영향을 받아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려는 의도에서 소설을 쓴 것이 아니라, 유희를 도구로 하여 현실을 풍자하고 작가의 이상 세계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목적에서 썼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경화연>이 풍부한 상상과 유머를 결합하여 만화식(美華式)의 과장, 상징적 야유, 현실 전도의 대비, 조롱 등의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여 군주에서부터 지식인 및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풍자했다고 보았다. 하정옥⁷⁾은 <경화연>의 작가인 이여진의 생애와 이여진이 창작한 다른 작품들을 검토하여 <경화연>의 창작 배경과 주제, 유도석(儒道釋) 사상 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창작시기를 대략 1809, 10년경

6) 정영호a, 「이여진의 경화연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1997, 271~272쪽.

7) 하정옥, 「경화연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1982.

부터 1820년 사이로 유추하였고 초각본 이후 배인본(排印本)이 출판되기까지의 상황을 비교하여 각 판본간의 내용상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음을 밝혀내었다.

다음은 ‘여성문제’에 대한 연구이다. 이는 주로 정영호와 방영인 등에 의해 진행되었다. 정영호⁸⁾는 <경화연>이 당시 여성들에게 가해졌던 억압을 폭로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까지 제시하고 있다고 보았다. 즉 여성에게 가해졌던 전족과 귀뚫기 등의 폐해가 행해지던 당시의 현실을 풍자하고 나아가 이것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여성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여과고시를 개설하여 여성의 참정을 유도하는 과정을 제시하였다고 하면서 이러한 저자의 의견을 획기적인 사안으로 평가하였다. 하지만 이런 방안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전통윤리를 바탕으로 하여 이를 실천하는 것을 제일로 삼는다는 점에서 그 사유의 한계가 보인다고 하였다. 방영인⁹⁾은 <경화연>의 작가 이어진이 이 작품 속에 나타나 있는 부녀문제, 여권신장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으나 청나라의 고압적인 정치 때문에 직접적으로 나타내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돌려 말함으로써 고압적인 정치에 항거하고 또 나아가 정권회복에 앞장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 작품을 창작하게 되었던 것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민족의식의 고취를 통하여 당시의 정치와 사회제반 문제를 드러내고자 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용양상’에 대한 연구는 정영호에 의한 이루어졌다. 정영호¹⁰⁾는 작가가 소설에서 유희에 대한 설명을 많이 삽입하고 있는데 이는 실전되어 가거나 실전되기 쉬운 유희들을 전승하려는 목적 때문이었다고 보았다. 또한 다양한 유희를 서술함으로써 지식인은 물론 일반 백성까지도 <경화연>의 독자층으로 끌어들이는데 중요한 요건이 되었다고 보았다. 그밖에도 정영

8) 정영호b, 「경화연에 나타난 페미니즘적 요소」, 『중국어문학논집』 21, 중국어문학연구회, 2002, 459~483쪽.

9) 방영인, 「경화연 연구」, 『경남전문대학 논문집』 25, 1997, 534쪽.

10) 정영호c, 「경화연에 나타난 유희의 수용양상」, 『중국소설논총』 14, 한국중국소설학회, 2001, 120쪽.

호¹¹⁾는 신화들에 대한 서술을 통해서 이어진이 당시의 현실을 비판하거나 그가 추구하는 이상사회를 피력했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제일기언>에 관한 연구사이다. <제일기언> 연구는 주로 번역시기와 역자 생애 그리고 수용양상 등에 집중되었다.

먼저 ‘번역시기’와 ‘역자 생애’에 대한 연구는 주로 정규복에 의해 진행되었다. 정규복¹²⁾은 역자인 홍희복의 생애와 번역 시기 그리고 번역 개황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홍희복의 소설관에 대해서는 소설에서 윤리성을 강조하는 요인에 대해 간략히 분석한 후 홍희복이 유가적인 윤리주의 문학관을 가졌다고 판단하였다.

‘수용양상’에 대한 연구는 주숙하에 의해 이루어졌다. 주숙하는 세 편의 논문을 통해서 수용양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 논문¹³⁾에서는 원작과 역본을 비교하면서 어법의 번역이 아니라 원작 전체 이야기와 서술 장르를 중심에 두고 어떻게 서술되고 있는지를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홍희복이 <제일기언>을 번역한 동기가 원작이 가진 오락성을 구현해 내는데 있다고 보았다. 두 번째 논문¹⁴⁾에서는 역본이 원작의 부속품이 아니라 홍희복이 문인적 주체의식을 가지고 시대적 안목의 관점에서 번역대상을 선택하였으며, 최대한 원작에 충실하여 원작의 정신과 형식을 보존하였다는 면에서 그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세 번째 논문¹⁵⁾에서는 홍희복이 <제일기언>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경화연>이 가지는 유머의 내용을 최대한 누락 없이 자세하게 한글로 옮겼다고 보았다. 이는 역자 또한 원작 작가와 마찬가지로 문인적 유머

11) 정영호d, 「경화연에 나타난 신화의 수용양상」, 『중국인문과학』 23, 중국인민학회, 2001, 388쪽.

12) 정규복, 「제일기언에 대하여」, 『중국학논총』 1,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1984, 73~83쪽.

13) 주숙하a, 「幾點翻譯研究方法論的省思.以朝鮮時代中國翻譯第一奇諺為例」, 『중국어문논역총간』 29, 중국어문논역학회, 2011, 132~133쪽.

14) 주숙하b, 「文人的主體意識의 再現.第一奇諺의 翻譯者인 洪羲福을 中心으로」, 『중국소설논총』 35, 한국중국소설학회, 2011, 298~299쪽.

15) 주숙하c, 「翻譯 작품 속 유머와 諷刺. 洪羲福 第一奇諺의 文人 유머 翻譯研究」, 『중국어문논역총간』 30, 중국어문논역학회, 2012, 181~182쪽.

양식에 대한 깊은 선호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경화연>과 <제일기연>을 비교 연구한 논문이다. 비교 연구는 주로 이광훈, 정영호, 서경희, 김경미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먼저 이광훈¹⁶⁾은 구조와 번역 양상의 비교를 통해 역자가 번역 과정에서 조선의 풍속과 시대배경 그리고 역자의 의도에 따라 번역한 것이라고 보고, 이는 주자학이 성행한 19세기 초에 여자의 권리를 속박하는 윤리사상을 배척하는 입장을 보인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홍희복이 여성이라는 주제를 과감하게 다루면서 여성의 자유와 평등에 공감했기 때문으로, 그가 비교적 진보적 번역자였다고 저자는 판단하였다. 정영호¹⁷⁾는 두 작품의 번역 양상을 간략하게 분석한 이후 다음과 같은 결론을 냈다. ‘첫째, <제일기연> 80회 이후의 장회는 유실가능성이 높다. 둘째, 작가는 번역 과정에서 원전과는 다른 새로운 형식을 추구했다. 셋째, <제일기연>이 단순 번역이 아니라 번역자의 창작성이 상당히 개입, 반영된 편역소설에 가깝다’고 보았다. 서경희¹⁸⁾는 <경화연>의 페미니즘적 외연을 분석한 다음 홍희복의 수용방식을 탐구하고 홍희복이 <경화연>에 나타난 외연을 장식하는 진보적 여성상은 물론 전통적 여성상을 옹호하는 은폐된 여성인식에조차 주목하지 않으면서 <경화연>이 <제일기연>으로 거듭나기를 꾀했다고 보았다. 김경미¹⁹⁾는 <경화연>이 그동안 홍희복이 본 소설들과는 다르게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소설이었기 때문에 홍희복이 <경화연>을 번역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홍희복이 <경화연>을 원전 그대로 번역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인식하고 자국의 언어와 문화에 맞게 번역이 이루어

16) 이광훈, 「鏡花緣의 韓譯本 第一奇諺 研究 - 第一奇諺의 번역양상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석사 논문, 2011, 103~104쪽.

17) 정영호e, 「鏡花緣과 한글 역본 第一奇諺의 비교 연구」, 『중국소설논총』 26, 한국중국소설학회, 2007, 291~292쪽.

18) 서경희, 「〈鏡花緣〉의 여성인식과 〈제일기연〉의 수용방식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5,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002, 184~185쪽.

19) 김경미, 「〈경화연〉의 번역서 〈제일기연〉을 통해 본 홍희복의 번역 인식」, 『한국고전연구』 32, 한국고전연구학회, 2015, 564~566쪽.

져야 한다는 인식으로 번역 작업을 수행했다고 보았다. 그 밖에도 <제일기연>이 여성주의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여행소설로써 박학다식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지금까지의 비교 연구들은 주로 여성문제나 구성 및 수용양상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두 작품 간의 구체적이고 전반적인 번역양상을 살피지는 못하였다. 특히 수용양상에서 주숙하는 홍희복이 유머의 내용을 누락 없이 잘 구현했다고 보았지만 본고에서 작품을 세세하게 비교해 본 결과 일부 유머는 삭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주숙하가 작품을 세세하게 비교하여 서술한 것이 아니라 주로 16~19회, 21~24회에 집중하여 논의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오류를 잡아내어 좀 더 정확한 비교분석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따라서 <경화연>과 <제일기연>을 세밀하게 비교, 고찰하여 <제일기연>에 나타난 번역 양상을 통해 두 나라의 문화적 인식 차이와 역자의 번역 의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2장에서는 <제일기연>의 작가인 홍희복의 생애와 번역 동기를 살펴본 후 작품의 텍스트 고증 및 구성방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3장에서는 2장을 바탕으로 <제일기연>의 번역 양상을 살펴보고 번역과정에서 발생한 삭제, 첨가, 변이로 세분화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3장의 번역양상에서 나타난 차이점을 바탕으로 두 나라의 문화적 인식 차이와 역자의 번역 의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제일기언>의 예비적 고찰

본장에서는 <제일기언>에 대한 예비적 고찰을 하고자 한다. 이때 먼저 판본문제가 확실하게 입증되어야 한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그동안 <제일기언>은 번역 선본으로 기존논의를 답습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본고는 이러한 번역 선본 답습에 이의를 제기하고 판본에 관한 문제를 다시 한 번 되짚어 가고자 한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먼저 작가의 생애 및 번역 의도를 살펴보고 <제일기언>의 판본과 관련된 문제를 자세히 고찰한 후에 <제일기언>의 구성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작가의 생애 및 번역 의도

현재 홍희복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자세히 드러난 자료가 거의 없다. 정규복²⁰⁾은 홍희복에 대한 정보가 <조선인명사전>이나 <한국인명사전>뿐만 아니라 <국조인물지>나 <국조방목>에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홍희복의 생애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알 길이 없지만, 홍씨 족보를 통해 홍희복이 1794년에 태어나 1859년에 죽었다는 것과 그의 묘가 제천(堤川) 고암리(古岩里)에 있다는 것, 그의 후손이 증언한 내용에 따라 홍희복이 서출이었기 때문에 벼슬에 나갈 수 없었다는 점, 그리고 자주 중국에 다녔으며 중국소설을 구하여 읽었다는 정도의 정보만 수집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제일기언>의 서문을 보면 홍희복은 ‘학문을 못하여 한가한 틈이 많아 횡당을 모셔 당시 전하던 국문소설은 거의 읽고, 아울러 중국 백화소설인 <삼국지>, <수호지>, <열국지>, <서주연의> 등을 한

20) 정규복, 앞의 논문, 80쪽.

문으로 번역' 해 놓았다는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홍희복이 번역했다던 작품들은 현재 전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홍희복이 <경화연>을 선택하여 번역한 이유와 번역한 의도는 <제일기연>의 서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당대 소설에 대한 홍희복의 생각이 다.

대체 그 지은 뜻과 베푼 말을 볼진디 대동소이하야 사람의 성명을 고쳐서
나 스실은 흡스하고 선악이 너도하는 계교는 혼나지라 ... 지어 부부혼인에
다드라는 규방에 은밀한 슈죽과 남녀의 설만한 뜻을 세세히 문답하고 낫낫치
칭도하야 천연이 상디흔 듯 정녕이 듯고 본 듯하게 하니 이 엇지 부녀의 너
이 볼 비리요. 그러나 보는 즈로 하야곰 축흔 사람의 어진 닐을 본밧고 즐겨
하면 그 유익하미 적지 아니커니와 만일 간악한 즈의 공교한 꾀를 괴묘히 너
일진디 그 히로오미 장춧 어디 미즈리요.²¹⁾

홍희복은 당대 소설들이 내용상으로는 대동소이하고 사람의 성명을 고쳐 썼지만 사실은 비슷한 류의 내용이라고 비판하였다. 또한 선악을 내도한다고 했지만 그 계교는 모두 똑같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홍희복은 조선의 소설들이 주로 충효열녀를 위주로 하는데, 그중에 충신과 열녀들을 포함한 계교도 같이 세세히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악한 사람의 공교한 꾀를 배우니 그것이 매우 해롭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홍희복은 당대 소설들이 비록 사람에게 선을 권하고 있지만 그 내용 중에는 음란한 것과 나쁜 계교들도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유익한 부분보다는 해로움이 더 클 수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

반면 홍희복은 당대 소설의 흐름과 다른 경향이었던 <경화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21) 정주복·박재연, 『제일기연』, 국학자료원, 2001, 서문, 22~23쪽. 앞으로 <제일기연> 인용시 책명과 쪽수만 표기하기로 한다.

우연이 근세 중국의 선빅 지은 바 소설을 보더니 그 말이 족히 사람의
게 유익하고 그 뜻이 부딪 세상을 썩닷과져 하야 시속소설의 투를 버셔느
고 별노히 의스를 베퍼 경서와 스기를 인증하고 기문벽서(奇文僻書)를 상고
하야 신선의 허무흔 바를 말하되 곳곳이 빙게 잇고 외국에 괴괴흔 바를 말
하되 낫낫치 넉역리 이셔 경서를 의논하면 의리를 분석하고 스기를 문답하
면 시비를 질정하야 천문지리와 의약 복서로 잡기방술에 니르히 각각 그 묘
를 말하고 법을 밝히니 이 진짓 소설에 대방가요 박남하기의 웃듬이라.
(〈제일기언〉 서문, 22~23쪽)

위의 예문을 보면 홍희복은 <경화연>의 내용이 사람에게 유익하고 그 뜻
이 세상을 깨우치게 하여 세속소설의 투를 벗어나서 불만한 가치가 있는 재
미난 작품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는 앞서 서문에서 살펴본 <경화연>의 여
러 가지 서평 중 무림(武林) 홍채원(洪棣元)과 석화(石華) 허교림(許喬林)의
서평과 일치한다. 따라서 홍희복이 <경화연>을 선택한 이유는 사람에게 유
익하고 볼 가치가 있는 소설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홍희복은 <경화연>에 나타난 흥미성과 오락성도 <경화연>을 번역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로 거론하고 있다.

다만 긴밤과 한가흔 아춤에 노친을 피시고 병쳐와 즈부 녀으를 거느려
흔 번 보고 두 번 넘어 그 강개 상쾌흔 곳의 다드라는 서로 일커러 탄상하
고 그 담쇼회 해흔 곳에 다드라는 쏘흔 일장 환쇼하면 이 족히 쓰인다 흘
거시니 그 엇지 무용이라 하리오. (〈제일기언〉 서문, 23~24쪽)

홍희복은 서문에서 자신의 책이 널리 쓰이기를 바라지는 않지만 한 번 보
고 두 번 읽어 강개하고 상쾌한 곳에 다다른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하였
다. 이는 홍희복이 자신의 책을 사람들에게 흥미거리로 읽힐 수 있다면 족

하다는 말로 해석된다. 따라서 <경화연>에 담긴 오락성과 흥미성 또한 <경화연>을 번역서로 선택한 이유로 볼 수 있다.

다음은 <제일기언> 서문에 나타난 홍희복의 번역 의도이다.

이에 그 번거흔 바를 덜고 간략흔 곳을 보티며 풍속에 갖지 아닌 곳과 언어의 다른 곳을 곤치고 윤식하야 언문으로 번역하야 일흠하되 "제일기언"이라 하니 사름이 그 뜻을 못거늘 디답하야 왈, "진서쇼설 중 삼국지를 니르러 제일기서라 하미 나는 일노써 언문쇼설 중 제일기담인 고로 특별이 제일기언이라 하노라. (<제일기언> 서문, 23쪽)

홍희복은 <제일기언>을 번역할 때 번거로운 것을 덜어내고 간략한 곳은 보태며 풍속이나 언어의 다른 곳을 고쳐 윤색하였음을 밝혔다. 또한 <제일기언>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에 대해서 <삼국연의>를 번역시 <제일기서>로 제목을 바꾸어 지은 것과 견주어 <경화연>을 번역할 때 제목을 <제일기언>이라 지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홍희복이 <제일기언>을 번역할 때 의도적으로 조선의 실정에 맞게 번역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제목을 통해 <제일기언>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홍희복이 <제일기언>을 번역한 의도에 대해서는 작품을 분석한 이후, 그 내용과 결부하여 4장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2. <제일기언>의 번역 텍스트

<제일기언>은 <경화연>을 번역한 작품이지만 현재 <제일기언>이 <경화연>의 어떤 판본을 선본으로 선택하여 번역한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먼저 <제일기언>의 번역 대상 판본 연구가 선행

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홍희복이 <제일기연>을 1835년~1848년 사이에 번역했다는 점을 감안하여 <경화연>의 판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번호	간행년도		판본명	비고
1	嘉慶二十二年	1817	江寧桃紅鎮坊刻本	본고가 주장하는 판본
2	嘉慶二十三年	1818	蘇州原刻本	
3	道光元年	1821	刻本	
4	道光八年	1828	廣州芥子園刻本	
5	道光十年	1830	芥子園刻巾箱本	
6	道光十二年	1832	廣州芥子園刻本	현재 선본으로 보는 판본
7	道光二十一年	1841	連雲港市博物館藏本	
8	道光二十二年	1842	廣東英德堂刻本	
9		1842~1854	道光間刻本	정확한 연도 추정 불가
10	咸豐四年	1854	百花香島刻本	
11	咸豐八年	1858	廣東佛山連雲閣刻本	
12	同治八年	1869	翠筠山房刻本	
13	光緒三年	1877	懷德堂刻本	
14	光緒十四年	1888	上海點石齋石印本	
15	光緒十六年	1890	上海廣百宋齋石印本及鉛印本	
16	光緒二十一年	1895	上海積山書局石印本	
17	光緒二十三年	1897	上海石印書局石印本	
18	光緒三十一年	1905	海書局石印本	
19	光緒三十三年	1907	上海善新瑞記書局石印本	
20		?	光緒間上海鉛印『申報館叢書』本	연도 추정 불가

<표1> <경화연>의 판본²²⁾

<제일기연>의 번역 시기가 1835년~1848년으로 추정됨에 따라 <제일기연>의 번역 가능 판본은 1~6번까지만 해당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일기연>의 판본은 정영호²³⁾의 연구에 의존하여 6번으로 보고 있으며 다른 연구

22) 위의 판본들 중에서 1번 ‘江寧桃紅鎮坊刻本’은 <경화연>의 初稿에 따라 출간된 것이고 2번 ‘蘇州原刻本’은 그 다음 해에 발간된 것으로, ‘蘇州原刻本’은 그 이후 출간된 <경화연>의 祖本이라고 할 수 있다. (李雄飛·郭瓊, 「鏡花緣版本補敘」, 『中國文化研究』 3, 북경대학도서관고집부, 2007, 152쪽.)

23) 정영호e, 앞면 논문, 277쪽.

자들도 대부분 정영호가 밝힌 ‘道光十二年(1832)芥子園重刻本’ 판본을 번역의 저본으로 답습하는 실정이다.²⁴⁾ 그러나 이는 재고되어야 한다. 본고가 판단하기로는 ‘嘉慶二十二年(1817)江寧桃紅鎮坊刻本’ 과 ‘嘉慶二十三年(1818)蘇州原刻本’ 이 번역 선본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江寧桃紅鎮坊刻本’ 과 ‘蘇州原刻本’ 은 동일한 판본으로 년도만 다를 뿐 같은 판본이다. 다만 ‘江寧桃紅鎮坊刻本’ 에 대한 정보는 정확하지 않으나 ‘蘇州原刻本’ 은 이어진이 蘇州에 직접 방문하여 출판사에 출판을 의뢰한 판본이다.²⁵⁾ 두 판본이 차이가 없는 관계로 이어진이 직접 출판 의뢰한 ‘蘇州原刻本’ 을 번역 판본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蘇州原刻本’ 을 선본으로 보는 이유는 다음 두 가지 때문이다.

첫째, 회목의 교체이다. 이어진은 <경화연>을 蘇州에서 출간한 다음 삼년 후에 수정하여 道光元년에 다시 출판하였다. 이때 수정된 부분 중 눈에 띄는 것이 바로 5회의 회목이다. ‘蘇州原刻本’ 이후의 판본들은 ‘蘇州原刻本’ 의 제5회 제목을 ‘俏宮娥戲誇金盞草’ 에서 ‘俏宮娥戲嘲枇皮樹’ 로 바꾸었다.²⁶⁾ 이는 ‘蘇州原刻本’ 에서 제5회에 등장하는 모란이라는 꽃의 이름을 작가가 혼동하여 金盞草로 잘못 표기하였던 것을 ‘蘇州原刻本’ 을 祖本으로 하는 이후의 판본에

24) 정영호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소장된 판본은 『全本繡像鏡花緣』(규장각, 정신문화원, 중앙도서관 등), 『繪圖鏡花緣』(규장각, 성균관대), 『繪圖增像鏡花緣』(성균관대, 영남대), 『圖像鏡花緣』(간송문고) 등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 서적이 중국에서 출판된 것과 동일한 종인지, 아니면 국내에 유입된 판본을 저본 삼아 다시 출판한 것인지는 세세한 검증을 거쳐야만 판단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다만 繡像, 圖像, 繪圖 등의 용어를 사용한 것과 출판년도로 보아 <제일기연>으로 번역되기 직전인 ‘道光十二年芥子園重刻本’ (1832)이 국내에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하지만 번역자 홍희복이 활용한 판본이 중국에서 유입된 원본인지 아니면 국내에 소장되어 있었던 판본 가운데 하나였는지 확인할 방법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경화연>의 판본 상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은 제100회에서 “三十多年” 이 “十數多年” 으로 변화된 점, 石華序文의 “三十年” 이 “十餘年” 으로 바뀐 점, 題詞가 여섯 개였던 것이 열두 개로 증가한 점, 그리고 繡像, 圖像, 繪圖, 繪像 등의 유무로만 어느 판본을 활용하였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현전하는 <제일기연>은 제78회까지만 존재할 뿐 일부 결본되어 이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며 題詞나 繡像, 圖像, 繪圖, 繪像 등도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 전하는 서명과 번역시기를 감안해 볼 때 ‘道光十二年芥子園重刻本’ 계열의 판본을 활용하였다는 추측만 가능할 뿐이라고 보았다. (정영호a, 앞의 논문, 277쪽.)

25) 史泳, 「鏡花緣版本演變」, 『書籍報刊』 7, 中國商報, 2002, 1쪽.

26) 史泳, 위의 논문, 1~4쪽.

서는 이를 수정하여 ‘俏宮娥戲嘲槐皮樹’ 로 제목을 정정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일기언>의 제5회 제목은 ‘蘇州原刻本’ 에서 쓰인 제목 ‘俏宮娥戲誇金盞草’ 를 그대로 답습하여 ‘俏宮娥戲誇金盞草 武太后怒貶牡丹花’ 로 쓰고 있다. 이는 ‘蘇州原刻本’ 이후의 판본들과 다른 양상이다. <제일기언>이 수정 전의 제목을 그대로 답습하였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홍희복이 참조한 번역 대본이 ‘蘇州原刻本’ 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제일기언>이 ‘蘇州原刻本’ 을 선본으로 선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둘째, 단어의 수정이다. ‘蘇州原刻本’ 에서는 중국 사람이 외국인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에는 ‘天朝’ 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蘇州原刻本’ 을 祖本으로 하는 이후 판본들은 ‘天朝’ 를 ‘敝處’ 와 ‘家鄉’ 으로 모두 바꾸어 사용하고 있다. 원래 ‘天朝’ 라는 단어에는 중국인들의 자긍심이 내포되어 있어 다른 민족에 비해 우월하다는 의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하지만 ‘蘇州原刻本’ 이후 판본들은 이러한 표현을 지양한다. ‘敝處’ 와 ‘家鄉’ 으로 바꿔 좀 더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했던 것이다. 그러나 <제일기언>에서는 ‘天朝’ 와 ‘敝處’ , ‘家鄉’ 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는 최소 ‘蘇州原刻本’ 을 포함한 이후 판본들도 참고했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홍희복이 <제일기언>을 번역할 때 한 판본이 아니라 여러 판본을 참고했다고 볼 수 있으며, 한편 ‘蘇州原刻本’ 을 기본적으로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제일기언>의 회차 제목과 단어의 사용법 등을 근거로 볼 때 정영호가 밝힌 ‘道光十二年 芥子園重刻本’ 을 번역 선본으로 보기보다는 ‘蘇州原刻本’ 이 <제일기언>의 번역 선본에 더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蘇州原刻本’ 을 번역 대본으로 삼아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3. <제일기언>의 회차 구성

다음으로 <제일기언>의 구성 방식이다.

『镜花缘』	<제일기언>	특징	권수
第一回 女魁星北斗垂景象 老王母西池賜芳筵	제1회 女魁星北斗垂景象 老王母西池賜芳筵		1권
第二回 發正言花仙順時令 定罰約月姊助風狂	제2회 發正言花仙順時令 定罰約月姊助風狂		
第三回 徐英公傳檄起義兵 駱主簿修書寄良友	제3회 徐英公傳檄起義兵 駱主簿修書寄良友		
第四回 吟雪詩暖閣賭酒 揮醉筆上苑催花	제4회 吟雪詩暖閣賭酒 揮醉筆上苑催花		
第五回 俏宮娥戲誇金盞草 武太后怒貶牡丹花	제5회 俏宮娥戲誇金盞草 武太后怒貶牡丹花		
第六回 宰承宣遊上苑 百花獲譴降紅塵	제6회 眾宰承宣遊上苑 百花獲譴降紅塵	회차통합	
第七回 小才女月下論文科 老書生夢中聞善果			
第八回 棄器塵結伴遊寰海 覓勝跡窮踪越遠山	제8회 棄器塵結伴遊寰海 覓勝跡窮踪越遠山		2권
第九回 服肉芝延年益壽 食朱草入聖超凡	제9회 服肉芝延年益壽 食朱草入聖超凡		
第十回 誅大蟲佳人施藥箭 搏奇鳥壯士壺空拳	제10회 誅大蟲佳人施藥箭 搏奇鳥壯士壺空拳	회차통합	
第十一回 觀雅化閒遊君子邦 慕仁風誤入良臣府			
第十二回 雙宰輔暢談俗弊 兩書生敬服良箴	제12회 雙宰輔暢談俗弊 兩書生敬服良箴		3권
第十三回 美人入海遭羅網 儒士登山失路途	제13회 美人入海遭羅網 儒士登山失路途		
第十四回 談壽天道經聶耳 論窮通路出無腸	제14회 談壽天道經聶耳 論窮通路出無腸		
第十五回 喜相逢師生談故舊 巧遇合賓主結新親	제15회 喜相逢師生談故舊 巧遇合賓主結新親		
第十六回 紫衣女殷勤問字 白髮翁傲慢談文	제16회 紫衣女殷勤問字 白髮翁傲慢談文		4권
第十七回 因字聲粗談切韻 聞雁喉細問來賓	제17회 因字聲粗談切韻 聞雁喉細問來賓		
第十八回 辟清談幼女講義經 發至論書生尊孟子	제18회 辟清談幼女講義經 發至論書生尊孟子		
第十九回 受女辱潛逃黑齒邦 觀民風聯步小人國	제19회 受女辱潛逃黑齒邦 觀民風聯步小人國	회차통합	
第二十回 丹桂岩山雞舞鏡 碧梧嶺孔雀開屏			
第二十一回 逢惡獸唐生被難 施神槍魏女解圍	제21회 逢惡獸唐生被難 施神槍魏女解圍	회차통합	5권
第二十二回 遇白民儒士聽奇文 觀樂獸武夫發妙論			
第二十三回 說酸話酒保咬文 講迂談腐儒嚼字	제23회 說酸話酒保咬文 講迂談腐儒嚼字		
第二十四回 唐探花酒樓聞善政 徐公子茶肆敘衷情	제24회 說酸話酒保咬文 講迂談腐儒嚼字		
第二十五回 越危垣潛出淑士關 登曲岸閑遊兩面國	제25회 越危垣潛出淑士關 登曲岸閑遊兩面國		6권
第二十六回 遇強梁義女懷德 遭大厄靈魚報恩	제26회 遇強梁義女懷德 遭大厄靈魚報恩		
第二十七回 觀奇形路過翼民郡 談異相道出豕喙鄉	제27회 觀奇形路過翼民郡 談異相道出豕喙鄉		
第二十八回 老書生仗義舞龍泉 小美女銜恩脫虎穴	제28회 老書生仗義舞龍泉 小美女銜恩脫虎穴		
第二十九回 服妙藥幼子回春 傳奇方老翁濟世	제29회 服妙藥幼子回春 傳奇方老翁濟世		7권
第三十回 覓蠅頭林郎貨禽鳥 因志體枝女作螟蛉	제30회 覓蠅頭林郎貨禽鳥 因志體枝女作螟蛉		
第三十一回 談字母妙語指謎團 看花燈戲言猜啞謎	제31회 談字母妙語指謎團 看花燈戲言猜啞謎		
第三十二回 訪壽算暢遊智佳國 觀豔妝閒步女兒鄉	제32회 訪壽算暢遊智佳國 觀豔粧閒步女兒鄉		
第三十三回 粉面郎纏足受困 長鬚女玩股垂情	제33회 粉面郎纏足受困 長鬚女玩股垂情		8권
第三十四回 觀麗人女主定吉期 訪良友老翁得凶信	제34회 觀麗人女主定吉期 訪良友老翁得凶信		
第三十五回 現紅鸞林貴妃應課 揭黃榜唐義士治河	제35회 現紅鸞林貴妃應課 揭黃榜唐義士治河		

第三十六回 佳人喜做東床婿 壯士愁爲舉校妻	제36회 佳人喜做東床婿 壯士愁爲舉校妻		
第三十七回 新貴妃反本爲男 舊儲子還原作女		낙질	9권
第三十八回 步玉橋茂林觀鳳舞 穿金戶寶殿聽鸞歌		낙질	
第三十九回 軒轅國諸王祝壽 蓬萊島二老遊山		낙질	
第四十回 入仙山撒手棄凡塵 走瀚海牽腸歸故土		낙질	
第四十一回 觀奇圖喜遇佳文 述禦旨欣逢盛典	제41회 觀奇圖喜遇佳文 述禦旨欣逢盛典		10권
第四十二回 開女試太后頒恩詔 篤親情佳人盼好音	제42회 開女試太后頒恩詔 篤親情佳人盼好音		
第四十三回 因遊戲仙猿露意 念劬勞孝女傷懷	제43회 因遊戲仙猿露意 念劬勞孝女傷懷		
第四十四回 小孝女嶺上訪紅葉 老道姑舟中獻瑞草	제44회 小孝女嶺上訪紅葉 老道姑舟中獻瑞草		11권
第四十五回 君子國海中逢水怪 丈夫邦嶺下遇山精	제45회 君子國海中逢水怪 丈夫邦嶺下遇山精		
第四十六回 施慈悲仙子降妖 發慷慨儲君結伴	제46회 施自費仙子降妖 發慷慨儲君結伴		12권
第四十七回 水月村樵夫寄信 鏡花嶺孝女尋親	제47회 水月村樵夫寄信 鏡花嶺孝女尋親		
第四十八回 睹碑記默喻仙機 觀圖章微明妙旨		낙질	12권
第四十九回 泣紅亭書葉傳佳話 流翠浦寧裳覺舊蹤			
第五十回 遇難成祥馬能伏虎 逢凶化吉婦可降夫	제50회 遇難成祥馬能伏虎 逢凶化吉婦可降夫		13권
第五十一回 走窮途孝女絕糧 得生路仙姑獻稻	제51회 走窮途孝女絕糧 得生路仙姑獻稻		
第五十二回 談春秋胸羅錦繡 講禮制口吐珠璣	제52회 談春秋胸羅錦繡 講禮制口吐珠璣		
第五十三回 論前朝數語分南北 書舊史揮毫貫古今	제53회 論前朝數語分南北 書舊史揮毫貫古今		14권
第五十四回 通智慧白猿竊書 顯奇能紅女傳信	제54회 通智慧白猿竊書 顯奇能紅女傳信		
第五十五回 田氏女細談妙劑 洛家娃默禱靈籤	제55회 田氏女細談妙劑 洛家娃默禱靈籤		
第五十六回 詣芳鄰姑嫂巧遇 遊瀚海主僕重逢	제56회 詣芳隣姑嫂巧遇 遊瀚海主僕重逢		15권
第五十七回 讀血書傷情思舊友 聞凶信仗義訪良朋	제57회 讀血書傷情思舊友 聞凶信仗義訪良朋		
第五十八回 史將軍隴右失機 宰少女途中得勝	제58회 史將軍隴右失機 宰少女途中得勝		
第五十九回 洛公子山中避難 史英豪嶺下招兵	제59회 洛公子山中避難 史英豪嶺下招兵		16권
第六十回 熊大郎途中失要犯 燕小姐堂上宴嘉賓	제60회 熊大郎途中失要犯 燕小姐堂上宴嘉賓		
第六十一回 小才女亭內品茶 老總兵園中留客	제61회 小才女亭內品茶 老總兵園中留客		
第六十二回 綠香園四美巧相逢 紅文館群芳小聚會	제62회 綠香園四美巧相逢 紅文館群芳小聚會		17권
第六十三回 論科場眾女談果報 誤考試十美具公呈	제63회 論科場眾女談果報 誤考試十美具公呈		
第六十四回 賭石硯舅甥鬥趣 猜燈謎姊妹陶情	제64회 賭石硯舅甥鬥趣 猜燈謎姊妹陶情		
第六十五回 盼佳音虔心問卜 預盛典奉命掄才	제65회 盼佳音虔心問卜 預盛典奉命掄才		18권
第六十六回 借飛車國王訪儲子 放黃榜太后考閨才	제66회 借飛車國王訪儲子 放黃榜太后考閨才		
第六十七回 小才女卞府謁師 老國舅黃門進表	제67회 小才女卞府謁師 老國舅黃門進表		
第六十八回 受榮封三孤膺敕命 奉寵召眾美赴華筵	제68회 受榮封三孤膺敕命 奉寵召眾美赴華筵		19권
第六十九回 百花大聚宗伯府 眾美初臨晚芳園	제69회 百花大聚宗伯府 眾美初臨晚芳園		
第七十回 述奇形蠶繭當小帽 談異域酒罈作煙壺	제70회 述奇形蠶繭當小帽 談異域酒罈作煙壺		
第七十一回 觸舊事神在泣紅亭 聯新交情深凝翠館	제71회 觸舊事神在泣紅亭 聯新交情深凝翠館		20권
第七十二回 古桐台五美撫瑤琴 白迷亭八女寫春扇	제72회 古桐台五美撫瑤琴 白迷亭八女寫春扇		
第七十三回 看圍棋姚姝談弈譜 觀馬弔孟女講牌經	제73회 看圍棋姚姝談弈譜 觀馬弔孟女講牌經		
第七十四回 打雙陸嘉言述前賢 下象棋諧語談故事	제74회 打雙陸嘉言述前賢 下象棋諧語談故事		20권
第七十五回 弄新聲水榭吹簫 隱俏體紗窗聽課	제75회 弄新聲水榭吹簫 隱俏體紗窗聽課		
第七十六回 講六壬花前闡妙旨 觀四課隔下竊貞傳	제76회 講六壬花前闡妙旨 觀四課隔下竊貞傳		
第七十七回 鬥百草全除舊套 對羣花別出心裁	제77회 鬥百草全除舊套 對羣花別出心裁		
第七十八回 運巧思對酒縱諧談 飛舊句當筵行妙令	제78회 運巧思對酒縱諧談 飛舊句當筵行妙令		

第七十九回 指迷團靈心講射 擅巧技妙算談天		낙질	
第八十回 打燈虎亭中賭畫扇 拋氣球園內舞花鞋		낙질	
第八十一回 白迷亭董女談詩 凝翠館蘭姑設宴		낙질	
第八十二回 行酒令書句飛雙聲 辯古文字音訛疊韻		낙질	
第八十三回 說大書佐酒爲歡 唱小曲飛觴作樂		낙질	
第八十四回 逞豪興朗吟妙句 發婆心敬誦真經		낙질	
第八十五回 論韻譜冷言譏沈約 引毛詩佳句美莊薑		낙질	
第八十六回 念親情孝女揮淚眼 談本姓侍兒解人願		낙질	
第八十七回 因舊事遊戲仿楚詞 即美景談諧編月令		낙질	
第八十八回 借月旦月姊釋前嫌 逞風狂風姨泄舊忿		낙질	
第八十九回 闢元機曆述新詩 溯舊跡質明往事		낙질	
第九十回 乘酒意醉誦淒涼句 警芳心驚聞慘淡詞		낙질	
第九十一回 折妙字換柱抽梁 掣牙簽指鹿爲馬		낙질	
第九十二回 論果贏佳人施慧性 辯壺盧婢子具靈心		낙질	
第九十三回 百花仙即景露禪機 眾才女盡歡結酒令		낙질	
第九十四回 文豔王奉命回故里 女學士思親入仙山		낙질	
第九十五回 因舊恙筵上談醫 結新之庭中舞劍		낙질	
第九十六回 秉忠誠部下起雄兵 施邪術關前擺毒陣		낙질	
第九十七回 仙姑山上指迷團 節度營中解妙冒		낙질	
第九十八回 逞雄心挑戰無火關 啟欲念被圍巴刀陣		낙질	
第九十九回 迷本性將軍遊幻境 發慈心仙子下凡塵		낙질	
第一百回 建奇勳節度還朝 傳大寶中宗復位		낙질	

<표2> <경화연>과 <제일기연> 구성 방식 비교

<제일기연>은 <경화연>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특징을 보인다. 첫째, 바로 회차 구성이다. <경화연>은 총 100회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제일기연>은 총 78회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그중 37~40회(9권), 79~100회(12권)가 현재 전해지지 않는다. 9권과 12권이 낙질된 이유가 번역되지 않았기 때문인지, 아니면 일실(逸失)된 것인지 현재로써는 정확하게 확인할 방법이 없다. 다만 홍희복이 1847년에 11~16권까지 한꺼번에 여섯 권을 번역했다는 기록²⁷⁾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12권도 포함되므로 번역을 안 했을 가능성보다는 번역된 후 일실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만약 번역을 안 했다면 홍희복이 분명 번역하지 않았다는 기록을 남겼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번역 날짜를 보더라도 대개 3~4일에 한권을 번역하는 것을 보아

27) 필사 기록은 뒤에 이어지는 <표4>를 참고하기 바란다.

12권을 번역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 정영호²⁸⁾는 <제일기언>이 장회소설에서 사용되는 형식-매 회 끝에서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으니 다음 회에서 설명 하노라.’-이 변함없이 유지된 것으로 보아 번역자가 번역을 끝까지 진행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따라서 12권은 낙질 가능성이 크다. 9권은 현재 남아 있는 정보가 전혀 없으나 7권이 1838년 1월 31일자에 번역이 완성되었고, 8 권이 1838년 2월 7일에 번역되었으며, 10권이 1841년 3월 7일로 번역이 완성된 점으로 보아 7~8권을 번역하면서 9권을 함께 번역했거나 혹은 1838년~1841년 사이에 번역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9권도 12권과 마찬가지로 번역을 안 했을 가능성보다는 낙질의 가능성이 더 크다. 다만 본고에서 판단하기로 20권에서 ‘병중씨’, ‘등하의 괴로히 쓰다’ 는 기록을 남긴 것으로 볼 때 20권 이후는 미처 번역을 다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본다.

둘째, 회차 통합이다. <제일기언>의 일부 회차에서 <경화연>의 회차를 통합하여 하나의 제목으로 연결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경화연>의 6~7회가 <제일기언>의 6회로 통합되어 있고, <경화연>의 19~20회가 <제일기언>의 19회로 통합되어 나타난다. 그런데 <제일기언>의 회차가 중간에 생략된 7회나 20회가 이후 회차로 연결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6회 다음에 바로 8회로 넘어가는 특징이 보인다.

(6회) 언파의 만췌 대쇼하고 각각 훗터지니 모든 선동이 쏘흔 년월을 쓰라 하계의 투태홀식 빅화선즈는 특별이 녕남도 하원현 당슈지 집의 강싱 하니 **(7회)** 당슈지의 일흠은 오요 즈는 이정이니 세대로 녕남도 순췌 해 풍군 하원현의 스더니 초췌 설시 일즉 기세하고 계췌 넘시와 으 당민과 제부 사시로 더부러 일실의 거싱하니 다형이조선의 끼친 바 전탁이 잇서 족히 결활이 되는지라. (<제일기언>, 70쪽)

28) 정영호c, 앞의 논문, 291쪽.

위의 예문을 살펴보면 6회와 7회의 내용이 함께 연결되어 있으며 7회는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회와 20회²⁹⁾, 21회와 22회³⁰⁾도 역시 6회와 7회처럼 특별한 주희 없이 바로 연결시켰다. 이 과정에서 제목이 삭제된 경우가 있다. 그 예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경화연>		<제일기언>	
7회 23쪽	小才女月下論文科 老書生夢中聞善果	6회 70쪽	삭제
11회 43쪽	觀雅化閑遊君子邦 慕仁風誤入良臣府	11회 109쪽	삭제
20회 91쪽	丹桂岩山雞舞鏡 碧梧嶺孔雀開屏	19회 184쪽	삭제
22회 104쪽	遇白民儒士聽奇文 觀藥獸武夫發妙論	22회 207쪽	삭제

<표3> <경화연>과 <제일기언>의 회차 제목 비교

위의 표를 보면 <제일기언>의 일부 회차에서 <경화연>의 회차를 통합하면서 제목도 하나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경화연>의 6~7회가 <제일기언>의 6회로 통합되어 나타나면서 7회의 제목인 ‘小才女月下論文科 老書生夢中聞善果’가 삭제되었다. 또한 <경화연>의 19~20회가 <제일기언>의 19회로 통합되면서 20회의 제목인 ‘丹桂岩山雞舞鏡 碧梧嶺孔雀開屏’이 삭제되었다. 22회도 마찬가지로 21회의 내용과 통합되어 22회의 제목인 ‘遇白民儒士聽奇文 觀藥獸武夫發妙論’이 삭제되고 6회 제목으로 통합되었다. 11회는 제목만 삭제되었고 11회의 내용은 권지삼으로 연결되었다.

이처럼 <제일기언>은 <경화연>의 회차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제목까지 일부 삭제하는 등 체제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는 두 회를 통합하였음을 시

29) **(19회)** ㅁ초아 님원의 물화를 팔고 도라오거늘 삼인이 흥게 선상의 올라 정히 한담하야 비
ㅁ는 줄 모르더니 일일은 바라보니 흥 곳 상님이 일망무제흥 중 그 안의 허다흔 녀인이
안식이 교염하고 체지 경영하되 **(20회)** 낫낫치 원몸의 실이 감기고 수풀 남게 깃드려 흑
썩넙흘 먹는 즈도 잇스며 흑 넙으로 실을 토하는 즈도 잇스며 흑 실노 집을 얼의위 그 속
의 누은 즈도 잇거늘 당싱왈 (<제일기언>, 184쪽)

30) **(21회)** 저 서싱은 어려워 말고 알프로 갖가이 오라하야늘 당싱이 말말을 드르미 십분 황
겹하야 **(22회)** 년망히 추창하야 몸을 곱혀 대왈 (<제일기언>, 207쪽)

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셋째, 필사 기록정보와 관련된 기록이다. 홍희복은 <경화연>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 기록하였다.

권지	회수	필사 날짜	필사 상황
1권	1-6회	을미원월초삼일(1835.1.3.)	당구상촌 윤경누중의 희서하노라
2권	8-11회	을미정월십삼일(1835.1.13.)	지금 정유 녹십습□□□ 회일개의하다
3권	12-15회	을미원월이십이일(1835.1.22.)	병등희서
4권	16-20회	을미이월십이일(1835.2.12)	병등희서
5권	21-24회	을미납월망일서(1835.12.15.)	
6권	25-27회	을미납월념오일서(1835.12.25)	
7권	28-32회	무술원월희일(1838.1.31)	니어 쓰노라
8권	33-36회	무술이월초칠일서(1838.2.7.)	
9권	낙질		
10권	41-44회	신축삼월초칠일서(1841.3.7.)	
11권	45-47회	영미납월초팔일서(1847.12.8.)	이 책을 을미년에 시죽하야 그 스이 간간히 니어쓰다가 금년에야 저기 틈을 툇 맞기를 괴약하나 그도 오히려 맞지 못하리로다
12권	낙질		
13권	50-52회	영미납월십칠일(1847.12.17.)	대설중서
14권	53-56회	영미납월이십일(1847.12.20.)	취중에 그리노라
15권	57-59회	영미납월념오일 (1847.12.25)	취중필서
16권	60-63회	영미제석 (1847.설날)	총망필서하니 금년에 녹권을 그려니니라
17권	64-66회	무신원월초구일서(1848.1.9.)	
18권	67-69회	무신원월십삼일 (1848.1.13.)	병중서하노라
19권	70-73회	무신원월십구일(1848.1.19.)	취중서
20권	74-78회	무신원월념이일(1848.1.22)	등하에 괴로히 쓰다

<표4> <제일기언>의 번역 시기 및 역자 상태³¹⁾

위의 표를 보면 홍희복이 <제일기언>을 번역했던 정확한 시기와 번역 장소, 역자의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번역시기를 살펴보면 1835년에 번역을 시작하여 6권까지 완성했고, 2년 동안 휴지기를 가진 후에 1838년부터 다시 번역 작업을 시작하여 8권까지 번역하였다. 이후 다시 1년을 휴지기를 가진 다음 다음해에 10권만 번역한 후, 또다시 6년 동안 휴지기를

31) 『제일기언』, 59, 105, 148, 192, 233, 279, 322, 362, 433, 509, 546, 580쪽.

가진다. 1846년에 다시 번역을 시작하여 16권까지 완성한 후 다음해에 한 달 동안 20권까지 완성하게 된다. 따라서 홍희복은 번역에만 총 13년이 걸린 셈이다. 이때 홍희복은 필사 기록을 곳곳에 남겨두었는데 2권의 필사 기록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필기 시간이 ‘을미정월십삼일’ 인데 즉 1835년에 2권을 완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때 필사 기록을 보면 ‘지금 정유 육십삼□□□회일개의하다’ 라는 기록이 남아있다. 홍희복이 1859년에 죽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정유 육십삼에 해당하는 시기에는 이미 홍희복이 존재하지 않는 시기이므로 이러한 필사 기록은 후손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라고 파악된다. 따라서 홍희복에 의해 2권이 번역된 이후 ‘정유 육십삼년(1863)’에 후손에 의해서 개의(改衣)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1863년에 홍희복의 후손들에 의해 <제일기언>의 2권 겉표지가 바뀌었던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전해지는 <제일기언>은 1종 밖에 없기 때문에 왜 2권에서만 그러한 기록이 남아 있는지, 어떠한 부분에서 개작이 이루어졌는지는 현재로써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2권 외에도 필사 기록이 남아있어 이 기록을 통해 역자의 번역 장소 및 역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1권은 ‘당구상촌 운경누’에서 쓴 것이고 13권은 대설 중에 완성한 것이다. 또한 3권과 4권, 18권은 병중에서 완성한 것이고 14권과 15권, 19권은 술 취한 와중에 번역한 것이며, 20권은 등 밑에서 괴로워하며 완성한 것이다. 이처럼 홍희복은 자신이 번역했던 날짜와 번역 장소, 역자의 상황까지 기록함으로써 번역과정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Ⅲ. <제일기언>의 번역 양상 비교

번역은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바꾸는 것이다. 그러나 이때 단순히 한 언어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역자의 임의대로 첨가하기도 하고 삭제하기도 하며 축약하거나 개작하기도 하는 등의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번역은 번역 형태에 따라 번역, 번안, 재창작 등으로 구분되고 번역의 분량에 따라 전문번역과 부분번역으로 나누어진다. 또한 번역의 질에 따라 완역과 축약으로 나눌 수 있으며 번역의 기법에 따라 의역과 직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³²⁾

조선시대 홍희복이 번역한 <제일기언>은 이러한 번역양상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다. 어떤 부분에서는 번역 형태가 번역이기도 하고 번안이기도 하며 분량 면에서도 전문 번역일 수도 있고 부분번역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홍희복은 이어진의 <경화연>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역자의 의도에 따라서 일정부분은 그대로 번역하기도 하고 일정부분에서는 개작이 이루어지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소설 구성요소적인 측면, 문화적인 측면 등에서 조선과 중국의 차이가 클 경우 작가가 작가 임의에 따라 변경, 삭제, 축약, 변이, 첨가된 부분들이 나타난다. 이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삭제, 변이, 첨가인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춰 작품을 면밀히 검토하고자 한다.

32) 민관동b, 「국내의 중국고전소설 번역 양상」, 『중국어문논역총간』 24, 중국어문논역학회, 2009, 617~620쪽.

1. 삭제

삭제는 원전 내용을 역자가 의도적으로 없애버린 것이다. 먼저 작품 속에 삭제된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고 그것이 가지는 의미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소설 구성요소, 문화적 요소로 나누어 살펴보되, 이를 다시 인물과 관련된 삭제, 장면과 관련된 삭제로 세분화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1) 소설 구성요소

<제일기연>에서 <경화연>의 일부 내용이 삭제되는 이유는 먼저 소설 구성요소와 관련된다. 소설 구성요소의 삭제는 특정한 의도가 있다기보다는 <경화연>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홍희복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삭제하는 데서 비롯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소설 구성요인에 따라 삭제된 부분을 살펴보되, 소설 구성요소인 인물, 배경, 사건을 인물과 장면으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배경과 사건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장면과 관련되므로 함께 논의한다.

(1) 인물과 관련된 삭제

소설 구성요소와 관련된 삭제는 주로 ‘인물 간 대화 삭제’와 ‘인물 행동 삭제’로 나타난다. 먼저 인물간의 대화 삭제이다.

- (가) 林之洋道：‘他同妹夫說笑，俺也隨口問他兩句。他掉轉頭來，把俺上下一望，陡然變了樣子；臉上冷冷的，笑容也收了，謙恭也免了。停了半晌，他才答俺半句。’ ⊙多九公道：‘說話只有一句、兩句，怎麼叫作半句？’林之洋道：‘他說的話雖是一句，因他無情無緒，半吞半吐，及至到俺耳中，

卻只半句。俺因他們個個把俺冷淡，後來走開，俺同妹夫商量，俺們彼此換了衣服，看他可還冷淡。登時俺就穿起綢衫，妹夫穿了布衫，又去找他談話。那麼他們忽又同俺謙恭，卻把妹夫冷淡起來.’³³⁾ (<경화연> 1권, 179쪽)

(나) 원외 왈, “믹제는 그치라 너 자세히 말허리라. 그썸 므제 브야흐로 저와 담소허거늘 너 것흐로쵸츠 두어 므디 무른즉 제 문득 머리를 도로혀 나의 일신 상하를 슬피더니 문득 안식을 고쳐 닝낙하며 거만하게 대답도 변변이 아니허야 모호히 식척허거늘 (㉠ 삭제) 그후 므제와 의논허고 의관을 서로 밧고아 닝고 쓴 후 사름을 츠즈 문답흐즉 제 과연 너게 겸공허고 므제의게 거만허더이다.” (<제일기연>, 251쪽)

위 예문은 당생 일행이 양면국(兩面國)에 이르렀을 때 당생과 원외가 양면국에서 느낀 바를 다구공에게 말하는 장면이다. (가)에서는 원외가 다구공에게 자기가 양면국 사람에게 무시 당한 사연을 이야기하며 자신의 질문에 반마디만 대답했다며 분해하자, 다구공이 ㉠에서 반 마디라는 게 무슨 뜻인지 묻는 대화가 나타난다. 그러나 (나)에서는 원외의 말에 다구공이 질문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원외의 말만으로 서사를 진행하고 있다.

33) 李汝珍, 『경화연』, 中華書局香港分局, 1965. 이 책은 북경대학 도서관에 소장한 소주완각본을 교주하여 출판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앞으로 원문 인용시 작품명과 쪽수만 본문에 기록하기로 한다. 또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현대어 번역본을 제시한다. 번역은 李汝珍, 문헌선 역, 『경화연』, 문학과 지성사, 2011, 274~275쪽. 앞으로 번역문 인용시 작품명과 쪽수만 본문에 기록하기로 한다.

임지양가 말하기를 “매부와 웃으며 이야기하기에 저도 곁에서 몇 마디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고개를 돌려 저를 위 아래로 훑어보더군요. 그러고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취했습니다. 아주 차가운 표정으로, 웃음은 물론 겸손한 태도도 없었지요. 한참 뒤에야 반 마디 대답하더군요.” ㉠ “한 마디, 두 마디도 아니고 반 마디는 뭘니까?” 다구공이 물었다. “물론 한 마디 말을 했겠지만 어찌나 쌀쌀맞은지 받은 삼켜져서 제 귀에는 반 마디만 들렸습니다. 그 뒤 길을 갈 때도 사람들이 저한테만 냉담한 것 같아서 매부에게 웃을 바꾸어 입자고 했습니다. 매부한테도 쌀쌀맞은지 보려고요. 그래서 제가 명주옷을 입고 매부가 무명옷을 입은 뒤 말을 걸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저한테만 공손하고 매부한테는 쌀쌀맞기 이를 데 없더군요.”

(가) 老者道：“承老丈高興賜教，些須微物，不過略助雅興，敝處歷來猜謎都是如此 °秀才人情，休要見笑 °” 多九公連道：“豈敢！”把香收了。㉠唐敖道：“請教九公：前在途中所見眼生手掌之上，是何國名？”多九公道：“那是深目國。”㉡唐敖聽了，因高聲問道：“請教主人：‘分明眼底人千里’，打個國名，可是‘深目’？”老者道：“老丈猜的正是。”也把贈物送來。旁邊看的人齊聲贊道：“以‘千里’刻劃‘深’字，真是絕好心思！做的也好，猜的也好！”³⁴⁾ (<경화연> 1권, 226쪽)

(나) 주인이 만슈향 흰 봉을 주어 왈, “노장의 고흥으로 우연이 유희하시니 감히 미물노써 흥치를 돕고져 하나 폐방이 즈리 궁벽하야 등미의 증물이 막양 이곳치 낙쇼하니 슈지의 인정을 웃지 마르쇼셔.” (㉠ 삭제) ㉡ 당심 니어 흰 막디 막치니 좌위 모다 유식하물 일컷고 증물을 슈더니 (<제일기연>, 320쪽)

위 예문은 당생 일행이 지가국(智佳國)에 이르렀을 때 등롱 수수께끼를 즐기는 모임 춘사에 들어가 등롱 수수께끼 모임에 참석하는 장면이다. (가)에서는 등롱 수수께끼에 대한 답을 당생이 다구공에게 구하여 답하는 장면이다. 그런데 (나)에서는 ㉠을 삭제함으로써, 다구공에게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생이 바로 정답을 말하는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 밖에도 ㉡에서는 수수께끼 하는 과정을 간략하게 축약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의미 전달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가) 口口聲聲，只哭‘甥女死的好苦’。㉠多九公道：“林兄才吃許多海水，脾胃

34) “즐거움을 더해주시서 드리는 소소한 상품입니다. 그저 흥취를 더하고자 하는 저희 풍습이니 약소하다고 비웃지 말아주십시오.” 다구공이 “비웃다니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하며 항을 받았다. ㉠그때 당오가 다구공에게 물었다. “구공, 눈이 손바닥에 있던 나라가 무슨 나라였지요?” 다구공이 심목국이라고 하자 ㉡당오가 큰 소리로 물었다. “어르신, ‘동공에 비치는 형상이 천 리로다’ 인 나라는 심목국이 아닙니까?” 노인이 잘 맞혔다며 상품을 주자 옆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칭찬했다. “심을 천 리로 표현하다니 정말 절묘하군요! 문제도 좋고 답도 잘 맞혔습니다.” (<경화연> 1권, 344쪽)

未免受傷，休要悲慟。老夫適才想起一事，唐小姐似乎該有救星。”林之洋道：“俺在海裡，不過喝了兩口水，就人事不知，俺的甥女下海多時，怎麼還能有救？”多九公道：“前在東口所遇那個道姑。³⁵⁾ (<경화연> 1권, 329쪽)

(나) 오히려 싱녀를 불러 익음하려다. (㉠ 삭제) 듯하나 일즉 말하되.
(<제일기연>, 402쪽)

위 예문은 조카인 당소산이 괴물들에게 끌려가 생사를 알 수 없게 되자 슬픔에 빠진 원외를 다구공이 위로하는 장면이다. 그러나 (나)에서는 ㉠과 같이 다구공이 원외를 위로하는 대화와 원외가 다구공의 말을 믿지 않고 슬퍼하는 장면을 삭제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 <경화연>에 나타난 인물간의 대화 중 일부가 <제일기연>으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삭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경화연>에 나타난 인물간의 대화 중 일부를 삭제한다고 해도 서사진행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대부분 삭제된 지점이 대화의 흐름을 매끄럽게 만들거나 불필요한 질문들을 삭제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인물 행동 삭제이다.

(가) 林內飛出一隻怪鳥，其形如鼠，身長五尺，一隻紅腳，兩個大翅，飛到不孝鳥跟前，隨即抱住，騰空而起。㉠林之洋忙拿槍裝藥，對準此鳥。正要放時，誰知火繩沾水已熄。轉眼間，那鳥去遠。眾水手道。³⁶⁾ (<경화연> 1권,

35) 하지만 계속해서 “불쌍한 내 조카, 이렇게 죽다니” 하며 울었다. ㉠다구공이 다가가 말했다. “임형, 바닷물을 마셔서 비장과 위가 상했을 겁니다. 슬퍼하지 말고 좀 쉬시지요. 문득 생각해보니 당 소저는 목숨을 건졌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잠시 있었을 뿐인데 저승 문턱까지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바다에 있으면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던 말입니까?” 전에 동구산에서 만났던 도사 말입니다. (<경화연>1권, 489쪽)

36) 숲에서 쥐처럼 생긴 괴상한 새 한 마리가 날아왔다. 다섯 자쯤 되고 한 쪽 다리만 붉은 새는 커다란 날개를 펴리며 불효조를 낚아채 갔다. ㉠임지양이 일른 탄약을 장전한 뒤 조준했지만 화승이 이미 젖어 불이 붙질 않았다. 새는 눈 깜짝할 사이에 멀리 사라져버렸다.

63~64쪽)

(나) 님중으로 괴이흔 새 느라오니 그 형상이 쥐 갖고 기럭 오척은 호고 불근 드리 다만흔 쪽이요 두 날이 그장 큰지라 바로 불효조를 향하야 오며 외발노 움켜여 차고 닻거늘 (㉠ 삭제) 중인이 왓. (<제일기연>, 104쪽)

위 예문은 당생 등이 기괴한 새를 보는 장면이다. 기괴한 새는 불효조(不孝鳥)를 괴롭혔을 때 나타나는 새로, 기괴한 새의 형상은 마치 쥐 같고 길이는 오척에 해당하며 다리가 붉은색인데 한 쪽만 있다고 한다. 또한 두 날개는 굉장히 큰데 사람들이 불효조를 괴롭힐 때 나타나 불효조를 외발로 움켜쥐고 날아간다는 것이다. 이때 (가)에서는 기괴한 새가 나타나자 ㉠에서는 원외가 새를 쏘려는 행위를 세세하게 묘사한 반면, (나)에는 원외가 총을 들고 새를 쏘려는 장면이 완전히 삭제되었다.

(가) 尹紅萸眼含秋水，唇似涂朱，體度端粧，十分豔麗。身上衣服雖然襤褸，舉止甚是大雅。㉠二人見禮退出，大家仍舊歸坐。唐敖道³⁷⁾ (<경화연> 1권, 100쪽)

(나) 윤흥유의 콧츠로 무은 낭협과 옥으로 삭인 귀 밧치 임의 절세흔 용모 여늘 겹하야 체되 단장하야 의상이 비록 초초하나 거지 더욱 엄너흔지라 (㉠ 삭제) 당싱 왓. (<제일기연>, 144쪽)

위 예문은 당생 일행이 원고국(元股國)에서 당생의 스승인 윤원을 만나 그

선원들이 말하기를 (<경화연>1권, 109쪽)

37) 윤흥유는 눈매가 곱고 입술이 붉은 데다 몸가짐이 단정하니 매우 아름다웠다. 둘 다 옷차림은 남루했지만 거동은 무척 우아했다. ㉠남매가 인사를 올리고 나가자 모두들 다시 자리에 앉았다. (<경화연>1권, 160쪽)

의 집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다. (가)에는 윤원의 집에 도착하여 서로 담소를 나누는 도중에 윤원의 딸과 아들이 나와 인사를 한 후에 윤원의 딸과 아들의 외모를 묘사하고 있다. 이후 ㉠남매가 인사를 올리고 나가자 모두들 다시 자리에 앉는 장면으로 연결된다. 하지만 (나)에서는 ㉠을 삭제하여 두 자녀의 외모를 묘사한 다음에 바로 당생의 말을 이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번역하고 있다.

(가) 四人一同出來，㉠走了兩步，旁邊殘桌上放著一根剔牙杖，老者取過，聞了聞，用手揩了一揩，放入袖中。出了酒樓，到了市中，只見許多人圍著一個美女在那裡觀看。³⁸⁾ (<경화연> 1권, 171쪽)

(나) 스인이 이에 문을 나며 (㉠ 삭제) 저즈 ㄹ온디로 지나더니 길가의 허다한 사람이 혼 낫 녀즈를 둘러섯시니. (<제일기연>, 233쪽)

위 예문은 당생 일행이 속사국(淑士國)에 이르러 어떤 술집에서 이명 노인과 더불어 술을 마시면서 속사국의 풍습을 의논하는 장면이다. (가)에서는 당생 등이 술을 마신 후 떠날 차비를 할 때 이명 노인이 옆의 탁자에서 이쑤시개를 가져가는 장면을 묘사한 이후 시장으로 나가는 장면으로 연결하고 있는 반면 (나)에는 당생 등이 술을 마신 후 바로 시장으로 나가는 장면으로 연결되어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 인물 행동 묘사에서도 인물 대화 삭제처럼 부분적인 삭제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인물 대화 삭제처럼 내용을 전달함에 있어서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으며, 원전의 흐름에도 전혀 차이가 나타

38) 네 사람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두어 걸음이나 읊졌을까, 노인이 갑자기 옆 탁자에 놓인 이쑤시개를 들어 냄새를 맡아본 뒤 손으로 쓱 문지르고는 소매에 집어넣었다. 술집을 나와 저갓거리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아름다운 여인을 둘러싼 채 구경하는 게 보였다.(<경화연>1권, 262쪽)

나지 않는다. 따라서 인물과 관련된 삭제에서는 앞서 홍희복이 서문에서 밝혔듯이 번역과정에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삭제하여 번거로운 부분을 덜어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장면과 관련된 삭제

다음은 장면과 관련된 삭제이다.

(가) 你先把表看了，朕再加恩賜你封號，以便同著來使即乘飛車早回本國。進臣把表遞過。若花展開觀看，只見上面寫著：①女兒國國王臣陰奇，匍匐謹上書天朝天后大皇帝陛下。(중략) 倘遂犢舐之私，終矢雀銜之報。誠惶誠恐，稽首頓首。若花看罷，不覺一陣心酸，落下淚來。³⁹⁾ (<경화연> 2권, 500~501쪽)

(나) 네 묻져 너의 부왕의 표문을 보라. 짐이 다시 은혜를 더어 왕족을 봉하야 스신과 함께 비거를 타고 일즉이 본국에 도라가물 허허노라. ② 삭제 이에 근시로 햐야곰 표문 [표문은 번거햐기로 올니지 아니햐다] 을 ㅁ려 약화를 주니 약화 표문을 보다보기를 다햐미 ㅁ음이 식로이 슬푸물 녀의지 못햐야 눈물을 흘너 (<제일기언>, 632쪽)

위 예문은 100명의 재녀가 과거시험을 본 이후 무척천이 그들을 궁궐로 초대하여 여아국 국왕의 딸인 약화에게 어머니의 편지를 전달해 주는 장면이다. 이때 (가)에서는 편지 내용이 모두 실린 반면 (나)에서는 삭제되었다. 그런데 삭제한 이유까지 언급되고 있어 주목된다. 홍희복은 (나) 지문에서 ‘표문은 번거햐기로 올니지 아니햐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홍희

39) 우선 이 표문을 보거라. 그리고 짐이 너에게 봉호를 내릴 테니 하늘을 나는 수레를 타고 본국으로 돌아가라. 태후가 신하에게 표문을 건네주라고 했다. 약화가 표문을 펼쳐보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다. ① 여아국 국왕 음기가 천조 천후대황제 폐하께 엎드려 아뢰옵니다. (중략) 제 사사로운 바람을 이뤄주신다면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나이다. 황궁하여 몸 돌바를 모르오며 머리를 조아려 인사 올립니다. 약화는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주르륵 흘렸다. (<경화연> 2권, 151~152쪽)

복이 서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번거로운 부분을 덜어내는 과정에서 발생한 삭제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48회에서 50회에 해당하는 분량이 통째로 삭제된 것이다.

(가) (47회) 正在觀看，忽見對面祥雲繚繞，紫霧繽紛，從那山清水秀之中，
透出一座紅亭 °未知如何，下回分解 °㉠(중략) (50회 중간) 歸臣姐妹三
人，被眾人擡上小舟，明知凶多吉少 °40) (<경화연> 1권, 347~369쪽)

(나) (47회 마지막) 정히 신혼이 아득하고 눈이 결을치 못하더니 홀연 당
면하야 상서이 구름이 즈욱하며 붉은 아개 분 〃 하더니 그 ㄱ운덕로
조츠 표묘흔 붉은 정자 소스나 반공의 스뭇츠니 그 무슴 정진고 하회
에 분해하라. (㉠-48~50회 중간까지-삭제) (50회 시작) 화설 당규
신이 음약화와 님완여로 더부러 여러 도적의 꺾박흐믈 넘어 형혀 손
을 몸에 ㄱㅁ히 흘가 저허하야 하느디로 저근 빅에 누리믹 스스로 헤
오디 분명히 흥ㅎ미 만코 길ㅎ미 적을지라 (<제일기연>, 433~437
쪽)

위 예문은 당생의 딸이 당생을 찾아 여행하는 도중 소풍래산에 도착하여 비문을 발견하고 약화와 당생의 딸이 비문의 내용을 토론하는 장면이다. 그러나 이 토론 장면이 (나)에서는 통째로 삭제되었다. (나)에서는 비문에 관련된 내용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다만 소풍래산에 도착하여 신비로운 정자를 발견하는 것으로 47회는 종료가 되고 48~50회 중간까지의 내용이 삭제된 후 50회 시작되는 부분에서 강도를 만나는 장면으로 연결된다. 비문의 내용은 100명의 재녀가 전생에 어떠한 신분이었는지, 또한 별명은 무엇인

40) 두 사람이 정신없이 구경하고 있을 때 맞은편에서 상서로운 구름과 자색 안개가 피어오르더니 그 사이로 붉은 정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 다음 회에 계속된다. (중략) (50회 중간) 작은 배에 실린 세 사람은 험한 일을 당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다. (<경화연> 1권, 515~542쪽)

지를 소개한 후 약화와 당생의 딸이 자신들의 이름을 발견하여 이에 대해서 토론하는 내용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홍희복은 이러한 설명을 번거롭게 생각하여 앞서 표문을 삭제한 것처럼 비문의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내용상으로 갑자기 도적이 등장하는 장면은 어색할 수 있으나 내용전개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문화적 요소

<제일기연>에서 <경화연>에 나타난 내용이 삭제되는 두 번째 이유는 문화적 요인 때문이다. 문화적 요인은 홍희복이 <경화연>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원전인 <경화연>에 나타난 중국의 풍속이나 민족적 특성 등을 삭제한 것이다. 이는 중국과 한국이 문화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으로, 원전에 나타난 중국식 유머나 속담 그리고 민족성이 조선 문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홍희복이 밝힌 서문에서도 밝힌 바 있다. 즉 ‘풍속에 갖지 아닌 곳과 언어의 다른 곳을 곤치고 윤식하야 언문으로 번역’한 것이다. 이처럼 문화적 요인에 의해 홍희복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변이나 첨가하는 식으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지만, 완전히 삭제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나타난다. 삭제는 주로 중국 문화와 관련된 경우가 많다. 중국 문화와 관련된 삭제는 주로 인물간의 대화 삭제로 나타나는데, 주로 중국식 속담, 풍습, 유머, 음운학 등이 등장하는 부분에서 이루어진다.

먼저 중국 ‘속담’ 과 관련된 삭제이다.

(가) 倘惜福君子於鄉黨中不時開導，毋得奢華，各留餘地，㊟所謂‘常將有日思無日，莫待無時想有時’。如此剗切勸諭，奢侈之風，自可減息，一歸儉樸，何患家無蓋藏。即偶遇饑歲，亦可無虞。⁴¹⁾ (<경화연> 1권, 79쪽)

41) 따라서 김소환 군자들이 항상 사치하지 말고 여유를 만들라고 일깨워주어야 합니다. ㊟

(나) 옷사름 된 직 붓이 무르치며 엄히 경칙하여야 사치를 금하여야 남은 직 물이 잊게 하면 (㉠ 삭제) 흥년을 만나 죽히 근심이 덜할거시오.
(〈제일기연〉, 120쪽)

위의 예문은 당쟁 일행이 군자국에서 오씨 형제로 더불어 중국의 풍습을 담론하는 장면이다. 이때 (가)에서는 〈증광현문〉에 실려 있는 시 속의 속담 ㉠을 인용하여 사치를 경계하고 있다. 하지만 (나)에서는 속담을 삭제하였다. 〈증광현문〉은 〈채근담〉, 〈명심보감〉과 더불어 중국의 대표적인 3대 처세 격언서이다. 〈증광현문〉은 〈고금현문〉이라고도 한다. 하지만 조선에서는 〈채근담〉과 〈명심보감〉만 알려졌을 뿐 〈증광현문〉은 생소한 격언서인 것이다. 따라서 홍희복은 낯선 〈증광현문〉의 시를 삭제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가) 林之洋道：‘你是酒保，你臉上戴著眼鏡，已覺不配。你還滿嘴通文，這是甚意？㉠剛才俺同那些生童講話，倒不見他有甚通文，誰知酒保倒通起來，真是‘整瓶不搖半瓶搖’！你可曉得俺最猴急，耐不慣同你通文，有酒有菜，只管快快拿來！’⁴²⁾ (〈경화연〉 1권, 165~166쪽)

(나) 원외 왈, “네 임의 주뵈 되얏스면 안경과 선지 당치 아니커늘 흐물며 녀의 무득흔 비 문즈로 말흐니 그 엇진 도리뇨? (㉠ 삭제) 내심히 목이 무른지라 너와 더부러 글 말흐기 슬흐니 썰니 술과 칩를 다만

여유가 있을 때 없는 날을 대비하고, 빈곤할 때 부유한 시절을 생각하지 말라는 등의 말로 힘껏 권하면 사치를 숭상하는 분위기가 자연히 사라지고 근검절약할 테니, 집집마다 여유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설령 흥년이 들더라도 근심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경화연〉1권, 130쪽)

42) “술집 종업원이면서 안경을 쓰다니 전혀 안 어울리는군. 게다가 술집에서 어울리지 않는 현학적인 말투라니. ㉠학생들도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거늘 술집에서 어린 말투를 들을 줄이야.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딱맞는군. 내가 몹시 목말라 자네와 말장난하고 싶지 않으니 술과 안주나 어서 내오게.” 임지양이 대꾸했다. (〈경화연〉1권, 256쪽)

가져오라!” (<제일기연>, 226쪽)

위 예문은 당생 일행이 속사국에 이르렀을 때 술집에서 종업원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다. (가)에서는 술집 종업원이 안경을 쓰고 말할 때도 현학적인 말투를 쓰자 그것을 보고 화가 난 원외가 종업원을 풍자하고 있다. 이때 원외는 속담을 인용하고 있는데 ㉠에서 사용된 속담은 학문이 높은 사람은 더욱 겸손해야 하는데 오히려 지식을 자랑하니 무식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나)에는 ㉠에 해당하는 속담을 삭제하였다. ㉠은 송나라 때 승려인 종고록(宗杲录)이 <大慧普禪師宗門武庫·湛堂和尚>⁴³⁾에서 ‘一瓶不響, 半瓶晃盪’ 이라고 표현한 것을 이어진이 표현방식을 바꿔 활용한 것이다. 원래 ‘一瓶不響, 半瓶晃盪’ 은 병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소리가 나지 않지만 병에 물이 반만 있으면 요란하게 소리가 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어진은 이 표현을 ‘整瓶不搖半瓶搖’ 라고 바꿔서 사용했는데, 그 뜻이 물 가득한 병은 요란하지 않지만 물이 반만 있는 병은 요란하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한국의 속담으로 ‘빈 수레가 요란하다’ 는 것이 있으나 동일한 어휘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속담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경화연>을 현대에 한국어로 번역할 때 이를 ‘빈 수레가 요란하다’ 로 번역하고 있으나 당시 홍희복에게 있어서는 낯선 표현일 수 있다. 오히려 중국에서 이와 유사한 표현으로 ‘空車響聲大’ 라는 표현이 있다. 이는 빈 차의 소리가 더 크다는 의미이다. 만약 이 표현을 사용했다면 홍희복이 같은 속담으로 인식했을 것이나 서로 다른 표현방식으로 인해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익숙하지 않은 표현을 삭제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다음은 중국 ‘풍습’ 과 관련된 삭제이다.

43) 你這瓶子本自潔淨，卻有這些惡水在裡面，又不滿，只管響，要響得不響，須是依前傾出甕卻蕩洗了，卻滿著一瓶好水便不響，因甚不響？蓋謂滿了。

(가) 若以罪之大小而論，宰牛的原算罪魁；但此輩無非市井庸愚，只知唯利是趨，豈知善惡果報之道。況世間之牛，又焉知不是若輩後身？據小子愚見，《春秋》責備賢者，其罪似應全歸買肉之人。倘仁人君子終身以此為戒，勝如吃齋百倍，冥冥中豈無善報！㉠又聞貴處宴客，往往珍羞羅列，窮極奢華。桌椅既設，賓主就位之初，除果品冷菜十餘種外，酒過一二巡，則上小盤小碗，其名南喚‘小吃’，北呼‘熱炒’44) (<경화연> 1권, 75쪽)

(나) 이 진것 소를 줍는 쇼민의 꺽를 의논컨디 오히려 경헝거니와 그 고기 사먹는 군즈는 꺽를 의논컨디 그 꺽에 십비 더헝다 헝노니 만일 인 " 군직 일노써 종신 경계헝면 반드시 7만헝 7온디 음덕이 되리이다. ㉠ 삭제" (<제일기언>, 118쪽)

위 예문은 당생 일행이 군자국에 이르렀을 때 오씨 형제의 집에서 중국의 각종 풍습 중 사치와 관련하여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다. 그러나 (나)에서는 ㉠이 통째로 삭제되었다. 중국에서는 잔치를 할 때 사치를 하는 풍습이 있는데 이러한 풍습은 중국 사람들에게 조차 경계 받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경화연>에서도 ‘當日天朝士大夫曾作《五簋論》一篇，戒世俗宴不可過奢，菜以五樣為度，故曰‘五簋’。°其中所言，不豐不儉，酌乎其中，可為千古定論，後世最宜效法。’ 45)라고 언급하고 있다. 즉 중국에서도 지나친 사치로 인하여 음식이 낭비되고 있음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흥희복 또한 이러한

44) 누가 죄가 더 큰가를 따지자면 도살자의 죄가 가장 크겠지만, 그들은 이익만 추구하는 우매한 시정잡배라 인과응보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다음 생애에 자신들이 소로 태어날 수 있다는 걸 어찌 알겠습니까? 『춘추』에서 ‘어진 사람을 책망하라’ 하셨으니, 그 죄는 고기를 산 사람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덕행을 갖춘 군자로서 평생 이를 명심하고 채식한다면 그 또한 음덕을 쌓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한 귀국에서는 연회를 열 때 온갖 산해진미를 한 상 가득 차린다고 들었습니다. 자리가 완비되고 객이 모두 앉으면 과일과 냉채 10여 종이 먼저 오르고, 술이 한두차례 돈 뒤 남쪽에서는 ‘소홀’, 북쪽에서는 ‘열초’ 라고 부르는 전체 요리가 올라온다지요 (<경화연>1권, 124쪽)

45) 옛날에 천조의 사대부들은 ‘오케론’ 을 지어 과도한 연회를 경계토록 했습니다. 요리란 다섯 가지면 충분하다는 뜻에서 오케라고 했고, 음식은 푸짐해도 인색해도 안 되며, 그 중간에 적절하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경화연> 1권, 126쪽)

사치 장면은 조선의 풍속과 맞지 않기 때문에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조선에서도 손님을 접대함에 있어 정성을 다하는 것은 맞지만 중국과 같이 사치스러운 상차림은 지양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치와 관련하여 제비집에 대한 에피소드도 등장한다.

(가) 卽匆匆去了 °①眾水手把倭瓜`燕窩抬到后梢,到晚吃飯,煮了許多倭瓜燕窩湯 °都歡喜道:“我們向日只聽人說燕窩貴重,卻未吃過;今日倭瓜叨了燕窩的光,口味自然另有不同 °連日辛辛苦苦,開開胃口,也是好的 °”彼此用箸,都把燕窩夾一整瓢,放在嘴裡嚼了一嚼,不覺皺眉道:“好奇怪!為何這樣好東西,到了我們嘴裡把味都走了!”內中有幾個啞嘴到:“這明明是粉條子,怎麼把他混充燕窩?我們被他騙了!”及至把飯吃完,倭瓜早已乾乾淨淨,還剩許多燕窩 °林之洋聞知,暗暗歡喜,卽托多九公以照粉條子價錢給了幾貫錢向眾人買了,收在艙里道:“怪不得連日喜鵲只管朝俺叫,原來卻有這股財氣!” 46) (<경화연> 1권, 80쪽)

(나) 마지 못하야 니별을 고흐나이다. (㉠ 삭제) (<제일기연>, 122쪽)

위의 예문은 사공들이 오씨 형제가 준 호박과 제비집을 받은 후에 기뻐하며 저녁으로 요리하는 장면이다. (가)에서는 사공들이 기뻐하며 저녁으로 호박과 제비집 요리를 했지만 맛이 너무 없어서 제비집이 가짜라고 생각하

46) 황급히 돌아갔다. ①선원들은 호박과 제비집을 뒤죽으로 옮겨두었다가 저녁 식사 때 탕으로 끓였다. 모두들 들며서 “제비집이 아주 귀하다는 말만 들었지, 아직 먹어보지는 못했는데. 오늘은 제비집 덕분에 호박도 별미겠어. 요 며칠 계속 힘들었으니 맛있는 음식도 먹어줘야지” 하고 말했다. 그러고서는 제비집을 한 국자씩 담은 뒤 먹기 시작했다. 하지만 모두들 금세 이맛살을 찌푸리며 소리쳤다. “정말 이상하네! 이렇게 좋은 음식이 어째서 맛이 하나도 없지?” 그중 몇몇은 혀를 차며 말했다. “이건 틀림없이 당면이야. 이런 게 무슨 제비집이겠어? 우리가 속은거지!” 식사가 끝나자 호박은 하나도 남지 않았지만 제비집은 잔뜩 남았다. 임지양이 속으로 웃으면서 다구공에게 당면 값으로 선원들의 제비집을 사들여달라고 부탁했다. 그러고는 선실로 옮긴 뒤 말했다. “어째 요 며칠 까치가 날 보고 울더라니. 이런 행운이 있으려고 그랬군.” (<경화연>1권, 132쪽)

는 장면이다. 이 일을 알게 된 원외가 다구공과 더불어 싼 값으로 제비집을 사오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하지만 (나)에는 이 부분을 완전히 삭제했다. 원래 제비집 요리는 명나라 때 황제의 전통적인 아침식사로 상당히 고급 요리에 속하는 것이었다. <본초강목>에 따르면 허한 기를 보한다고 기록⁴⁷⁾이 있으며, <홍루몽>에서도 임대옥이 기침이 심해지자, 보채는 제비집을 먹으면 약보다 훨씬 나은 거다고 묘사하는 장면⁴⁸⁾도 있다. 그러나 <동의보감>⁴⁹⁾에서는 제비집에 대한 언급이 없다. 다만 제비똥, 제비고기, 제비알에 관련된 효능만 언급될 뿐이다. <동의보감>중 제비와 관련된 탕액편은 <본초강목>을 기초로 하여 만든 것인데, 이 책에는 제비집만 빠져있다. 이는 조선에서는 제비집과 관련된 음식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중국의 제비는 ‘금사연(金絲燕)’으로 금빛제비라고도 한다. 금사연은 주로 해안의 바위틈이나 동굴 벽에 침을 바른 뒤 작은 물고기나 바닷말을 붙여 동지를 만드는데, 이 동지가 바로 식용으로 쓰이는 ‘연와(燕窩)’이다. 하지만 금사연은 중국의 남쪽 지역에서만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새인 것이다. 따라서 홍희복 또한 제비집에 관련된 서술이 낯설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이는 결국 중국과 조선의 문화 차이로 인해 제비집 에피소드가 삭제되는 양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가) 林之洋業已回來，大家談起貨物之事。⊙原來此地連年商販甚多，各色貨物，無不充足，一切價錢，均不得利。正要開船，吳氏弟差人家拿著名帖，送了許多點心、果品，⊙并賞眾水手倭瓜十擔、燕窩十擔。名帖寫著：“同學

47) 閩之遠海丘近番處，有燕名金絲者。°首尾似燕而甚小，毛入金絲。°臨卵育子時群飛進汐砂泥有石處，啄蠶螺食。°有詢海商，聞之士番雲，蠶螺背上肉有兩肋如楓蠶絲，堅潔而白，食之可補虛損，已勞病。°故此燕食之，肉化而肋不化，并津液嘔出，結為小窩附石上。°久之，與小雛鼓翼而飛，海人依時拾之，故曰燕窩。°(이시진, 『본초강목』 9편, 짐승편 수록)

48) 曹雪芹, 안의운·김광렬 역, 『홍루몽』 5권, 청계출판사, 2007, 124~125쪽.

49) 호연란(胡燕卵)은 수종과 부종을 치료하고, 호연육(胡燕肉)은 치질에 붙이면 벌레가 나온다고 하였으며, 월연시(胡燕屎)는 치질을 낫게 하고 벌레를 죽이며 눈병도 치료한다고 하였다. (허준, 『동의보감』, 들녘, 1999, 819~820쪽.)

教弟吳之和、吳之祥頓首拜。”唐敖同多九公商量把禮收了，因吳氏弟兄位尊，回帖上寫的是：“天朝後學教弟多某、唐某頓首再拜。”來人剛去，吳之和隨即來拜。讓至船上，見禮讓坐。⁵⁰⁾ (<경화연> 1권, 80쪽)

(나) 님원의 쏘흔 니르러 서로 지는 바 문건을 전히더니 (㉠ 삭제) 오가복 뷔 니르러 명첩을 드리고 미주가효와 허다 과품을 보너여 칭사하얏거 놀 (㉡ 삭제) 이인이 쏘흔 명첩으로 답네히더니 오지해 과연 니르러 선상의 서로 네필좌정히미 (<제일기언>, 121쪽)

위의 예문은 당생 일행이 군자국에서 오씨 형제의 집에 방문한 후 오씨 형제와 서로 선물을 교환하며 인사를 나누는 장면이다. (가)의 ㉠에서는 군자국이 물품이 풍족해 이문을 남길 수 없었다고 말하는 장면이고 ㉡은 오씨 형제가 선물을 보내는 장면이다. 그러나 (나)에서는 이러한 장면들이 모두 삭제되어 있다. 먼저 ㉠이 삭제된 이유는 돈에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돈과 관련된 이야기가 금기시 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화를 형성할 수 있지만 조선에서는 남성이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금기시되어 있다. 왜냐하면 조선에서는 남성이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거나 장사를 하는 행동 등은 군자로써의 행동이 아니라 상스러운 천민의 행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흥희복은 이러한 가치관이 발현되어 ㉠ 부분을 삭제한 것으로 추측된다. 다음으로 ㉡이 삭제된 이유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사치와 제비집에 관련된 에피소드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중국식 ‘유머’ 와 관련된 삭제이다.

50) 벌써 돌아와 있던 임지양이, ㉠군자국은 상인들이 끊이질 않아 물품이 풍족해 이문을 남길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배가 출발하려고 할 때 오씨 형제 집에서 서찰과 함께 간식거리와 과일, ㉡선원들을 위해 호박 열 집과 제비집 열 집을 보내왔다. 서찰에는 ‘동학 오지화와 오지상이 삼가 인사를 드립니다.’ 라고 쓰여 있었다. 당오는 다구공과 의논해 선물을 받은 뒤 (<경화연>1권, 123쪽)

(가) 登時都至崇林。迎面有株大樹，長有五丈，大有五圍。上而并無枝節，惟有無數稻須，如禾穗一般，每穗一個，約長丈余。。。這米若煮成飯，豈不有一尺長麼。。。老夫向在海外，曾吃一個大米，足足飽了一年。。。那米寬五寸，長一尺。煮出飯來，雖無兩丈，吃過後滿口清香，精神陡長，一年摠不思食。。。才知當日所食大約就是清腸稻了。㉠林之洋道：“怪不得今人射鵠，每每所發的箭離那鵠子還有一二尺遠，他卻大為可惜，只說‘差得一米’，俺聽了著實疑惑，以為世上那有那樣大米。今聽九公這話，才知他說‘差得一米’，卻是煮熟的清腸稻！”唐敖笑道：“‘煮熟’二字，未免過刻。舅兄此話被好射歪箭的聽見，只怕把嘴還要打歪哩！”忽見遠遠有一小人，騎著一匹小馬，約長七八寸，在那裡走路。51) (<경화연> 1권, 49~50쪽)

(나) 일제히 높아가니 슈목이 총잡흔 그온디 혼 남기 높희 다섯 길은 호고 굽기 다섯 아람 되논디 우흐로 가지와 막디 업고 다만 벼 이삭 마치 드리온 벼 무슈흔니 그 이삭 하나히 기리 쏘 십척이느 되거늘... 이 쌀노 밥을 지으면 맛당이 혼 즈 기리는 되리로다... 노뷔 일즉 해외의 셔 혼 낫 대미를 먹으미 죽히 일년을 비부르더니라... “그 쌀이 과연 기리는 혼 즈히나 되고 낚기 세 치나 하니 밥을 지어논디 비록 두 길은 아니되나 먹으미 몹은 향기 님의 그즉호고 정신이 식식하야 일년

51) 세 사람이 숲으로 들어가자 높이가 다섯 길쯤 되고 굽기는 다섯 아람쯤 되는 거대한 나무가 보였다. 그런데 위로 가지가 솟은 대신 벼 이삭처럼 무수한 까끄라기가 늘어져 있고 이삭 한 알의 까끄라기가 한 길도 넘었다. ... 이 쌀로 밥을 하면 길이가 한 자는 되겠습니다. ... 이 늙은이가 해외에서 먹어본 적이 있는데 1년 내내 배가 꺼지지 않았답니다. ... 그 쌀은 두께가 다섯 치, 길이가 한 자였습니다. 밥을 지었을 때 두 길까지는 되지 않았지만 먹고 난 뒤에 입 안 가득 맑은 향이 퍼지고 정신이 또렷해지더니 1년 동안 식욕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 그제야 제가 청장도를 먹었다는 걸 알 수 있었지요. ㉠ “사람들이 활을 쏘 뒤에 화살이 과녁에서 두세 자나 벗어났는데도 ‘쌀 한 톨 차이’라고 아쉬워하는 게 그래서였군요. 구공의 말씀을 듣고서야 그 사람들이 말하는 쌀 한 톨이란 청장도로 지은 밥알을 의미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임지양이 농담하자 당오가 웃으며 말을 받았다. “청장도 밥알이라니, 좀 심하게 비꼬신 것 아닌가요? 그 사람들이 들으면 화살만 비뚤게 쏘는 게 아니라 처남 입까지 비뚤어놓겠습니다.” 그때 멀리서 일고여덟 치밖에 되지 않는 조그마한 사람이 작은 말을 타고 달려가는 게 보였다. (<경화연> 1권, 86~88쪽)

이 되도록 마춤너 음식 싱각이 업스니... 당일 노부의 먹은 비 비로소 청장 되물 씨다를너이다.” (㉠ 삭제) 홀연 바라보니 지극히 저근 사름이 마장 저근 물을 툽고 산비탈노 지나니 사름과 말이 기력 합ㅎ야 칠팔 촌이 못 되는지라.<제일기언>, 86쪽)

위의 예문은 당쟁 일행이 동구산에 이르렀을 때 목화로 보이는 커다란 나무를 발견하고 ‘청장도(淸腸稻)’라는 쌀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면이다. (가)에서 대구공이 이 쌀을 먹으면 일 년 동안 배가 고프지 않다고 이야기 하자, 원외가 이를 듣고 화살이 과녁에서 두세 자나 벗어났는데도 ‘쌀 한 톨’ 차이라고 아쉬워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 쌀 한 톨이 청장도를 가리키는 것이었다며 농담을 하고 있다. 반면에 (나)에는 ㉠을 삭제하고 있다. 이는 청장도로 밥을 하면 길이가 한 자나 되므로 화살이 과녁을 많이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쌀 한 톨 차이라고 원외가 말장난을 한 것이다. 하지만 홍희복은 이러한 말장난을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중국어에서 나타나는 언어유희적 특성을 그대로 살려 표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추측된다. 혹은 홍희복이 이어진이 사용한 유머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할 수 없어서 삭제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어진이 사용한 유머의 의도를 그대로 살릴 수 없었기 때문에 역자는 이와 관련된 부분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앞에서 언급 유머와 유사한 것으로 ‘권’을 ‘화살’로 표기한 지문이다.

(가) 登時訪到盤古存案處，見了掌管官吏，說明來意。那官吏聞是天朝上邦來的，怎敢怠慢，當即請進獻茶，取鑰匙開了鐵廚。㉠唐敖伸手取了一本，面上簽子寫著‘第一弓’。林之洋道：“原來盤古舊案都是論弓的。”那官吏廳了，不覺笑了一笑。唐敖忙遮飾道：“原來舅兄今日未戴眼鏡，未將此字看明。這是‘卷’字，並非‘弓’字。用手展開，只見上面圈圈點點，盡是古篆，並無一字可識。”⁵²⁾<경화언> 1권, 105쪽)

52) 세 사람은 반고 때 문서가 남아 있다는 곳으로 가서 관원에게 찾아온 이유를 설명하였

(나) 반고묘를 좇아 이르러 슈직헌 관원을 보고 온 뜻을 말한 뒤 관원이 천조 사림인 줄 드르미 황망이 영접하야 차를 드리고 한훤을 파흔 후 잇그러 전상의 올늬 두로 관광하고 열쇠를 가져 철농을 열며 ㉠ 삭제 다만 골희와 골고리 모양을 무슈히 글일 분이니 혼 즈도 알 길 업는 지라.<제일기언>, 152쪽)

위 예문은 당생 일행이 비건국(毗羆國)에 이르렀을 때 반고 때 남은 기록을 보는 장면이다. (가)에서는 제일권의 ‘권(弓)’을 ‘궁(弓)’으로 원외가 잘못 읽어 제일권을 제일화살로 해석하여 반고 때 기록은 모두 활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며 옷자 옆에 있던 사람이 이를 듣고 원외가 글자를 잘못 읽었음을 지적하는 내용이다. 그러자 당생이 원외를 대신하여 당생이 안경을 쓰지 않아서 잘못 본 것이라고 변명해 주고 있다. 이는 ‘권’자와 ‘궁’자가 유사한 형태의 글자이기 때문에 이를 잘못 읽음으로써 언어유희를 통한 유머를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나)에는 ㉠의 잘못 읽은 부분을 삭제하고 있다. 弓의 발음이 ‘호’인데 중국 <강희자전>에 따르면 춘추시대 책인 <도경>에서 ‘권(卷)’자를 최초로 ‘호(弓)’를 표기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弓’는 거의 <경화연>에서만 발견되는 글자로 ‘弓’자 대신 ‘ㄹ’자로 많이 표기된다. 한국에서도 ‘ㄹ’자만 있을 뿐 ‘弓’자는 찾을 수 없다. 중국에서도 잘 쓰이지 않는 글자이기 때문에 흥희복도 이를 활용할 수가 없어서 이런 내용을 모두 삭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가) 海外女子這等淘氣，將來到了女兒國，他們成群打伙，聚在一處，更不知怎

다. 관원은 천조에서 왔다는 말에 공손히 맞으며 차를 내오고 철문을 열어주었다. ㉠ 당오가 한 권을 꺼내자 겉자에 ‘제일권’라고 쓰여 있었다. 그걸 본 임지양이 “반고 때 기록은 모두 활에 대한 이야기로군요.” 하자 관원이 웃었다. 이에 당오가 얼른 무마시키고자 “처남이 오늘 안경을 쓰진 않아서 글자가 잘 안 보이시군요. 이권 권자이지, 궁자가 아닙니다.” 하고 말했다. 그리고 책을 펼쳐보니 온통 동그랗고 방점이 찍힌 고문들 뿐이어서 전혀 읽을 수가 없었다. (<경화연> 1권, 167~168쪽)

樣利害。㉠好在俺從來不會談文，他要同俺論文，俺有絕好注意，只得南方話一句，一概給他‘弗得知’。任他說得天花亂墜，俺總是弗得知，他又其奈俺何！多九公笑道。⁵³⁾ (<경화연> 1권, 134쪽)

(나) 저 두 닛 녀즈의게 이그치 치욕을 보니 만일 녀아국의 니르러 씨지어 꾸지르면 냥형이 장춧 엇지헝리요. **(㉠ 삭제)** 구공이 크게 씨다라 왈 (<제일기연>, 181쪽)

위 예문은 당생과 다구공이 흑치국(黑齒國)의 다학다식한 여자들과의 대화에서 밀려 욕을 먹었다는 사실을 안 원외가 만약 자신이 거기에 있었다면 남방 사투리를 쓰며 모르쇠로 일관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다. 이때 남방 사투리가 유머로써 작용하는데, 중국에서 남방 사투리는 그 억양 때문에 중국사람들이 재미있게 말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말투이다. 그렇다고 해서 남방 사투리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억양의 특이성 때문에 현재도 유머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나)에서는 남방 사투리의 특색을 살리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요즘 중국에서는 이런 사투리를 개그맨들이 소재로 사용하고 있는데, 반응이 폭발적이다. 중국에서는 남방 사투리나 북방 사투리를 농담의 소재로 자주 사용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중국 중앙TV(CCTV)에서 제작 방영하는 ‘춘완春晚’ 이 프로그램에서는 1989년에 사투리를 사용한 개그 코너를 제작한 뒤로부터 지금까지도 설날이면 빠짐없이 방영되고 있다. 이때 다양한 사투리를 사용하여 개그를 짜는데 특히 남방 사투리를 사용한 개그가 가장 인기가 많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사욱혜⁵⁴⁾는 중국 사람들이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 오로지

53) 해외 여자들이 이처럼 당돌하니 여아국에서 떼를 지어 모여들기라도 하면 정말 무섭겠군요. **㉠다행히 전 글을 모르지요. 또 기어코 논하자고 해도 묘책이 있답니다. 남방 사투리로 모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아무리 청산유수라고 해도 제가 모르쇠로 일관하면 어찌하겠습니까?** 그러자 다구공이 웃으며 물었다. (<경화연>1권, 210쪽)

54) 謝旭慧, 「喜劇小品語言幽默藝術研究」, 華中師範大學 漢語言文字學 碩士, 2006. 189쪽.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한 행위라고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중국식 유머는 조선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조선에서는 중국의 남방 사투리와 표준 중국어의 차이를 쉽게 판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홍희복 <경화연>을 한글로 번역할 때 이러한 문화적 차이를 인식하여 삭제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음운학’ 과 관련된 삭제이다. <제일기언>에서는 음운학과 관련된 부분을 대부분 빠진다.

(가) 你們今日被黑女難住，走也走不出，若非俺去相救，怎出他們？這樣大情，二位怎樣報俺？...將來到了女兒國，俺去通知國王，就請九公住他國中。多九公笑道...①唐敖道：“豈但管舵，小弟還要求教韻學哩。請問九公，小弟素於反切雖是門外漢，但‘大老’二字，按音韻呼去，為何不是‘島’字？”多九公道：“古來韻書‘道’字本與‘島’字同音。進來讀‘道’為‘到’，以上聲讀作去聲。即如是非之‘是’古人讀作‘使’字，‘動’字讀作‘董’字，此類甚多，不能枚舉。大約古聲重，讀‘島’；今聲輕，讀‘到’。這是音隨世傳，輕重不同，所以如此。”林之洋道：“那個‘盲’字，俺們向來讀與‘忙’字同音，今九公讀作‘萌’字，也是輕重不同麼？”多九公道：“‘盲’字本歸八庚，其音同‘萌’。若讀‘忙’字，是林兄自己讀錯了。”林之洋道：“若說讀錯，是俺先生教的，與俺何干！”多九公道：“你們先生如此疏忽，就該打他手心。”林之洋道：“先生犯了這樣小錯，就要打手心，那終日曠功誤人子弟的，豈不都要打殺麼？”唐敖道：“今日受了此女恥笑，將來務要學會韻學，才能歇心。好在九公已得此中三昧，何不略將大概指教？”⁵⁵⁾

55) “오늘 흑녀들한테 붙잡혀 오도 가도 못하다가 제 덕분에 빠져나오셨지요. 자, 그 은혜를 어떻게 갚으실 건가요?” ... “여아국에 가면 구공을 붙잡으라고 국왕께 고해야겠습니다.” 임지양이 말하자 다구공이 웃으며 물었다. ① “어찌 조타수일 뿐이겠습니까, 저는 음운을 배워야 하는데요. 구공, 제가 반절에 대해 잘 모르지만 ‘대로’를 음운에 따라 읽으면 ‘도’가 아납니까?” “옛날 음운서에 따르면 ‘도’는 ‘도’와 동음이었는데 최근에는 ‘도’와 같은 음으로 읽습니다. 상성을 거성으로 읽게 된 것이지요. 가령 옛날에는 시비의 ‘시’를 ‘사’로 읽고 ‘둥’을 ‘동’과 같은 음으로 읽었던 것처럼요. 이런 예는 수도 없이 많습시다. ‘도’의 경우 옛날에는 무거웠던 소리가 지금은 가

(<경화연>1권, 134~135쪽)

(나) 낭형이 이번 곤경을 당한 썩 나의 구혹미 아니러면 거의 도라오지 못
혹려든 나의 공을 모르고 도로혀 비쇼혹노뇨?... 너 만일 너오국의 가거
든 부덕 국왕을 보고 청혹야 구공을 잡아두고 글말혹라 혹리라. (㉠ **삭
제**) 이번 혹녀의게 곤경을 당한 후는 맛당이 운학을 비화 장너 두 번
욕을 면혹리니 구공이 운학이 고명하시다 혹되 즈시 비호지 못혹가
의심혹노이다. (<제일기연>, 182~183쪽)

위 예문은 당생 등이 서로 반절에 대해 담론하는 장면이다. 앞서 당생 등은
혹치국의 여성들과 대화를 나누던 도중에 대화에서 밀리면서 여자들에게 반절
로 욕을 먹게 된다. ‘반절’이란 ‘A=B+C’ 인데 반절 표기 ‘B’ 와 ‘C’ 로 분리하여
표기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小’ 를 반절 표기한다면 ‘흄’ 과 ‘읏’ 으로 분리하
여 발음만 표기하는 방식으로 두 글자를 합치면 ‘小’ 의 발음이 된다. 훈민정음
에서도 반절로 표기하기도 하였는데 훈민정음이 초성, 중성, 종성을 합하여
한 글자를 이루게 되는 사실과 관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홍희복은 이
러한 반절과 관련된 설명은 그대로 번역하고 있다.⁵⁶⁾ ㉠에 해당하는 음운학

벼워진 것이겠쥬. 시간이 흐르면서 소리의 경중이 달라진 것입니다.” 다구공이 대답했
다. “그럼 우리는 ‘맹’ 을 ‘망’ 과 같은 음으로 읽는데 구공은 ‘맹’ 으로 읽는 것
도 경중이 다르기 때문입니까?” 임지양 묻자 다구공이 대답했다. “ ‘맹’ 은 원래 팔
경에 속하기 때문에 ‘맹’ 과 동음입니다. ‘망’ 으로 읽는다면 입형이 틀린 것이지
요.” “제가 틀리게 읽는다면 그건 제 스승님 잘못이지. 제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
게 대충대충인 선생이라니 손바닥을 때려줘야겠습니다.” 다구공이 말하자 임지양이 대
꾸했다. “그 정도의 잘못으로 손바닥을 때리면 하루 종일 수업하지 않는 스승은 치도
곤을 놓아야 되겠군요?” 그때 당오가 말했다. “오늘 비웃음을 받고 나니 음운학을 꼭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침 구공께서 정통하시니 대략적으로라도 가르쳐주시지
요. (<경화연>1권, 211~212쪽)

56) 唐兄，我們被這女子罵了！按反切而論：‘吳郡’是個‘問’字，‘大老’是個‘道’字，
‘倚闔’是個‘於’字，‘滿盈’是個‘盲’字。他因請教反切，我們都回不知，所以他說：
‘豈非“問道於盲”麼！’ (<경화연>, 89쪽)
당형, 확실히 욕을 먹은 겁니다. 반절에 따라 생각해보세요. ‘운곤’ 을 합하면 ‘문’ 이고 ‘대
로’ 를 합하면 ‘도’ 며 ‘의려’ 는 ‘어’ ‘만영’ 은 ‘맹’ 이 아닙니까? 반절을 알려달라고 하는데 모른다고
하나가 ‘어찌 맹인에게 길을 묻는가?’ 라고 말한 것이지요. (<경화연>1권, 210쪽)

이론은 삭제하고 있다. (가)는 발음과 관련된 것으로 당생이 고대와 현대의 글자 발음이 왜 다른지에 대해서 다구공과 원외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이때 두 사람은 각자 생각하는 바를 이야기하는데 이는 한자의 발음과 관련된 것으로 풀이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절의 경우 훈민정음이 유사한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번역이 가능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으나 실제 한자 발음을 번역하여 표기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랐을 것이다. 따라서 (나)에서는 이러한 장면이 삭제되었다. <경화연>의 작가인 이여진은 음운학에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이씨음감>이라는 음운학 책을 낼 정도로 음운학에 대한 지식이 박식했다. 따라서 <경화연>에서도 적지 않는 장면에서 이러한 음운학과 관련된 내용들이 수시로 담겨 있지만 홍희복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설명들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혹은 설명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어서 필요에 따라 삭제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 장면은 중국의 음운학적인 특성이 반영된 담론이기 때문에 홍희복이 번역할 때 더더욱 어려움을 느껴 삭제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제일기언> 번역 삭제를 살펴보니 이러한 요인이 있었다. 삭제의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역자가 작품의 전개상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삭제한 것이고, 둘째는 두 나라의 문화적 차이에서 발생한 삭제이다. 특히 문화적 차이에서 발생한 삭제는 중국과 한국이 비록 같은 유교문화권에 속하지만 각 나라의 문화, 개성 및 민족적 특성은 각기 다르기 때문에 번역 작업을 진행할 때 삭제하는 부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2. 변이

변이는 원전의 내용을 그대로 번역하지 않고 작가의 의도에 따라 변형된 형태로 서술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변이는 완전히 삭제되거나 내용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첨가되는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원문 내용을 유지하되 원문과 다른 표현으로 흥희복이 변화시킨 부분을 의미한다. 변이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특정내용에 대해 거부감이 생겼거나 혹은 조선의 문화와 맞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자가 변이시킨 것이다. 이러한 관찰을 위해서 먼저 <제일기언>에서 변이된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해보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소설 구성 요소, 문화적 요소 그리고 작가 인식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를 다시 인물과 관련된 변이와 장면과 관련된 변이로 나누어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1) 소설 구성요소

소설 구성 요소는 앞에 언급한 것처럼 소설 3요소인 인물, 사건, 배경을 바탕으로 한다. 이때 중국과 조선의 소설 서술방식은 서로 다른 양상이 많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부분적인 변이가 나타날 수 있다. 특히 <경화연>에서 백과사전식으로 나열하는 경우나 대화형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서술방식을 조선식으로 의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변이가 많다. 이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변이시켰다기보다는 소설 서술방식의 차이로 인한 결과일 뿐이다.

- (가) 話說唐敖聽鄰船婦女哭的甚覺慘切，即命水手打聽，原來也是家鄉貨船，因在大洋遭風，船隻打壞，所以啼哭。唐敖道：“既是本國船隻，同我們卻是鄉親，所謂‘兔死狐悲’。⁵⁷⁾ (<경화연> 1권, 181쪽)

(나) ㉠당심 원외로 청하야 왈, ‘저 퍽 모양이 분명 우리 천조 사름의 퍽요
 저길치 낭퍽하야 인명이 위급하니 니른바 타향봉고인ियो 토스호비라.’
 (<제일기연>, 253쪽)

위의 예문은 당생이 난파당한 배로 인해 울고 있는 여자에 대한 반응을 묘사한 장면이다. (가)는 당생이 여자가 우는 소리를 듣고 사공을 시켜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는 장면인데, (나)에서는 당생이 스스로 판단하여 알게 된 것으로 처리하고 있다. 또한 (가)에서는 ‘既是本國船隻, 同我們卻是鄉親’ 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이렇게 보니 본국의 배이고 같은 고향 사람이라는 뜻이다. 이때 여자를 ‘향친’ 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나)에서는 ‘향친’ 대신 ‘타향봉고인(他鄉逢故人)’ 으로 변이시켰다. 이는 고향사람이라는 표현을 타향에서 고향사람을 만났다는 표현으로 좀더 당생의 입장에서 서술한 표현방식이다.

(가) 蔣麗輝道：“我們一連看了八輪，我一牌未成，這不是討罪受麼！並且每牌總是一張老千，從未起過空堂，牌牌總要打九索。至於破槲破群，更不必說了。尤其可恨的，那破槲破群再不教你成個二報三報，他總是一張八餅。一張二索，或是一張七餅。一張三萬，教你八下不成副。及至巴到十成，不是人家糊了，就是上家攔成。58) (<경화연> 2권, 549쪽)

(나) 요취 왈, ‘그 스이 여덱 판을 보되 나는 막춤니 혼 퍽을 날우지 못

57) ㉠옆 배에서 들려오는 여인의 구슬픈 울음소리에 당오가 자초지종을 알아 오라고 선원을 보냈다. 알고 보니 천조의 화물선으로 풍랑에 난파를 당해 울고 있었다. ‘같은 나라 사람이라서 그런지, 남 일 같지 않습니다.’ (<경화연> 1권, 277쪽)

58) 장여취가 말했다. ‘여덱 번을 치도록 한 번도 패를 만들지 못했으니 무슨 흥이 나겠어요? ㉠ 패가 순 엉터리라서 공당은 들어본 적도 없고 매번 구삭을 쳐야 하니. 방자나 군자에서 병이 부족한 건 다반사고, 제일 싫은 건 방자가 군자를 못 만들 것 같으면 이 보나 삼보라도 만들 수 있게 들어올 것이지. 꼭 팔병과 이색 아니면 칠병과 삼만이 오는 거예요. 대체 어찌라는 건지. 그러다 겨우 만들었나 싶으면 다른 사람이 끝내거나 앞에서 순서가 바뀌고. (<경화연> 2권, 217쪽)

하니 무슨 재미 느끼요? 미양 꺾를 쓰면 ㉠여츠여츠하니.<제일기
언>, 686쪽)

위의 예문은 장여취가 십호(十湖)라는 게임에 운이 안 좋아 지게 되었다는 불평을 쏟아내는 장면이다. 이때 (가)에서는 십호라는 게임에 나오는 용어를 설명하는 장면이 장황하게 나타나는데, (나)에서는 이를 간략하게 ‘여차여차’로 정리해 버렸다. 이는 십호라는 게임이 중국 전통 게임이기 때문에 조선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역자가 변이 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약 이 장면을 아예 삭제해 버린다면 서사가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간략하게 요약하는 형태로 변이시킨 것으로 보인다.

(가) 妹子今將地盤寫一樣式，再細細註解，自然易於領略。㉠隨命丫環設個小
幾，擺下筆硯，登時寫畢。(중략)只須記熟就能領會了。59) <경화연> 2
권, 557~558쪽)

(나) 미지 이에 지반 법식을 써서 보시게 흐리라. ㉠여츠여츠흐면 곳 지반
이니이다. <제일기언>, 694쪽)

위의 예문은 운지가 재방에게 점치는 방법인 지반을 가르치는 장면이다. (가)는 운지가 재방에게 지반을 가르치는 장면이다. 번역본을 기준으로 봐도 227~228쪽까지 2쪽에 걸칠 만큼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다. <경화연>에서는 이러한 장황한 설명이 대화체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나)에서는 이를 ‘여츠여츠흐면’이라는 한마디로 압축해 버렸다. 지반을 가르치는 장면은 내용상 반드시 필요한 서술이 아니기 때문에 장황한 백과사전식 나열을 변이시켜

59) 제가 지반 양식을 하나 쓰고 자세히 설명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는 하녀에게 소반과 지필묵을 준비하라고 한 뒤 쓰기 시작했다 (중략) 이걸 확실히 숙지해야만 천지반을 터득할 수 있고요. <경화연> 2권, 227~228쪽)

번역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완벽하게 장면을 삭제시키지 않은 것은 이후 내용에서 지반이라는 내용이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2) 문화적 요소

중국과 조선은 그 문화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원전의 내용을 그대로 번역하기에는 무리는 경우가 생긴다. 특히 문화적인 요소가 개입되는 상황에서는 역자가 원문을 변이시켜 표현하였다.

(가) 掌紅珠道：“若花姐姐這話並非無稽之談。妹妹不妨去查，無論古今正史、野史，以及說部之類，如能指出姐妹百人相聚的，愚姐情願就㉠在對面戲臺罰戲三本。” 紫芝道：“我不信。我要查不出也㉡罰三本。” 眾人道：“好了，無論那位輸贏，我們總㉢有戲看了！”⁶⁰⁾ (<경화연> 2권, 525쪽)

(나) 가염홍 왈, ‘약화 져저에 이 말씀이 엇지 무심이 발흐신 비리요? 므기 만일 녀대 스기와 야스와 쇼셜에 뉴를 상고하야 능히 우리길치 빅인이 모힌 스적을 어더너면 우형이 원컨디 ㉠벌쥬 삼빅틀 스양치 아니리라.’ 벽지 왈, ‘나는 밋지 아닛느니 너 만일 어더너지 못흐면 쏘흐 ㉡벌쥬 삼빅틀 먹으리이다.’ 중인이 모다 조트 하니 (<제일기연>, 659쪽)

위의 예문은 장홍주와 홍지가 내기를 하는 장면이다. (가)에서 장홍주와 홍지는 서로 자기가 한 말이 틀리면 연극을 상연하겠다고 호언장담한다. 그러나 (나)에서는 연극을 ‘벌쥬 삼배’로 변이시켰다. (가)에서 누가 틀리든 연극을

60) 장홍주가 말했다. ‘약화언니의 말은 황당무계한 말이 아니에요. 홍지 동생이 직접 고금의 정사와 야사, 소설 등을 살펴보세요. 자매들 백명이 모였다는 걸 찾으면 제가 ㉠저기 맞은편 무대에서 연극 세 편을 상연하겠어요.’ ‘진 못 믿어요. 찾아내지 못하면 제가 ㉡연극 세 편을 상연하지요.’ 홍지의 말에 모두들 환호했다. (<경화연>2권, 185쪽)

볼 수 있다고 했지만, (나)에서는 이 장면을 삭제시켰다.

중국에서는 잔치를 베풀 때 항상 희자(戲子)를 불러 연극도 같이 상연하는 관습이 있다. 이런 관습은 중국 고대소설에서도 엿볼 수 있다. <홍루몽>에서도 잔치를 베풀 때마다 유명한 희극단을 불러 연극을 할 뿐만 아니라 가씨 집안에서는 아예 희자를 사서 집안에 두고 공연을 관람하기도 하였다.⁶¹⁾ 따라서 중국 사람들에게 연극은 너무도 익숙한 공연이기 때문에 <경화연>에서 연극 공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자연스럽다. 또한 중국에서는 여자들이 책을 읽기보다는 연극공연 보는 것을 더 즐겨하였다. 이는 <홍루몽>에서 임대옥이 희극인 <서상기>의 대사를 가지고 시를 짓는 장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임대옥은 시를 지을 때 <서상기>의 대사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외우고 있었고 이를 시에 인용한 것이다. 이는 그만큼 중국에서 연극이 인기가 많았음을 증명한다. 반면에 조선에서는 잔치를 베풀 때 연극 공연을 하기보다는 무희들의 춤을 감상하거나 기생들의 연주를 들으면서 술을 마시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이때 별주를 마시는 게임을 즐겨했는데 이는 신라시대 포석정이나 주령구 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포석정은 물길에 따라 술잔을 물 위에 띄우고 시를 읊거나 노래를 부르는 식으로 유흥을 즐겼던 곳이다. 또한 주령구는 14면 주사위로 여러 가지 별칙이 적혀있는 주사위이다. 이를 굴려서 나온 별칙에 따라서 별주를 마시는 등의 형태로 유흥을 즐겼다. 그 별칙의 예를 보면 3면에 ‘스스로 노래 부르고 스스로 마시기’ 등이 있다.⁶²⁾ 따라서 홍희복은 <경화연>에서 연극공연을 하던 장면을 별주 형태로 변이시킴으로써 조선의 문화에 걸맞는 형식으로 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1) 曹雪芹, 안의운·김광렬 역, 『홍루몽』 2권, 청계출판사, 2007, 185쪽.

62) 김정숙, 「14면 주사위를 통해서 본 신라 귀족의 놀이문화」, 『신라문화』 35,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10, 70쪽.

(가) 唐敖這一夜更不會閤眼。次日清晨起來，多九公道：“唐兄，你看，不知不覺又是一天了。據老夫看來，若像這樣，只怕我們吃了喜蛋才能回去哩。”唐敖道：“此話怎講？”多九公道：“林兄同國王成親，今已兩日。再過幾日，倘恭喜懷了身孕，你是國王的妻妹壻，這樣好親戚，豈不要送喜蛋嗎？”⁶³⁾ (<경화연> 2권, 250쪽)

(나) 줌을 날우지 못하고 제이일 청신의 니러 구공 왈, ‘당형아 쏘 흐로밤을 지나시니 우리 다만 ㉠희주를 어더먹고 당형이 쏘흔 이곳의 좁혀 벼슬홀 듯흐니 노뷔 장춧 홀노 도라가리로다.’ 당싱 왈, ‘그 것진 말씀이니잇고?’ 구공 왈, ‘님형이 국왕으로 더부러 성친흔 지 임의 냥일이니 쏘 몇출이면 응당 회태홀 거시니 반드시 ㉠희주를 먹일 거시오 국왕이 님형을 총이흐면 그 밍부를 쏘흔 귀히 녀여 척니로 것히 두고 벼슬을 앗기지 아니리이다.’ (<제일기연>, 353~354쪽)

위의 예문은 원외와 여아국 국왕이 결혼한 후 당생과 다구공이 나누는 대화이다. (가)에서 다구공이 원외가 만약 임신을 하게 된다면 원외에게 ‘희단(喜蛋)’을 얻어 먹겠다고 농담하는 장면이다. 이때 ‘희단’은 신부가 임신했을 때 친척들에게 나눠주는 빨간색 달걀을 가리킨다. 중국에서는 빨간색이 복이 들어오고 화를 물리치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임신했을 때 그러한 의미로 돌리는 것이다. 그런데 (나)에서는 ‘희단’ 대신 ‘희주’로 번역하고 있다. 또한 <경화연>을 현대어로 번역했을 때도 ‘희단’을 답례떡으로 의역하여 서술하고 있다. 이는 조선에서 빨간 계란을 돌리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번역자 정서에 맞는 단어로 대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중국에도 ‘희주’라는 단어가

63) 당오는 밤새 한숨도 눈을 붙일 수가 없었다. 사흘째 새벽, 자리에서 일어난 다구공이 말했다. “당 형, 어영부영 또 하루가 갑니다. 이렇게 간다면 결혼 ㉠답례떡을 먹고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당오가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묻자 다구공이 대답했다. “임 형이 국왕과 혼인한 지 벌써 이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 회임이라도 시키면 당 형은 빼도 박도 못하고 왕비의 매부가 되는 셈입니다. 그러면 국왕과 친척 관계니 ㉠답례떡을 보내오지 않겠습니까?” (<경화연> 1권, 380쪽)

있다. 희주는 신랑과 신부가 결혼할 때 친척들을 초대하여 술을 대접하는 풍습이 있는데, 그래서 중국에서는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은 ‘희주’ 먹으러 간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런데 홍희복이 이러한 희주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다. 조선에서도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술과 음식을 대접하는 풍속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희단보다는 희주가 더 익숙했을 것이다. 또한 조선에도 결혼식에 참석할 때 ‘국수 먹으러 간다’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더욱 희주라는 의미를 사용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제일기연> 변이는 중국과 조선의 문화 차이에 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3) 작가 인식

홍희복은 <경화연>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원전에 나타난 여성관과 다른 의도로 여성과 관련된 호칭이나 묘사를 의도적으로 변이시키기도 한다.

(가) 公主道：“聞得向來你將各花有‘十二師’、‘十二友’、‘十二婢’之稱，不知何意。此時主上正在指撥宮人炮製牡丹，趁此無事，何不將師、友、婢的寓意談談呢？”上官婉兒道：“**㉞這是奴婢偶爾遊戲，倘說的不是，公主莫要發笑。**”⁶⁴⁾ (<경화연> 1권, 23쪽)

(나) 공쥬 왈, ‘그는 희언어녀니와 드르니 각식 꽃치 품쥬 잇서 가히 스승홀지 열두 가지요 가히 벗홀 지 열두 가지요 맛당이 좋 슴을 지 열두 가지라 흐더니 엇지 이르미뇨? 이쥬 황상이 궁녀로 햐야금 모란을 형벌히시므로 우리를 좃지 아니실 거시니 이런 한가흔 틈을 의논함미 죠토

64) “그대는 꽃을 ‘열두 스승’ 과 ‘열두 친구’ ‘열두 시녀’ 로 나눈다고 들었네! 그건 어떤 의미인가? 주상께서 모란을 태우라 지시하시어 마땅히 할 일도 없으니, 이때를 빌려 스승과 친구, 시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게나” 공주가 말했다. “**㉞심심풀이로 즐긴 놀이라** 말씀드릴 만한 것이 못 되오나 고하겠나이다.” 상관완아가 대답했다. (<경화연> 1권, 48쪽)

다.’ 완의 왕, ‘㉠이 불과 호스즈의 유희하는 말이다. 공주의 드르실 비
아니로되(<제일기언>, 53쪽)

위의 예문은 완아가 공주의 질문에 대답하는 장면이다. 이때 상관완아(上官婉兒)라고 불리는 여성은 당나라 때의 실존했던 인물이다. 상관완아의 할아버지는 상관의(上官儀)로 고종황제를 모시던 재상이었다. 그러나 무측천이 고종을 몰아내고 자신이 황제의 자리를 차지하자 고종과 상관의는 무측천을 몰아내기 위한 계획을 세우게 된다. 하지만 결국 발각되어 고종은 유배를 가고 상관의는 사형을 당했다. 이로 인해 상관의의 집안은 몰락하여 전부 사형당하고 상관완아와 그녀의 어머니만 친척집의 도움으로 겨우 살아남았다. 그 후 상관완아의 어머니는 가난을 이기지 못하고 상관완아를 궁녀로 팔아버리게 된다. 궁녀로 들어간 상관완아는 뛰어난 재능을 바탕으로 하여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특히 시에 능했다고 한다.⁶⁵⁾ 상관완아는 궁녀로 들어간 이후 무측천의 사랑을 독차지하나 너무 뛰어난 나머지 무측천의 시기를 받아 결국 사형을 당하게 된다. 이에 중국 사람들은 상관완아를 재녀로 인식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무측천이 언급될 때마다 항상 상관완아를 함께 기억하고 있다. 이러한 실존 인물을 이어진은 작품 속으로 끌어와 여기서도 재능 있는 여성으로 그리고 있다. 이때 이어진은 상관완아를 궁녀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중국에서 궁녀는 노비로 인식되기 때문에 작품 속에서도 노비라고 표현했던 것이다. 이때 <경화연>을 현대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원문에 나타난 ‘這是奴婢偶爾遊戲’ 라는 표현 중 ‘奴婢’ 라는 단어를 제외하여 번역하고 있어 번역본을 보고 연구했던 연구자들은 이를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러한 ‘奴婢’ 라는 단어를 홍희복도 제외하고 있어 그 의도가 주목된다.

65) 仇鹿鳴, 「碑傳與 史傳: 上官婉兒의 生平與 形象」, 『學術月刊』 5, 復旦大學漢唐文獻研究室, 2014, 161쪽.

홍희복은 (나)에서 노비 대신 ‘호사자’로 변이시켜 표현하고 있는데 호사자란 일을 벌이기 좋아하거나 또는 남의 일에 특별히 흥미를 가지고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호사자는 노비라는 단어와 전혀 별개의 단어이다. 홍희복 또한 상관완아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며 이어진이 창작했던 시기에 궁녀를 노비로 지칭하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홍희복은 이러한 ‘노비’라는 단어 대신 ‘호사자’라는 단어를 선택했다. 이는 여성에 대한 인식차이로 보인다. 이어진은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소설 속 인물로 형상화했기 때문에 당대 궁녀에 대한 표현을 그대로 가져와 사용했으나 홍희복은 여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적인 표현은 삭제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조선에서는 궁녀를 노비로 인식하는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적인 영향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히려 조선에서는 궁녀가 무수리라는 노비를 부리는 직업여성으로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노비라는 표현은 사용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홍희복 스스로가 여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적인 표현을 걸러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가) 卞濱有兩個妹子，一個嫁與原任禦史臺大夫孟謀為妻，一個嫁的就是禮部侍郎孟謨。那孟謀是孟謨的胞兄，早經亡故，存下四個女兒：長名孟蘭芝，次孟華芝，三孟芳芝，四孟蕓芝。孟謨也有四個女兒，就從孟蕓芝排行：五叫孟瓊芝，六叫瑤芝，七孟紫芝，八孟玉芝。個個都是飽讀詩書，嬌豔異常。⁶⁶⁾ (<경화연> 2권, 470쪽)

(나) 변빈이 일즉 두 누의 잇스니 허나흔 전임 어스태후 딩람 체 되고 허나

66) 변빈에게는 여동생이 둘 있는데 어사대대부 맹무, 예부시랑 맹모와 각각 결혼했다. 맹무는 맹모의 형으로 슬하에 맹난지, 맹화지, 맹방지, 맹운지, 네 딸을 둔 채 일찍이 세상을 떠났다. 맹모 역시 네 딸을 두었는데 운지의 향렬을 이어 맹경지, 맹요지, **맹홍지**, 맹옥지라 했다. 여덟 명 모두 박학다식하고 아름다웠다. (<경화연> 2권, 109쪽)

흔 니부시랑 땡모의 체 되니 땡람은 곳 땡모의 친형이라 일즉 거세하고
다만 네 낮 녀익 잇스니 맛즌 골은 땡난지요 돌지는 땡화지요 셋지는
땡방지요 넷지는 땡운지요 땡피 쏘흔 네 낮 녀익 잇스니 이에 운지에
향녘을 쏘와 다섯지는 땡경지요 여섯지는 땡요지요 널곱지는 ㉠땡벽지
요 여덟지는 땡옥지니 개〃히 경셔를 외오고 시부를 음영하며 용모의
아름다움과 횡실에 맛가즈미 세상에 드문지라. (<제일기언>, 591쪽)

위 예문은 변빈의 두 누이를 소개하고 그들의 딸을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다. 그런데 딸들의 이름 중 ‘맹자지’ 만 변이시켜 번역하고 있다. 그런데 현대 번역본인 (가)에서도 ‘맹자지’ 의 이름을 ‘맹홍지’ 로 변이시켜 번역하고 있다. 원래 <경화연>의 모든 판본들은 ‘맹자지’ 라는 이름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현대 번역자가 이를 의도적으로 변이시킨 것이다. 이는 한국 정서상 ‘자지’ 를 발음하기 꺾끄러워하는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자지라는 단어는 한국에서 남성의 음경을 비속하게 이르는 말로 금기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 번역자조차도 이 말을 꺾끄럽게 생각하여 변이시킨 것이다. 홍희복도 이러한 이유로 이름을 ‘맹자지’ 에서 ‘맹벽지’ 로 변이시켜 표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때 ‘벽지’ 라는 이름이 다른 이름들과는 다르게 한자로 표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만약 ‘璧芝’ 로 표기할 경우 구슬이라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다른 자매들의 이름에 모두 구슬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구슬 벽’ 자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 한편으로는 다른 자매들의 한자를 볼 때 모두 ‘王’ 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碧芝’ 로 추측해 볼 수도 있다. 이때 ‘碧’ 은 푸른색을 의미하는데 기존 이름인 ‘紫芝’ 도 보라색을 의미하기 때문에 ‘푸른 벽’ 자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원래 중국에서 ‘紫’ 는 예쁜 색을 의미하는 단어이고 ‘芝’ 는 화려하고 아름답다는 의미의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 지금까지도 ‘紫’ 와 ‘芝’ 라는 단어는 중국에서 여성의 이름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단어들이다. 따라서 ‘紫芝’ 는 여성의 이름으로써는 가장

아름답다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최상의 칭찬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조선에서는 ‘紫芝’라는 단어의 어감이 남성의 성기를 비속하게 이르는 말과 동일하기 때문에 여성의 이름으로는 부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홍희복은 여성의 이름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금기어라고 판단하여 벽지로 변이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제일기연>의 변이 양상을 살펴봤을 때 변이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소설 서술방식의 차이를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중국과 조선의 소설 서술방식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문장에서 부분적인 변이가 나타난다. 둘째는 문화적인 차이를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중국과 조선은 그 문화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원전의 내용을 그대로 번역하기에는 무리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원인으로 저자가 원문을 변이시킨 것이다. 마지막으로 역자의 가치관을 들 수 있다. 즉 역자가 원전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원전 작가의 가치관이나 표현 등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변이 시키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처럼 서로 다른 언어의 작품을 공유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변이는 작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단순 삭제와 다르게 역자의 의도가 개입되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이는 번역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첨가

첨가는 역자가 원전에 없던 내용을 번역 과정에서 추가하는 것이 말한다. <제일기연>에서는 <경화연>에 없던 부분을 첨가한 부분이 적지 않게 나타난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소설 구성 요소, 문화적 요소 그리고 작

가 인식으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1) 소설 구성요소

홍희복은 원전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어진이 간략히 서술한 부분을 조선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추가적으로 설명을 첨가하는 경우가 있다.

(가) 原來此人姓盧，乃本地有名老秀才，為人忠厚，教讀有方。⁶⁷⁾ (<경화연> 1권, 110쪽)

(나) 노옹의 성은 노요 ㉠일흠은 속이니, 본국의 유명훈 노슈지로 위인이 극히 통후하야 글 가르치기의 Nick은지라. (<제일기언>, 158쪽)

위의 예문은 노씨 성을 가진 수재의 배경을 서술하는 장면이다. (가)에서는 늙은 수재의 성만 소개한 반면, (나)에서는 늙은 수재의 성뿐만 아니라 이름까지 서술하고 있다. 이는 소설 구성요소 중 인물에 대한 정보를 추가한 것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등장인물에 좀 더 구체성을 확보함으로써 막연함을 제거하고 현실성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노씨가 비록 주요인물은 아니지만 노속이라는 이름을 부여함으로써 막연한 인물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인물처럼 형상화되어 사건에 보다 구체성을 부여하는 효과를 주었다.

(가) 若花道：“怪不得那道姑說‘只能結的半半之緣’，原來按人分派，每人只能吃得四分之一，恰恰一半之半了。”(㉠ 첨가) 多、林二人即將清腸稻拿到後面，每個切作四段，分在幾鍋煮了。⁶⁸⁾ (<경화연> 2권, 378쪽)

67) 노씨 성의 (㉠ 첨가) 노인은 현지에서 유명한 수재로, 성실하며 잘 가르치기로 이름이 높았다. (<경화연> 1권, 174쪽)

(나) 약화 인호야 도고의 문답하든 보를 일일이 전호야 왈, ‘도고의 니르든 바 반에 반 연분을 미즈리라 말이 과연 혼 낫출 네 사름이 먹으리라 말이로다.’ ㉠구공이 손을 드러 칭상호야 왈, ‘이 도시 당쇼겨의 효심을 하늘이 슬피샤 미양 이 갓흔 신괴흔 날을 당호니 □리도 힘널어 성명을 보전호리로다.’ 인호야 원외를 보여 이 말을 전호니 원외는 오히려 밋지 아녀 왈, ‘이 쏘이 아모리 크다 혼들 쏘반에 반을 먹어 엇지 즘시 비골프물 그치며 호믈며 슈십일을 견디리오?’ 구공이 닝쇼 왈, ‘나중을 보면 즘연 알니라.’ 급급히 후면의 니르러 미기를 네히 논하 밥짓듯 닉혀니니. (<제일기언>, 456쪽)

위의 예문은 약화가 청장도를 얻은 후 도사에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의논하는 장면이다. (가)에서는 약화가 도사와 청장도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의논한 뒤 원외와 다구공이 청장도를 가져가 4등분한 후 밥을 끓이는 장면으로 연결된다. 반면 (나)에서는 약화가 도사와 청장도를 처리하는 방법을 의논한 뒤 ㉠을 첨가하고 있다. 하지만 ㉠은 이미 원문 <경화연>에서 9회에 서술된 내용이다. 따라서 <경화연>에서는 이에 대한 반복 서술을 하지 않고 바로 밥을 끓이는 장면으로 연결시켰던 것이다. 하지만 홍희복은 이 장면을 반복 서술하고 있다. 이는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홍희복 자신의 번역 시기와 관련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독자에 대한 배려인 것이다. 먼저 홍희복이 번역한 시기를 살펴보면 9회를 번역한 시기가 1835년이고 위 예문에 속하는 51회를 번역한 시기는 1847년이었다. 따라서 이 두 회를 번역한 시차는 12년에 달한다. 따라서 홍희복의 입장에서는 두 회차의 번역 시차가 매우 크므로 다시 한 번 설명을 덧붙인 것으로 보인다. 다른

68) 약화가 말했다. ‘아까 그 도사가 인연을 반의반만 맺는다고 한 게 그 뜻이었군요. 사람 수대로 나누면 4분의 1씩 먹게 되니까요.’ (㉠ 첨가) 다구공과 임지양은 청장도를 얻은 뒤쪽으로 가져가 4등분 한 뒤 술에 넣고 끓였다. (<경화연> 1권, 556쪽)

하나는 독자에 대한 배려로 두 회차(9회와 51회)의 간격이 멀기 때문에 독자들이 이를 혼동하거나 잊어버릴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배려로 설명을 한 번 더 첨가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홍희복은 자신을 포함한 독자들이 앞의 내용을 혼동하거나 잊어버릴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반복된 내용을 ㉠ 부분에 첨가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 紫芝道：“瓊英姐姐且莫擲骰，妹子說個燈謎你猜(㉠첨가)：‘三九不是二十七，四八不是三十六，五七不是三十五，六六不是三十六，打一物。’(㉠첨가) 掌紅珠道：“我猜著了。”⁶⁹⁾ (<경화연> 2권, 547쪽)

(나) 벽지 왈, ‘경영 저저는 스이 더지물 그치쇼셔. 미지 혼 므디 미어롤 흐리니 알아너쇼셔. ㉠경영 왈, ‘뱃비 니르라.’ 벽지 왈, ‘삼구는 이십칠이요 사팔은 삼십이요 오칠은 삼십오요 녹녹은 삼십육이니 글노써 혼가지 거스로 아라너쇼셔.’ ㉠경영 왈, ‘요사이 티미 구구법을 빙화 조히 외오논도다.’ 염홍 왈, ‘나는 알앗노라.’ (<제일기연>, 684~685쪽)

위의 예문은 자지가 수수께끼를 내어 장홍주가 대답하는 장면이다. (가)에서는 자지가 문제를 낸 후 곧바로 장홍주가 대답하는 방식으로 연결하고 있는 반면 (나)에서는 여기에 ㉠ 경영이 재촉하는 대화가 첨가되어 서술되고 있다. 또한 (가)에서 자지가 문제를 내자 (나)에서는 여기에 ㉠ ‘요사이 구구법을 배우더니 그걸로 문제를 내는구나’ 라는 경영의 말을 첨가하여 서술하고 있다. 이는 (가)에서 간단한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서술했던 것을 (나)에서는 경영의 말을 첨가함으로써 자지가 구구법을 내게 된 사연을 설명

69) ‘경영 언니, 잠깐만 주사위를 멈추고 제 수수께끼를 풀어보세요. (㉠첨가) 삼구는 27이 아니고 사팔은 32가 아니며 오칠은 35가 아니고 육육은 36이 아닌 물건은 무엇일까요?’ 자지가 문제를 냈다. (㉠첨가) ‘알겠다.’ 하고 장홍주가 말했다. (<경화연> 2권, 213쪽)

하고 있다. 물론 이름은 벽지로 드러난다. 이는 사건을 대화 형식으로 확장하여 서사를 좀 더 개연성 있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 독자가 글을 읽을 때 상황을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가) 且說天下名山，除王母所住崑崙之外，(㉠ 첨가) 海島中有三座名山：一名蓬萊，二名方丈，三名瀛洲(㉡ 첨가)。都是道路遙遠，其高異常，當日<史記>曾言這三座山都是神仙聚集之處。(㉢ 첨가)後來(㉣ 첨가) <拾遺記>同(㉤ 첨가) <博物志>極言其中珍寶之盛，景緻之佳。 70) (<경화연> 1권, 1쪽)

(나) 화설 천하 명산에 곤륜산이 으뜸이니 ㉠하늘 서편을 진경하야 좁피 하늘에 그죽하니 좌편으로 요지를 넘히고 우편으로 추|슈를 둘러시며 으리로 약슈 삼만리를 격하니 그 우히 으흠 곁 구슬 성을 두루고 열두 층 빅옥누를 세우니 이 과연 낭원 요지에 경누옥궤이라. 곳 서왕모 거쳐하시는 곳이니 서왕모의 성은 후시오 존호는 구련태묘귀산 금모원군이라. 서편 하늘의 진묘흔 기운을 오로지 바다 탄싱하니 곤도를 응하야 녀즈의 상인 고로 천상천하와 삼계십방의 무릇 녀즈로 신선된 즈를 거느려 만물을 양육하는 비요 그 다음 세 곳 신산이 잇스니 제일은 곱은 봉너산이요 둘째는 곱은 방장산이요 셋지는 곱은 영취산이니 ㉡이 니른바 삼신산이라. 바다 밧 섬 그온디 잇서 원근을 측량치 못하니 도리를 아는 지 업스며 놓기 우히 업고 주회 그히 업는지라. <사기>에 일즉 말하되 삼신산이 희중에 잇서 신선에 모다 노는 곳이라 ㉢블스약이 잇다 하야 진시황이 서시로 하야금 동남동녀를 시러 보너며 그춤너 니로지 못하다 하고 한무제 방스의 말을 고지 들

70) 천하의 명산이라면 서왕모가 사는 곤륜산외에 (㉠ 첨가) 바다 가운데의 봉래산과 방장산, 영주산 (㉡ 첨가) 세 산을 들 수 있다. 모두 아득히 멀리 떨어져 있고 하늘을 찌를 정도로 높은 산이다. <사기>는 그곳에 신선들이 모여 산다고 기록했고, (㉢ 첨가) 후대의 (㉣ 첨가) <습유기>와 (㉤ 첨가) <박물지>에서도 금은보화가 넘쳐나고 경관이 매우 아름답다며 극찬했다. (<경화연> 1권, 33쪽)

어 봉늬군선을 거의 만늘 듯하야 동희가의 와 브라다가 친히 바다홀
 건너 훗고져 흐다가 동방삭의 간흐물 힘넙어 도라오다 흐고 그 후로
 ㉔왕즈년의 <습유기>와 ㉕장화의 <박물지>에 그 그온디 보비의 만흙
 과 경치에 괴절흐물 극진니. (<제일기언>, 27쪽)

위의 예문은 곤륜산, 봉래산, 방장산 그리고 영주산에 대해 소개하는 장면이다. (가)에서는 이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문헌을 인용하여 그 산들의 가치를 서술하고 있는 반면, (나)에서는 산들을 소개할 때 산에 대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먼저 곤륜산에 대한 소개를 할 때는 ㉑과 ㉒ 서왕모에 대한 정보를 첨가하고 봉래산, 방장산, 영주산을 소개할 때는 ㉓ 진시황과 관련하여 불사약을 구하던 이야기를 첨가했다. <경화연>이 백과사전식 설명이라는 특징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산에 대한 정보를 간략하게 서술한 이유는 이 책을 읽는 독자가 이미 <서유기> 등을 통해서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반면 홍희복은 조선 독자들을 배려하여 첨가했거나 홍희복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좀 더 세세하게 표현함으로써 서사를 좀 더 풍성하고 생생하게 묘사하기 위해서 첨가했을 가능성이 크다. ㉔과 ㉕을 보면 <경화연>에서는 없던 작가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독자에게 막연한 서술을 구체화하고 있다.

2) 문화적 요소

<경화연>에 없는 내용을 <제일기언>에서 첨가한 이유로는 문화적 요인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문화적 요인은 홍희복이 <경화연>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원전인 <경화연>에 나타난 중국의 풍속이나 민족적 특성 등을 설명할 필요가 있어 추가적으로 서술한 부분이다. 이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중국과 한국이 문화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으로 원전에 나타나지 않은 중국의 문화를

설명할 필요성을 느껴 추가적으로 첨가한 것으로 보인다.

(가) 小弟向來以為銜石填海，失之過癡，必是後人附會。今日目睹，才知當日妄議，可謂‘少見多所怪’了。據小弟看來：此鳥秉性雖癡，但如此難為之事，並不畏難，其志可嘉。每見世人明明放著易為之事，他卻畏難偷安，一味蹉跎。及至老大，一無所能，追悔莫及。如果都像精衛這樣立志，何患無成！
(㉠첨가) 請問九公：小弟向聞此鳥生在發鳩山，為何此處也有呢？⁷¹⁾ (<경화연> 1권, 49쪽)

(나) 소제 일즉 넷 글로 조차 보건되 돌을 물어 바다를 메오려 흐믈 다만 어리석은 되 비유되더니 후인이 그 뜻을 모르미로다. 소제 오날〃 목도하니 비로소 그 전의 망녕된 의논을 씨닷과이다. 이제 보건되 저 새 비록 성품이 어리석다하나 다만 이마치 어려운 일을 조금도 어려워 아니고 부되 닐우고져 하니 그 뜻이 쏘흔 아롬답도다. 미양 세상 사람들이 목전의 흐기 쉬운 일을 구척이 편안교져 게얼니 아니트가 밋 늙고 홀일 업슨 후 비로소 늙오촌들 장춧 엇지하리오. 만일 저 새와 갓치 뜻을 좁아 저갓치 성실하면 천하의 무슨 닐을 닐우지 못하리오. ㉠원의 왈, “구공은 말노 드러 알고 미제는 글노 보아 알 거니와 노신은 전혀 모로느니 그 일흠이 대처 무어시라 흐느뇨?” 당심 왈, “구형이 엇지 이 새 일흠을 못 드러시리오. 이 니론 정위라. 세속의 니론마 못 될 닐 흐려 흐는 즈를 비유되되 정위의 바다 메오려 흘 갖다 흐는 비라.” 원의 왈, “그는 나도 알아시리오.” 서로 대쇼

71) 지금까지는 돌을 물어다 바다를 메운다는 비유가 어리석음을 과장하기 위해 후대 사람들이 만든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 제 생각이 틀렸군요. ‘아는 것이 적으면 괴상한 것이 많다’는 속담이 꼭 맞습니다. 저 새는 품성이 어리석기는 하지만 저렇게 어려운 일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니 정말 가상합니다. 반면 세상 사람들은 아주 쉬운 일조차 온갖 핑계를 대며 피하고 시간을 끌지요. 그러다 나이가 들어서 정말 능력이 없어졌을 때는 후회해도 소용없는데 말입니다. 모두들 저 정위처럼 뜻을 세운다면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 첨가) 구공, 그런데 저 새는 발구산에 산다고 들었는데 왜 여기에 있는 것입니까? (<경화연> 1권, 85쪽)

홍고 당성이 다시 무려 왈, ‘소제 드르니 이 새 본디 발구산이란 피
히 논다 흐더니 엇지 이곳의 이스니잇고?’ (<제일기연>, 84쪽)

위의 예문은 당생 삼인이 정위에 대해 의논하는 장면이다. (가)에서는 당생이 정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칭찬하며 세상 사람들의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 이때 (나)에서는 새 이름이 무엇인지 묻는 장면이 추가적으로 첨가되어 있다. 정위라는 새는 중국에서 매우 유명한 새로 ‘돌을 물어 바다를 메우려 한다(銜石填海)’ 라는 문장만 봐도 중국 사람들은 정위에 대한 설명임을 알 수 있다. 정위는 신화에 나오는 새로 <산해경>에도 소개되어 있다. <산해경>에 따르면 정위는 발구산에서 자라며 외모는 까마귀와 같고 머리는 색깔이 화려하며 흰 입과 빨간 색 발을 가지고 있다. 우는 소리는 자기 이름과 같이 ‘정위’ 라고 운다해서 이름이 정위이다. 원래는 정위는 염제의 딸로 동해에 놀러갔다가 익사하여 죽었는데, 이후 바다에 복수한다며 바다에 돌을 메우기 시작했다는 것이다.⁷²⁾ 따라서 <경화연>에서는 정위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홍희복이 판단하기에 정위라는 새는 조선에서는 낯선 새이기 때문에 원외와 당생의 대화를 통하여 정위라는 새를 소개하였던 것이다. 특히 홍희복은 <경화연>에 정위라고 나온 새 이름을 일부러 ‘저 새’ 라고 호명한 이후에 다시 새에 대한 정보를 첨가하는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홍희복이 의도적으로 정위를 설명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가) 多九公道：“此樹就是前日所說木棉了。”唐敖聽了，正在仰觀。⁷³⁾ (<경화연> 1권, 197쪽)

72) 又北二百里，曰發鳩之山，其上多柘木。有鳥焉，其狀如鳥，文首，白喙，赤足，名曰精衛，其鳴自詠。是炎帝之少女名曰女娃，女娃游於東海，溺而不返，故為精衛。常銜西山之木石，以堙於東海。漳水出焉，東流注於河。 (『산해경』 북산경편)

73) 다구공이 말했다. ‘저 나무가 바로 지난번에 얘기한 목면입니다. (㉠ 첨가)’ 이에 당오가 무심결에 나무를 올려다보았는데 (<경화연> 1권, 301쪽)

(나) 구공 왈, ‘이 남기 정히 전일 말흐든 목면 남기니 ㉠꽃치 뛰여 열면 열면 열면 속에 소음이 뛰느니 중국의 면화를 밋히 심거 풀과 ㄹ치 일 년식 기르느니보다 ㄹ장 편호고 니로오니 진실노 보빅의 남기리아 다. 당싱이 드러오며 정히 우리러 보더니. (<제일기언>, 283쪽)

위의 예문은 구공이 당생에게 목면 나무를 소개하는 장면이다. (가)에서는 구공이 간단히 ‘저 나무가 바로 목면 나무이다’ 라고만 서술한 반면 (나)에서는 구공이 목면 나무를 가리키며 ㉠과 같이 목면에 대해 자세한 소개를 첨가하여 서술하고 있다. 원래 목면은 14세기경 중국에서 품종을 개량하는데 성공한 이후 조선에도 전해져 15세기 초부터 조선에서 재배되었고 조선에서 생산된 무명이 일본에 수출되기도 하였다.⁷⁴⁾ 이처럼 목면은 동아시아에서 널리 알려진 식물이며 특히 중국에서부터 전파되었기 때문에 <경화연>에서 굳이 설명할 필요성을 못 느꼈을 것이다. 반면 조선에서는 면작기술이 16세기나 되어야 확립될 수 있었고 17세기 중엽의 <농가집성>을 통해 면작 기술이 종합 발전되었는데, 이후 조선 후기의 농서들에서는 이러한 면작기술에 대한 기록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⁷⁵⁾ 따라서 홍희복도 이러한 측면에서 목면에 대한 설명을 첨가한 것으로 보인다.

3) 작가 인식

(가) 也有懷抱小兒的，也有領著小兒同行的。(㉠ 첨가) 內中許多中年婦女，也有鬚鬚多的，也有鬚鬚少，還有沒鬚的。⁷⁶⁾ (<경화연> 1권, 233쪽)

74) 김희영, 『이야기 일본사』, 청아출판사, 2006.

75) 문중양, 「조선시대 농서에 나타난 목면재배기술」, 『한국과학사학회지』 14, 한국과학사학회, 1992, 189쪽.

76) 여인들 중에는 아이를 안은 사람도 있고 아이와 걸어가는 사람도 있었다. (㉠ 첨가) 또 중년 여인들도 많이 보였는데 수염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 심지어 아예 없는 사람도 있었다. (<경화연> 1권, 354쪽)

(나) 그 중 혹 으희를 안고 가는 즈도 잇스며 혹 으희를 압세워 가는 즈도 잇거늘 ㉠당싱 왈, ‘이곳 남지 전혀 부인의 모양이니 싱산도 능히 흐느니잇가?’ 구공 왈, ‘사름의 남녀는 불행이 밧고엿거니와 천지의 음양이야 엿지 밧고이며 저 녀인이 아모리 고은 체흔들 어디로조 츠 으희를 나흐리요 드르니 이곳 남지 싱산과 젓먹이기는 제하고 기르기는 저 녀즈로 식인다 하더이다.’ 당싱 왈, ‘우리는 천조의 숨겨 나미 진실노 천행이로다 만일 이곳의 나던들 그 으희 기르기의 쫓오 줍 괴로워 엿지하리요.’ 쏘 보건디 허다흔 중년 부인의 슈염 잇는 지 만흐며 혹 구레나룻 잇는 지 잇스니 구공이 그르쳐 왈, ‘저 분 바른 양즈의 푸른 슈염이 그득하고 슈염 틈으로 연지 바른 녀시웁이 드러나니 그 어디 비하리잇고.’ 당싱 왈, ‘비컨디 흰 모리 깔닌 짜히 푸른 솔이 옥어진 고디 흐 송이 붉은 꽃치 은영흙 그흐니 우리 지난 벵 바다 가히 왕왕히 이런 경치를 아니 보니잇가?’ 구공 왈, ‘글흐는 사름이 텃양 비유흐를 맞당흔 중 아치잇게 흐는도다.’ 그 중의 슈염 업는 지 간혹 잇거늘. (<제일기언>, 330쪽)

위의 예문은 당쟁과 다구공이 여아국에서 남성과 여성이 서로 반대로 치장하여 행세하는 것을 보고 나누는 대화이다. (가)는 여장을 한 남자가 아이를 안고 가는 풍경과 여장을 한 수염 난 중년들을 목격하는 장면이다. (가)에서는 목격하는 장면만 제시된 반면 (나)에서는 당쟁과 다구공이 목격한 장면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대화 내용이 첨가되어 있다. 첨가된 대화에서 당쟁이 문기를 여장한 남자가 아이도 낳을 수 있는지 묻자, 구공이 대답하기를 비록 서로 역할을 바꾸어 생활한다고 하더라도 천지의 음양을 어찌 바꿀 수 있겠냐며 비록 역할이 바뀌었다라도 남장한 여자가 아이를 낳고 젓을 먹이며, 여장한 남자가 아이를 기른다고 설명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청나라 때 경극이 매우 유행을 했기 때문에 여아국의 여장 남자처럼 남성이

여성의 역할을 하는 모습을 쉽게 접할 수 있었다. 따라서 <경화연>에서 이러한 장면은 크게 문제시 되지 않고 단지 신기한 볼거리로 나타났던 것이다. 반면 조선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드물기 때문에 이러한 설명이 덧붙여질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당쟁은 독자 대신 설정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독자는 이 에피소드를 보면서 의문을 느꼈을 것이고 이를 짐작한 홍희복이 당쟁을 내세워 독자가 궁금해 할 만한 질문을 던졌던 것이다. 이에 대답을 구공이 하는데, 구공은 홍희복 대신 설정한 인물로 독자의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구공은 ‘우리 지난 ㅁ 바다 가희 왕왕히 이런 경치를 아니 보니잇가?’ 라며 이러한 현상이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홍희복이 어느 정도 여성의 역할을 남성이 대체한다고 해도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것을 독자에게 말해주는 것이다. 이는 홍희복이 당대 사람들보다 여성에 대한 인식이 진보적이었음을 보여준다. 서희경⁷⁷⁾은 이 에피소드에 대해서 남성이 여성을 체험하면서 여성의 삶을 대상화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으며 또 여성 인물 스스로가 자신들에게 가해지는 차별적 제도와 규제를 토로하기도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홍희복은 첨가된 대사를 통해 반대로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아무리 여아국에서 역할이 바뀌었다고 해도 천지의 음양은 바뀔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오히려 여성이 처한 불행한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었고 여성의 고통을 현실화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전족 에피소드에서 확실히 나타난다. 홍희복은 여성에 대한 편견이나 부정적인 표현이 나타날 경우 일정 부분을 삭제하거나 변이, 첨가하였다. 그런데 전족과 관련된 에피소드에서만 전혀 변화를 주지 않고 직역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는 오히려 홍희복이 중국의 문화 중에서 부정적인 문화를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여성에 대한 폭력을 비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부 학자는 이 부분이 오히려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

77) 서희경, 앞의 논문, 163쪽.

식을 나타낸 것이라고도 보고 있지만 이는 부정적인 문화를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반대로 그러한 여성관을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왜냐하면 여성에 대해 부정적인 표현을 삭제, 변이, 첨가하던 홍희복이 이 에피소드만 어떠한 변화도 주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족과 관련된 에피소드는 여성을 하나의 노리개로 다루는 것으로 여성에게 강한 폭력을 가하는 장면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조선시대 학자들도 부정적인 견해를 남겼다. <청장관전서> 중 ‘천애지기서’의 대화 도중 전족에 관한 이야기가 간략하게 나타난다. 다음은 담헌, 역암, 난공이 망건과 전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다.

담헌 : 망건(網巾)은 말의 꼬리털로 만드는데 이를 사람이 머리 위에 쓰고 있으니, 관과 신의 위치가 전도된 것이 아닙니까?

역암 : 어째서 벗어버리지 않습니까?

담헌 : 옛 법을 편히 여기는 습성 때문이기도 하고, 또 명 나라의 제도를 차마 잊을 수 없어서이기도 합니다. 중국에서는 부인들에게 전족(纏足)하게 하는 법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시대에 시작된 것입니까?

난공 : 이에 대해서는 명백한 증거가 없습니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남당(南唐) 때 이소(李霄)의 딸에서부터였다 합니다.

담헌 : 이것도 매우 나쁜 관습입니다. 내가 일찍이 ‘머리에 망건을 쓰고 발을 전족하는 것은 바로 중국의 액운에 대한 조짐이었다.’ 고 생각했습니다.⁷⁸⁾

담헌 홍대용은 전족 풍습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물은 후 이는 바로 중국의 액운에 대한 조짐이라면서 나쁜 관습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조선 중기

78) 이덕무, 「天涯知己書」, 『靑莊館全書』 63권, 고전번역원DB 참조.

학자인 김윤식은 다음과 같은 말을 <운양집>에 남겼다.

산해관(山海關)으로 들어갔을 때 한 여자가 성대하게 차려입고 비틀대며 수레 앞을 지나가는데, 신발을 보았더니 짐승의 발굽처럼 생겼다. 그 때문에 두려워 놀라고 처연히 슬퍼져 종일토록 마음이 좋지 않았다. (중략) 어찌하여 고리버들을 해쳐서 본성을 거스르고 쓰임을 폐하며, 하늘이 부여한 온전함을 버리고 부모께서 물려주신 몸뚱이를 해친단 말인가? 사람이 손가락 하나만 남과 달라도 부끄러워할 줄을 알면서도, 두 발이 정상이 아닌 것은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병들어 불구인 몸이 슬퍼할 만한 것임은 알면서도, 스스로를 해치는 일이 더욱 슬퍼할 만한 일인 줄 알지 못하니, 이 또한 이상하지 않은가? (중략) 오늘날의 부녀자들과 어린아이들이 하늘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사람마다 형벌에 빠지고도 스스로 알지 못한단 말인가? (중략) 근수의 발을 묶어 놓으면 보는 사람마다 불쌍히 여기면서, 온 천하 부녀자의 발을 묶어 놓고서도 도리어 아무렇지도 않게 여김은 유독 무엇 때문인가? (중략) 혹자는 한족(漢族) 여자가 스스로 남다름을 드러내고 싶어서 전족한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그릇됨을 비호하는 말이다. (중략) 글을 읽어 이치를 아는 세상 군자들 중 옛것을 회복하는 데 뜻을 둔 자가, 결연히 일어나 자기 집안에서부터 전족을 금지시킴으로써 규방의 걸음걸이가 단정해지고 위엄 있는 거동이 아름다워지기를 바란다.⁷⁹⁾

김윤식은 전족 풍습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 짐승을 묶어두는 것은 불쌍하게 여기면서도 여성들에게 전족을 채우는 일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풍습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낸 것이다. 이에 대해 김윤식은 글을 읽어 이치를 아는 세상 군자들 중 옛것을 회복하는 데 뜻을 둔 자가, 결연히 일어나 자기 집안에서부터 전족을 금지시킴으로써 규방의 걸음걸이가 단정해지고 위엄 있는 거동이 아름다워지기를

79) 김윤식, 「弓鞋說」, 『운양집』 8, 고전번역원DB 참고.

바란다고 당부하고 있다. 이처럼 조선시대 학자들도 전족에 대해서 매우 잔인한 풍속으로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홍희복 또한 중국에 자주 다니면서 이러한 풍속을 많이 접했을 것이고 충격적으로 인지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홍희복도 앞서 언급한 학자들과 같이 전족 풍속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또한 홍희복은 이여진의 서문을 전혀 번역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여성에 대한 고정된 가치관, 부정적인 인식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번역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대신 홍희복은 자신의 서문에서 <제일기언>을 번역한 목적이 어머니, 딸, 처에게 보여주려는 목적으로 썼음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족 에피소드를 번역한 이유는 경계의 목소리를 드러내기 위한 의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에피소드에서는 여성의 현실을 직시하도록 만들고, 전족 에피소드에서는 여성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냄으로써 여성이 처한 현실의 부당함을 보여주려 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제일기언>의 첨가를 살펴보았다. 역자가 특정부분을 첨가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원전에서 설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첨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역자가 자신의 의식을 표출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첨가하는 방식이었다. 특히 두 번째 이유는 문화적 요소와 여성인식을 드러내는 데서 주로 사용하였다.

IV. <제일기언> 번역의 의미

한국의 번역사는 조선시대 한글창제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으며 주로 중국의 역사서류, 경서류, 문학서류 등이 번역되었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사신의 왕래, 교역, 전란 등을 통해 접촉이 이루어졌던 만큼 조선시대에 대량의 중국소설이 유입 전파되어 초장기에는 한문을 아는 식자층들에 의해 읽히고 한글이 보급된 이후에는 서민층과 여성층 등 다양한 계층에 의해서 읽히게 되었다. 중국소설의 유입은 조선 중기 이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며, 한글로의 번역은 17세기경부터 확산되어 18, 19세기에 대중화를 이루게 된다. 특히 19세기는 방각본 소설과 판소리 국문소설의 유행으로 상업적·대중적 차원으로 소설의 위상이 변화했던 시기이다.⁸⁰⁾

그러나 당시는 이러한 소설의 상업화와 대중화에 대해서 인식이 좋지 않았던 시기이다. 홍희복도 당대 소설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는데 <제일기언>의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그 중 소설이란 명식이 잇서 처음은 스기에 썩진 말과 초야의 전흐는 일을 거두어 모화너니 혹 닐으되 야식라 흐더니 그후 문장호고 닐 업는 선빅 필목을 희롱호고 문썩들 허비호야 헛말을 늘여너고 거쥌 닐을 실다히 호야 보논 사릅으로 호야곰 천연이 미드며 진정으로 맞드려 보기를 요구흐니 일노쥌츠 소설이 성형호야 근일에 우십흐니 (중략) 다만 소설신화(小說新話)의 허탄괴 괴흐 브를 다도아 즐겨 보니 일 업는 선빅와 지조 잇는 녀지 고금소설에 일 흠논 브를 낫〃치 번역호고 그 밧 허언(虛言)을 창설(唱說)호고 직담(客談)을 번연(繁衍)호야 신괴코 즈미 잇기틀 위쥌호야 거의 누천권에 지논지라. (중략) 그 지은 썩과 베푼 말을 볼진터 대동쇼이호야 사릅의 성명을 고쳐시나 스실은 흠스호고 선악이 너도흐는 계교논 흐르지라. (중략) 난신적즈와

80) 김 영, 『조선후기 명청소설 번역필사본 연구』, 학교방, 2013, 14~19쪽.

투부음녀의 계교를 꾸며 혼단을 지어놓고 춤소를 부려 화변을 비져너른 뜻이
간교하고 심술이 악독하야 춤아 듯고 보지 못홀 말이 만흐니 진실노 이런 날
이 잇셔도 맛당이 귀에 듯고 눈에 볼 비 아니어늘 흐믈며 헛말노 지은 것가.
(중략) 만일 간악흔 즈의 공교흔 씨를 괴묘히 녀일진디 그 히로오미 장춧 어
디 미츠리요. 이러므로 그으기 탄식하고 곱히 녀너흐는 비라. (<제일기연> 서
문 21~23쪽)

홍희복은 근래 유행하는 소설에 대하여 허탄하고 대동소이한 이야기라고 비판하면서 이러한 소설이 유행하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런 작품들은 여성과 무식한 사람들이 즐기는 것이라며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던 것이다.

홍희복이 이러한 소설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김경미⁸¹⁾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첫째는 홍희복이 국문소설을 저급한 것으로 보았던 당대의 소설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이며 둘째는 영웅소설이나 국문장편소설이 이 시기에 이르러 새로운 면모를 드러내지 못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재생산했을 가능성이라고 보았다. 이때 주목되는 것은 국문장편소설과 영웅소설이 동일한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이러한 평가는 조선후기로 오면서 국문장편소설과 영웅소설의 담당층이나 작가층이 서로 근접해 간 결과라고 보았다. 따라서 홍희복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당대 소설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했고 이로 인해 소설에 대한 새로움을 요구받게 되었다. 이때 그 변화를 주도한 것이 바로 중국소설의 유입이었던 것이다.

중국소설의 유입은 일찍부터 이루어져 왔고 조선소설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류준경⁸²⁾은 중국소설의 향유가 이미 16세기 때부터 있었는데 주로

81) 김경미, 『19세기 소설사의 새로운 모색』, 보고사, 2012, 19쪽.

82) 류준경, 「낙선재본 중국번역소설과 장편소설사」, 『한국문학논총』 26, 2000, 18~19쪽.

연의류 등이 향유되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그 밖의 중국소설의 향유는 별반 드러나지 않으며 다만 선조가 진숙옹주에게 보낸 국문편지에서 <포공안>이 언급되고 있고 홍희복의 <제일기언>을 제외하고는 연의류가 아닌 중국장편소설이 향유된 흔적이 19세기 중반까지 별반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는 조선소설의 통속화와 상업화에 따라 서로 대동소이한 내용들이 주를 이룬 가운데 독자들은 새로운 소설에 대한 갈망이 생겼고 이로 인해 중국소설의 번역 작품에 대한 요구가 강해져 19세기 말 다양한 중국 번역 작품이 등장한 것이 아닌가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는 소설의 다양화를 이끌어내는 효과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김경미 또한 외국 소설의 번역이 소설계에 새로운 자극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⁸³⁾ 이런 가운데 홍희복의 <제일기언>은 그러한 번역작품의 갈망을 충족시켜주는 출발점이 되었던 것이다. 그동안 중국소설은 류준경의 말처럼 연의류 중심으로 번역 되었는데 홍희복에 의해서 새로운 중국소설이 소개된 것이다. 물론 홍희복이 번역한 목록에도 연의류가 있으며⁸⁴⁾ 17세기부터 번역되었던 작품들도 찾아 볼 수 있다. 하지만 홍희복은 연의류가 아닌 <경화연>과 같은 낭만풍의 풍자소설을 번역하여 처음으로 조선에 소개하고 있다. 이는 기존에 찾아 볼 수 없는 유형의 소설이었던 것이다. <제일기언>이 얼마만큼의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이미 <산해경>⁸⁵⁾을 접한 독자들은 <제일기언> 속 상상의 세계에서 또 다른 즐거움을 느꼈을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홍희복이 <제일기언>을 번역했다는 점만으로도

83) 김경미, 위의 책, 29쪽.

84) 홍희복은 <제일기언>을 비롯하여 <삼국지>, <서유기>, <수호지>, <서주연의>, <역대연의> 등을 번역하여 소개하였다. 다만 이 중에서 현재 전해지는 것이 <제일기언> 뿐이라 나머지 작품들의 번역 형태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85) <산해경>에 대한 최초 기록은 일본의 <화한삼재도회>를 근거로 볼 때 백제 古爾王(234-286)이 阿直岐로 하여금 일본에 <산해경>을 보내주었던 晉 太康 5년(284년) 이전이라고 보고 있다. (김정숙, 「조선시대의 이물 및 괴물에 대한 상상력, 그 원천으로서의 <산해경>과 <태평광기>」, 『일본학연구』 48,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2016, 38쪽) 따라서 <산해경>이 유입된 시기는 최소 백제시대이다.

19세기라는 시기의 특성상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중국소설을 번역할 때 정해진 일정한 틀에 의거해 번역되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여러 번역 작품들에서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공통분모가 있다. 첫째, 중국 소설체의 흔적이 보이는 부분을 최대한 삭제시켜 외국작품으로서의 이질감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원전의 내용을 손상시키지 않고 충실히 이끌어 나가면서도 경우에 따라서 생략·축약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술술 풀어내려가는 이야기체 서술방식과 독자들의 작품 감상 경향을 고려한 번역자의 태도에서 기인된 것이다. 셋째, 번역자의 적극적인 번역 태도를 보여주는 일면으로 축약과 생략 외에도 의역이 나타난다. 넷째, 조선시대 번역은 백화체의 근대중국어와 한문을 두루 섭렵하였던 상당한 지적 소양을 갖춘 이들에 의해 번역·필사되었다는 점이다.⁸⁶⁾ 홍희복도 이러한 특성을 보이는데 특히 작가의식과 결합하여 변이, 첨가하는 특성이 나타난다.

홍희복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특성은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소설 구성요소와 관련된 것이다. 홍희복은 앞서 서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번거로운 부분은 삭제한다고 하였는데 서사를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반복적인 내용이나 행동, 배경의 일부를 삭제하였다. 그러나 이는 원문의 서사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다. 이는 홍희복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소설을 좀더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는 문화적 요인을 고려하여 조선인이 이질감 없이 내용을 받아들일도록 번역하고 있다는 점이다. 홍희복은 중국과 조선이 같은 유교권에 속하지만 속담이나 풍습, 유머 등의 활용 양상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조선의 실정에 맞게 수정함으로써 조선의 독자들이 외국작품이라는 인식을 하지 않도록 배려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86) 김영, 『조선후기 명청소설 번역필사본 연구』, 학고방, 2013, 14~19쪽.

셋째는 작가 인식과 관련된다. 이어진은 서문에서 여성이 지켜야할 규범을 정하여 작품 곳곳에 배치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나 에피소드를 제시하여 여성에 대한 봉건주의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昔曹大家《女戒》雲：“女有四行：一曰婦德，二曰婦言，三曰婦容，四曰婦功。”此四者，女人之大節而不可無者也。今開卷為何以班昭《女戒》作引？蓋此書所載，雖閨閣瑣事，兒女閒情，然如大家所為四行者，歷歷有人。不惟金玉其質，亦且冰雪為心。非素日恪遵《女戒》，敬守良箴，何能至此？豈可因事涉杳渺，人有妍媸，一併使之泯滅？故于燈前月夕，長夏余冬，濡毫戲墨，匯為一編。其賢者彰之，不肖者鄙之。女有為女，婦有為婦，常有為常，變有為變。所敘雖進瑣細，而曲終之奏，要歸于正，淫詞穢詞語，概所不錄。其中奇奇幻幻，悉由群芳被謫，以發其端。試觀首卷，便知梗概。87)

(〈경화연〉 1권, 1쪽)

서문에는 이어진이 작품을 창작한 의도가 드러나 있는데 특히 처음 시작을 여성이 지켜야하는 네 가지 규범을 제시하고 있어 이 작품의 성격을 짐작하게 한다. 이러한 〈경화연〉에 대해 호적⁸⁸⁾은 이어진이 최초로 부녀문체

87) 조대가는 《여계》에서 아녀자라면 법도 있는 행동의 부덕과 조심스러운 언행의 부언, 깨끗한 옷차림과 몸가짐의 부용, 말끔하게 집안을 건사하는 부공의 네 가지 덕목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소설을 소설을 왜 반소의 〈여계〉로 시작하는지 어찌면 의아해질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건 이 소설이 규방의 소소한 이야기거리와 여인들의 한가로운 심정을 다루지만, 무엇보다 위의 네 가지 덕목을 갖춰 고결한 품성과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평소에 〈여계〉의 가르침을 소홀히 했다면 가당치도 않았을 일이다. 그러니 내용이 비현실적이거나 인물의 용모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 자체를 버릴 수 있겠는가? 이에 본 연구자는 달빛과 등불에 의지해 긴 여름을 지나 여유로운 겨울날까지, 부지런히 필목을 놀려 이 책을 엮어내었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그 취지를 이해할 것이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면 하찮게 여길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여성은 더욱 여성스러워지고 아내는 더욱 아내다워지며, 지켜야 할 것은 지키고 바뀔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기를 바란다. 비록 소소한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모든 것이 올바른 자리로 돌아가고, 음란하거나 상스러운 말은 나오지 않는다. 이 기묘한 이야기는 못 꽃들이 인간 세상으로 쫓겨 오는 것에서 시작하니 첫 장을 읽으면 대략적인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 (〈경화연〉 1권 14~15쪽)

를 제시한 사람으로 보고 이어진이 소설에서 몇 천 년 동안 소홀하게 여겼었던 여성문제를 제안했다고 평가하였다. 즉 호적은 이어진이 여성도 남성과 동일하게 평등한 대우, 평등한 교육을 받고 평등한 과거제도를 치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김경미⁸⁹⁾는 <경화연>에서 여성을 위한 과거를 실시하여 여성들이 과거시험에 응시하고 합격하여 즐기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문제적인 작품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전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여아국에서 원외가 귀를 뚫거나 전족을 하는 등의 여성으로써의 삶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여성의 삶이 일상적으로 가혹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실감하도록 만들었다고 하였다. <경화연>은 여성 문제라는 유교 사회의 핵심적인 부분을 건드리고 있고 그런 점에서 새로운 시대의식을 보여준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어진은 <경화연>의 서문에서 여성들이 이 책을 읽고 더욱 여성스러워지며 지킬 것은 지키고 바꿀 것은 바꾸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호적과 김경미가 주장한 바처럼 <경화연>이 여성문제를 다른 소설들과 다르게 새로운 형태로 다루고는 있지만 이어진의 사고방식은 여전히 유교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성에 대한 인식이 봉건적 사고방식에 고정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희경⁹⁰⁾은 <경화연>을 관통하고 있는 당대 지배 이데올로기의 원심력이 간과되어 읽힌 결과 총과 효, 정절이라는 윤리적, 도덕적 가치에 대한 여성의 복무를 당연시하며 여성이 여전히 신비화된 타자들 가운데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히려 작품 내에서 여성의 권리를 한정시키는 근거가 되는 전통적 가치관이 강조되면서 이러한 덕목에 충실한 것이 여성의 능력을 드러내는 중요한 잣대로 기능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따라서 호적

88) 호적, 앞의 책, 476~477쪽.

89) 김경미, 앞의 논문, 558쪽.

90) 서희경, 앞의 논문, 184쪽.

과 김경미의 지적처럼 여성문제에 대해서 다룬 것은 의미 있는 일이나 서희경의 지적처럼 여성 문제를 다룰 때 당대 지배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그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당대 여성관과 크게 다르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홍희복은 <제일기언>의 서문에서 이여진의 서문을 통째로 삭제하고 자신의 서문으로 대체하고 있다. 이는 아마도 홍희복이 <경화연>을 번역하면서 자신과 이여진의 여성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번역은 생략한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홍희복은 여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여성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사고를 하고 있었기에 이러한 이여진의 서문을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홍희복은 여성과 관련 내용을 삭제하지는 않는다. 이는 변이와 첨가만으로도 충분히 내용을 이어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홍희복은 19세기라는 상업적이고 통속적인 소설들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당대 소설에 대해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통렬히 비판하였으며 이와는 다른 <경화연>이라는 소설을 소개함으로써 조선 독자들에게 좋은 소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좋은 소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번역한 것이 아니라 작가의식을 바탕으로 삭제, 변이, 첨가하는 방식의 번역을 선택하여 좋은 질의 소설을 조선 독자에게 소개하였던 것이다. 이는 당대 소설의 흐름과 대비했을 때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은 홍희복의 <제일기언>이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것이다.

V. 결론

지금까지 <제일기언>의 번역 양상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2장에서는 <제일기언>의 번역의도와 번역 텍스트 선본에 대한 제고, 구성 방식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홍희복은 서문을 통해 <경화연>을 번역한 이유가 사람에게 유익하다는 점, 오락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들었고 번역 방법으로는 반복된 부분을 삭제하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첨가하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밝히고 있었다. 또한 번역 텍스트의 <경화연> 선본으로 지금까지는 정영호의 주장대로 ‘道光十二年(1832) 芥子園重刻本’을 답습하였으나 본고에서는 이에 의의를 제기하고 <제일기언>의 번역 시기를 고려하여 <제일기언>의 번역 선본으로 ‘嘉慶二十三年(1818) 蘇州原刻本’을 번역 선본으로 추정하였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았는데 하나는 회목의 교체를 통해 살펴보았고 다른 하나는 단어의 수정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제일기언>의 구성방식을 살펴보았다. <제일기언>과 <경화연>을 비교하여 회차 구성 및 회목, 필사상황 등을 고찰하여 홍희복이 <제일기언>을 구성한 방식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제일기언>의 번역 양상을 삭제, 변이, 첨가로 나누어 분석해보았다. 먼저 삭제는 소설 구성요소에서 이루어졌다. 이때 삭제는 원전의 흐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으로 번역과정에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삭제하여 번거로운 부분을 덜어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주로 대화나 백과사전식 지식의 나열 부분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문화적인 요소 측면에서 조선과 다를 경우 삭제가 이루어졌는데 주로 중국식 유머, 속담 그리고 음운학과 관련된 부분 등이 삭제되었다. 이는 두 나라의 문화적 차이에서 발생한 삭제로 각 나라의 문화, 개성 및 민족적 특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변이는 특정내용에 대해 거부감이 생겼거나 혹은 조선의 문

화와 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저자가 변이시킨 것이다. 삭제와 마찬가지로 장황한 백과사전식 나열을 변이시켜 번역하고 있고 불필요한 설명은 간략하게 언급하는 방식으로 변이시켰다. 또한 중국과 조선의 문화적 차이도 고려하여 조선식으로 변이시켜 표현하고 있으며 여성에 대한 인식도 홍희복이 원전의 작가와 가치관이 달라 여성에 대한 표현을 의도적으로 변이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첨가에서는 역자가 독자들을 고려하여 설명이 부족한 부분을 덧붙이기도 하고 자신의 가치관을 표출하기 위해서 첨가하기도 하였다. 특히 여성에 대한 인식과 문화적 요소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4장에서는 조선의 번역사와 19세기 소설사의 흐름을 간략히 되짚어보고 홍희복의 <제일기언>이 갖는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홍희복이 살았던 19세기라는 시기의 소설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이와는 다른 <경화연>이라는 소설을 소개하여 조선 독자들에게 좋은 소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려고 하였음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 <경화연>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홍희복의 의식이 번역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음을 알 수 있다. 번역이라는 것은 단순히 언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번역하는 번역자의 의식이 많은 영향을 미쳐 또 다른 하나의 문학작품으로 형상화될 수 있음을 <제일기언>을 통해 살펴볼 수 있었다.

다만 본고에서는 <제일기언>만을 대상으로 하여 중국작품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작가의식을 살펴보았으나 <제일기언> 뿐만 아니라 다른 번역 작품들도 <제일기언>처럼 자세히 고찰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양한 번역 작품들을 연구하여 번역을 할 때 당시 조선시대 사람들의 주체의식을 심도 깊게 연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제일기언>의 번역 선본에

대한 연구는 개략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보다 정밀한 연구를 필요로 하므로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참 고 문 헌

1. 자료

古本小説集成編委會 編, 『古本小説集成』, 上海古籍出版社, 1978.

李汝珍, 『경화연』, 中華書局香港分局, 1965.

李汝珍, 문헌선 역, 『경화연』, 문학과 지성사, 2011.

홍희복, 『제일기언』, 국학자료원, 2001.

2. 단행본

김경미, 『19세기 소설사의 새로운 모색』, 보고사, 2012.

김 영, 『조선후기 명청소설 번역필사본 연구』, 학고방, 2013.

김희영, 『이야기 일본사』, 청아출판사, 2006.

魯 迅, 『中國小説史略』, 商務印書館, 2011.

曹雪芹, 안의운·김광렬 역, 『홍루몽』 2권, 5권, 청계출판사, 2007.

허 준, 『동의보감』, 들녘, 1999.

3. 논문

김경미, 「<경화연>의 번역서 <제일기언>을 통해 본 홍희복의 번역 인식」, 『한국고전연구』 32, 한국고전연구학회, 2015.

김정숙, 「14면 주사위를 통해서 본 신라 귀족의 놀이문화」, 『신라문화』 35, 동

- 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10.
- 김정숙, 「조선시대의 이물 및 괴물에 대한 상상력, 그 원천으로서의 <산해경> 과 <태평광기>」, 『일본학연구』 48,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2016.
- 仇鹿鳴, 「碑傳與 史傳: 上官婉兒의 生平與 形象」, 『學術月刊』 5, 復旦大學 漢唐文獻研究室, 2014.
- 문중양, 「조선시대 농서에 나타난 목면재배기술」, 『한국과학사학회지』 14, 한국과학사학회, 1992.
- 민관동a, 「三國演義在韓國의 流傳與再創作」, 『比較文化研究』 7,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회, 2004.
- 민관동b, 「국내의 중국고전소설 번역 양상」, 『중국어문논역총간』 24, 중국어문논역학회, 2009.
- 방영인, 「경화연 연구」, 『경남전문대학 논문집』 25, 1997.
- 謝旭慧, 「喜劇小品語言幽默藝術研究」, 華中師範大學 漢語言文字學 碩士, 2006.
- 서경희, 「〈鏡花緣〉의 여성인식과 〈제일기연〉의 수용방식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5,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002.
- 史 泳, 「鏡花緣版本演變」, 『書籍報刊』 7, 中國商報, 2002.
- 이광훈, 「鏡花緣의 韓譯本 第一奇諺 研究-第一奇諺의 번역양상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석사 논문, 2011.
- 李雄飛·郭瓊, 「鏡花緣版本補敘」, 『中國文化研究』 3, 北京大學圖書館古集部, 2007.
- 정영호a, 「이여진의 경화연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1997.
- 정영호b, 「경화연에 나타난 페미니즘적 요소」, 『중국어문학논집』 21, 중국어문학연구회, 2002.
- 정영호c, 「경화연에 나타난 유희의 수용양상」, 『중국소설논총』 14, 한국중국소

- 설학회, 2001.
- 정영호d, 「경화연에 나타난 신화의 수용양상」, 『중국인물과학』 23, 중국인민학회, 2001.
- 정영호e, 「鏡花緣과 한글 역본 第一奇諺의 비교 연구」, 『중국소설논총』 26, 한국중국소설학회, 2007.
- 정규복, 「제일기언에 대하여」, 『중국학논총』 1,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1984.
- 趙惠珍, 『紅樓夢在韓國的翻譯流傳及其對韓國文學的影響』, 江南大學校 碩士論文, 2013.
- 주숙하a, 「幾點翻譯研究方法論的省思-以朝鮮時代中國翻譯第一奇諺為例」, 『중국어문논역총간』 29, 중국어문논역학회, 2011.
- 주숙하b, 「文人的主體意識의 再現-第一奇諺의 翻譯者인 洪羲福을 中心으로」, 『중국소설논총』 35, 한국중국소설학회, 2011.
- 주숙하c, 「翻譯 작품 속 유머와 諷刺-洪羲福 第一奇諺의 文人 유머 翻譯研究」, 『중국어문논역총간』 30, 중국어문논역학회, 2012.
- 하정옥, 「경화연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1982.
- 胡適, 「鏡花緣的引論」, 『中國章回小說考證』, 里仁書店, 1982.

Abstract

A Study on the Aspect of Translation in <Jeilgiun>

NIU, WEINA

Dept. of Korea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Advisor: Prof. Shim, Chi Yeol

Recently, mainly Chinese-to-Korean Translation Literature Research Institute has actively been arranging the original texts and studying the notes for the translated novels in the Josun Age. In particular, it was encouraging that <Jeilgiun>, which had existed only as a transcription, was introduced by the professors Gyubok Jung and Jaeyun Bak. We need to note that the correcting commentary is greatly helpful to studying lexical features from the viewpoint of the study of the Korean language, but that from a literary aspect not a few parts of it made a difference from its original text in the process of translation. That is, it is because the important task was presented of having to study the changed parts in the process by contrasting the original text <JiHuaYuan> with the translation <Jeilgiun>. Paying attention to such a respect this paper compared and investigated the two works. In particular, <Jeilgiun>, as a Korean translation in the period when Chinese novels came

into Korea and secured a thick class of readers, becomes an important starting point for exploring the translation aspect of the day. Therefore, comparing and studying the translation <Jeilgiun> and the original text <JiHuaYuan> and investigating into the aspect of translation have very important significance.

In general, a translation mainly tends to result from a literal translation. But unlike general translations the translation <Jeilgiun> reflects an author's consciousness. With its own peculiar individuality here and there in it, it provides a good chance of comparing the difference between China's and Josun's cultural cognition. Not so many papers noticed the relevance between the two works. Even though they are said to have studied them with relevance, they simply introduced them, making it necessary to make an active study of them. Taking notice of such a respect this thesis chose to investigate the significance intrinsic to the translation by comparing the aspect of translation between them and by exploring the cultural differe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an intention for adaptation.

[별첨1]

		<경화연>	<제일기연>
1	1권 34쪽	此話令人不解	6회 69쪽 삭제
2	1권 37쪽	就從姐姐小山之意	6회 70쪽 삭제
3	1권 48쪽	滿嘴長牙	8회 83쪽 삭제
4	1권 48쪽	唐敖聽了，不覺歎息不止 °	8회 83쪽 삭제
5	1권 53쪽	奈身邊並無金器，這卻怎好？ ° ° °因想了一想	9회 91쪽 삭제
6	1권 54쪽	多九公道：“卻也奇怪 °”	9회 92쪽 삭제
7	1권 57쪽	唐敖道：“此話怎講？”	10회 95쪽 삭제
8	1권 61쪽	原來仲璋哥哥家眷也在海外！	10회 100쪽 삭제
9	1권 62쪽	林兄這是甚話！	10회 102쪽 삭제
10	1권 74쪽	總之，天下少一僧或少一道，則世間即多一貞婦 °此中固賢愚不等，一生未進女色者，自不乏人；然如好色之輩，一生一世，又豈止姦淫一婦女而已 °	12회 116쪽 삭제
11	1권 92쪽	林之洋道：“若果這樣，俺也不怪他老人家不公了 °”	13회 135쪽 삭제
12	1권 94쪽	莫若趕到元股 `深目等國，再去望望罷	14회 137쪽 삭제
13	1권 94쪽	所以他們但凡吃物，不肯大大方方，總是賊頭賊腦，躲躲藏藏，背人而食	14회 137쪽 삭제
14	1권 97쪽	唐敖道：“我們何不上去看看？”	15회 139쪽 삭제
15	1권 98쪽	唐敖道：“如此甚好 °”	15회 140쪽 삭제
16	1권 99쪽	莫非門生做夢麼？	15회 142쪽 삭제
17	1권 132쪽	我們只知他案上之書定他腹中學問，無怪要受累了 °	19회 181쪽 삭제
18	1권 162쪽	今到此地，看這光景，固非賤賣，但非其人，也覺委屈	23회 221쪽 삭제
19	1권 179쪽	多九公道：“說話只有一句 `兩句，怎麼叫作半句？”林之洋道：“他說的話雖是一句，因他無情無緒，半吞半吐，及至到俺耳中，卻只半句 °俺因他們個個把俺冷淡，後來走開	25회 251쪽 삭제
20	1권 179쪽	九公！你道這事可怪？	25회 252쪽 삭제
21	1권 193쪽	他們如果也像常人夜眠晝起，照常過日子，何至睡去不醒 °	27회 274쪽 삭제
22	1권 200쪽	所以古人說：“岐舌一名反舌，語不可知，惟其自曉”，當日老夫意欲習學，竟無指點之人 °後來偶因販貨路過此處	28회 289쪽 삭제
23	1권 214쪽	好在我們並不圖他下次生意，那個還販雙頭鳥兒再來貨賣！樂得且多幾輛銀子，大家多醉幾日，也是好的 °	30회 307쪽 삭제
24	1권 217쪽	此去天朝，倘能病癒，將來自有好處 °	31회 311쪽 삭제
25	1권 226쪽	唐敖道：“請教九公：前在途中所見眼生手掌之上，是何國名？”多九公道：“那是深目國 °”	31회 320쪽 삭제
26	1권 230쪽	唐敖道：“我們雖少猜幾個燈謎，恰好天色尚早，還可盡興暢遊 °”	31회 321쪽 삭제
27	1권 329쪽	多九公道：‘林兄才吃許多海水，脾胃未免受傷，休要悲慟 °老夫適才想起一事，唐小姐似乎該有救星 °’林之洋道：‘俺在海裡，不過喝了兩口水，就人事不知，俺的甥女下海多時，怎麼還能有救？’	43회 402쪽 삭제
28	1권 337쪽	多九公付道：‘怪不得男相女裝，原來卻是‘分桃主人’ °’	46회 416쪽 삭제

29	1권 338쪽	舅舅莫把這件好事替我攬在身上。	46회 417쪽	삭제
30	2권 393쪽	請教姐姐，貴邦歷朝史鑒，自然也與敵處相仿。可惜尊處簡策流傳不廣，我們竟難一見。	53회 471쪽	삭제
31	2권 408쪽	駱紅渠道：‘碑上可載此人？’	55회 495쪽	삭제
32	2권 415쪽	末空道：‘待老身領他出來。’	56회 506쪽	삭제
33	2권 422쪽	大約主上一經還朝也就引退了。	57회 523쪽	삭제
34	2권 429~430쪽	文誦道：‘請教怎樣看法？’ 承志道	58회 533쪽	삭제
35	2권 431쪽	余承志道：‘這個老兒說來說去，原來也同我們一樣。’	58회 536쪽	삭제
36	2권 435쪽	叫作‘心到神知’罷	59회 541쪽	삭제
37	2권 450쪽	因而家父又比之為‘毒橄欖’。蓋橄欖初食味頗苦澀，久之方回甘味。茶初食不覺其害，久後方成其殃，因此謂之‘毒橄欖’。	61회 564쪽	삭제
38	2권 472쪽	克伐怨欲	64회 595쪽	삭제
39	2권 499쪽	難道我們前日補考卷子不是舅舅定的名次？卞濱笑道：‘定卻是我定的，你說那些批語可好？但有點好處，我就批出。’我向來看文總如此，從不昧人之善。你看你們這些卷子可有委屈去處？紫芝把臉紅道：‘舅舅還說不屈，單單把我考在紅椅子上！我還要同舅舅不依哩。’卞濱不覺大笑道：‘原來第三十三名卻是你的卷子。’後來拆了彌封，我也不曾理會。當時我看卷時，本來要把你這本取在十名前的，後來不知怎樣就弄到後頭了。紫芝道：‘這是過後好看話，我不領情。’眾人聽了，都抿口笑。	67회 630쪽	삭제
40	2권 499쪽	也罷，若是不見，你們也不依	67회 630쪽	삭제
41	2권 507쪽	卞彪道：‘這個帖兒從沒備過，請示怎樣寫法？’卞濱笑道：‘正是，我倒忘了，還沒告訴你，這個帖兒，只消一個封套，一個紅簽，一個單帖。那帖子上首只寫‘初九日’，不必寫‘候光’、‘候敘’的話，下首贅過‘某人拜訂’。那簽子上就照殿試的名次，即如：第一名是史幽探，你把簽子當中寫‘史才女’三個大字，旁添一行小字，寫‘欽取第一等第一名’八個字。其餘都照這樣寫去就是了。’卞彪答應，隨即下帖。	68회 639쪽	삭제
42	2권 517쪽	閨臣道：‘何以見得？’	70회 650쪽	삭제
43	2권 523쪽	況師曠言：‘鳳翥鸞舉，百鳥從之。’鳳為禽之長，所以眾鳥都去從他。你想：畜類尚且知有尊長，何況於人！	71회 656쪽	삭제
44	2권 529쪽	師蘭言道：‘這可算得‘絕調’了。’言錦心道：‘五位姐姐琴是撫的極妙，不必說了。我不喜別的，只喜蘭言姐姐這‘絕調’二字，真可抵得嵇叔夜的一篇《琴賦》，任你怎樣贊他撫的好，彈的妙，總不如這兩字批的簡潔。’	72회 663쪽	삭제
45	2권 539쪽	如‘擘`托`勾`踢`抹`挑`摘`打’之類。	73회 673쪽	삭제
46	2권 541쪽	因把腳揚一揚道：‘一連跑了五天，偏偏今日他又疼了。’紫芝道：‘我勸姐姐，就是四寸也將就看得過了，何必定要三寸，以致纏的走不動，這才罷了？’	73회 676쪽	삭제
47	2권 543쪽	或者當日學時本由蟾吊學成(중략)被這粗心浮氣的把馬吊好處都埋沒了。	73회 682쪽	삭제

48	2권 563쪽	沉魚道：‘閨臣姐姐是無鈎之鈎（중략）卻是難的。’	76회 697쪽	삭제
49	2권 568쪽	又如古詩所載‘鴉舅影’‘鼠姑心’：鴉舅即藥中烏柏，鼠姑即花中牡丹。餘如合歡、罌粟、萱草忘憂之類，不能枚舉。	77회 704쪽	삭제
50	2권 569쪽	寶耕烟道：‘這個名字竟生在一母，天然是個雙聲，倒也有趣。’	77회 704쪽	삭제
51	2권 580쪽	假如我說‘萬國咸寧’，第一字從我數起，順數至第四位飲一杯接令。	78회 713쪽	삭제

<별첨1> <경화연>과 <제일기연>의 인물 간 대화 삭제 비교

[별첨2]

		<경화연>	<제일기연>	
1	1권 3쪽	行動迂緩，倒象一個假道學 °	1회 31쪽	부분 삭제
2	1권 27쪽	武後正在分付，	5회 58쪽	삭제
3	1권 43쪽	原來是本漢隸 °再將婉如所臨，細細觀看 °	8회 77쪽	삭제
4	1권 48쪽	唐敖聽了，不覺歎息不止 °	8회 83쪽	삭제
5	1권 54쪽	因向多九公道	9회 92쪽	삭제
6	1권 61쪽	自去祭母 侍奉祖父	10회 100쪽	삭제
7	1권 63쪽	林之洋忙拿槍裝藥，對準此鳥 °正要放時，誰知火繩沾水已熄 °轉眼間，那鳥去遠 °	10회 104쪽	삭제
8	1권 100쪽	二人見禮退出，大家仍舊歸坐	15회 144쪽	삭제
9	1권 169쪽	三人讓老者上坐，老者因是地主，再三不肯，分賓主坐了 °	24회 230쪽	삭제
10	1권 171	走了兩步，旁邊殘桌上放著一根剔牙杖，老者取過，聞了聞，用手揩了一揩，放入袖中 °	24회 233쪽	삭제
11	1권 173쪽	嫗兒止悲道	24회 241쪽	부분 삭제
12	1권 193쪽	方才配完，唐 林二人也就回來 °	27회 273쪽	삭제
13	1권 197쪽	三人一見，各執器械迎了下去 °	28회 283쪽	삭제
14	1권 205쪽	唐敖把婉如做的詩賦改了幾首，悶坐無聊	29회 294쪽	삭제
15	1권 253쪽	昨日九公上船安慰他們	36회 356쪽	삭제
16	2권 576쪽	丫環預備淨水都淨了手 °	78회 707쪽	삭제

<별첨2> <경화연>과 <제일기연>의 인물 행동 삭제 비교

[별첨3]

		<경화연>	<제일기언>
1	1권 70쪽	吳之和聽罷，隨即說出一番話來 °	10회 114쪽 삭제
2	1권 257쪽	林之洋把世子 ° ° °40회	36회 362쪽 삭제
3	1권 347쪽	喜得溪邊有株數人合抱不來的一棵大松，由這邊山坡，歪歪斜斜一直鋪到對面山坡 ° ° °	47회 432쪽 부분 삭제
4	1권 347~369쪽	(47회) 正在觀看，忽見對面祥雲繚繞，紫霧繽紛，從那山清水秀之中，透出一座紅亭 °未知如何，下回分解 ° (중략) (50회 중간) 歸臣姐妹三人，被眾人擡上小舟，明知凶多吉少 °	48회 433쪽 삭제
5	2권 415회	正要告訴逃到海外各話	56회 507쪽 삭제
6	2권 500~501쪽	女兒國國王臣銀奇，匍匐謹上書天朝天后大皇帝陛下 °伏惟陛下：坤德無疆，離暉久照 °功媿風鳩之煉石，道符月馭以行天 °臣早殷服事之心，徒懷蟻懼；僻處裨瀛之角，未仰龍顏 °茲際文教之宏敷，微才幸進；叨沐仁恩之遠被，荒甸咸知 °竊聞臣子若花，恭應制科，濫邀首薦 °頌椒語拙，得聊玉筍之班；詠絮才疏，許侍珠櫻之宴 °自宜終身感戴，沒齒瞻依 °只緣臣已四旬，惟生二子：若花立儲雖定，自痛孤雛；次子恃母而嬌，陰蓮黨類 °夢天忽壓，逆子何幸遭憐；祭地而墳，長君無辜受屈 °賢愚莫辨，巧懸衣上之蜂；嫡庶相爭，妄掘宮中之盅 °優鑠金而出走，去國圖生；喜擇木以高飛，為親諱過 °及乎鹿馬既辨，鸞鳳已翔；寢門之問膳無聞，太室之承祧欲絕 °臣悔深愛溺，病益愁煎 °二豎難驅，藐孤安在？是以哀鳴伏枕，恭懇聖慈：俯念臣心自怨，臣眼將穿，將若花賞歸故國，得接宗支 °指白水而重耳歸來，憂是山河無害；及黃泉而寤生復見，遂為母子如初 °倘遂犢舐之私，終矢雀銜之報 °誠惶誠恐，稽首頓首 °	67회 632쪽 삭제
7	2권 510쪽	彩雲 `錦雲 `紫雲 `香雲 `素雲 `綠雲 °只見孟蘭芝 `孟雲芝 `孟芳芝 `孟窮芝 `孟瑤芝 `孟紫芝 `孟玉芝 `蔣春輝 `蔣秋輝 `蔣星輝 `蔣月輝 `蔣素輝 `蔣麗輝 `董寶鈿 `董翠鈿 `董珠鈿 `董花鈿 `董青鈿 `掌紅珠 `掌乘珠 `掌驪珠 `掌浦珠 `呂堯奠 `呂祥奠 `呂瑞奠서	69회 640쪽 부분 삭제
8	2권 536쪽	紫瓊道：‘時常打打譜，再講究講究，略得幾分意思 (중략) 可見裝點造作總難遮人耳目 °’	73회 672쪽 삭제

<별첨3> <경화연>과 <제일기언>의 장면 삭제 비교

[별첨4]

		<경화연>	<제일기언>	
1	1권 67쪽	唐敖道：“‘漫天要價，就地還錢’，原是買物之人向來俗談。至‘並非言無二價，其中頗有虛頭’，亦是買著之話。不意今皆出於賣者之口，倒也有趣。”	10회 110쪽	삭제
2	1권 79쪽	所謂‘常將有日思無日，莫待無時想有時’。如此剴切勸諭，奢侈之風，自可減息，一歸儉樸，何患家無蓋藏。	12회 120쪽	삭제
3	1권 127쪽	固然有‘青出於藍而勝於藍’的，究竟是他授業之師。	18회 177쪽	삭제
4	1권 162쪽	俗語說的：‘學問無大小，能者為尊’。他的學問既高，一切尚要求教，如何不是晚生？豈在年紀？若老大無知，如白民之類，他在我跟前稱晚生，我還不要哩。二位才女如此通品	23회 221쪽	삭제
5	1권 166쪽	剛才俺同那些生童講話，倒不見他有甚通文，誰知酒保倒通起文來，真是‘整瓶不搖半瓶搖’！	23회 226쪽	삭제
6	1권 191쪽	來來往往，倒也好看。林之洋道：“他們個個身長五尺，頭長也是五尺。他這頭為甚生得恁長？”多九公道：“老夫聞說此處最喜奉承，北邊俗話叫作‘愛戴高帽子’；今日也戴，明日也戴，滿頭盡是高帽子，所以漸漸把頭弄長了，這是戴高帽子戴出來的。”	27회 270쪽	삭제
7	1권 195쪽	所謂：欲廣福田，須憑心地。	27회 277쪽	삭제
8	1권 239쪽	因又說道：“‘貌比潘安，顏如宋玉’，是說人得容貌之美，怎麼我將下身比他？未免不倫。”	33회 338쪽	삭제
9	2권 536쪽	香雲道：‘依我說，姐姐既要下棋，到底還要慢些。譜上說：‘多多算勝，少算不勝’。如果細細下去，自然有個好著兒。若一味圖快，不但不能高，只怕越下越低。俗語說得好：‘快棋慢馬吊，縱高也不妙’。	73회 672쪽	부분 삭제

<별첨4> <경화연>과 <제일기언>의 중국 속담 삭제 비교

[별첨5]

		<경화연>	<제일기연>	
1	1권 74~76쪽	又聞貴處宴客，往往珍羞羅列，窮極奢華。桌椅既設，賓主就位之初，除果品冷菜十餘種外，酒過一二巡，則上小盤小碗，其名南喚‘小吃’，北呼‘熱炒’，少者或四或八，多者十餘種至二十餘種不等，其間或上點心一二道。小吃上完，方及正肴。菜既奇豐，碗亦奇大，或八九種至十餘種不等。主人雖如此盛設，其實小吃未完而客已飽，此後所上的，不過虛設，如同供獻而已。更可怪者，其肴不辨味之好醜，惟以價貴為尊。因燕窩價貴，一看可抵十肴之費，故宴會必以此物為首。既不惡其形似粉條，亦不厭其味同嚼蠟。及至食畢，客人只算吃了一碗粉條子，又算喝了半碗雞湯，而主人只覺客人滿嘴吃的都是‘元絲課’，豈不可笑？(중략) 到了宴會，主人恭恭敬敬捧了一碗倭瓜上來，能不令人噴飯？若不論菜之好醜，亦不辨其有味無味，竟取價貴的為尊，久而久之，一經宴會，無可賣弄，勢必煎炒真珠，烹調美玉，或煮黃金，或煨白銀，以為首菜了。當日天朝士大夫曾作《五簋論》一篇，戒世俗宴不可過奢，菜以五樣為度，故曰‘五簋’。其中所言，不豐不儉，酌乎其中，可為千古定論，後世最宜效法。敝處至今敬謹遵守，無如流傳不廣。倘惜福君子，將《五簋論》刊刻流傳，並於鄉黨中不時勸誡，宴會不致奢華，居家飲食自亦節儉，一歸淳樸，何患家室不能充足。此話雖進迂拙，不合時宜，後之君子，豈無採取？	12회 118쪽	삭제
2	1권 78쪽	小子以為此女或有不肖，其母不忍之於死，故以此法治之。	12회 119쪽	삭제
3	1권 78~79쪽	總之，婚姻一事，若不論門第相對，不管年貌相當，惟以合婚為準，勢必將就勉強從事，雖有極美良姻，亦必當面錯過，以致日後兒女抱恨終身，追悔無及。為人父母的，倘能洞察合婚之謬，惟以品行、年貌、門第為重，至於富貴壽考，亦惟聽天之命，即日後別有不虞，此心亦可對住兒女，兒女似亦無怨了。	12회 120쪽	삭제
4	1권 80쪽	原來此地連年商販甚多，各色貨物，無不充足，一切價錢，均不得利。正要開船。	12회 121쪽	삭제
5	1권 80쪽	并賞眾水手倭瓜十擔、燕窩十擔。名帖寫著：“同學教弟吳之和、吳之祥頓首拜。”	12회 121쪽	삭제
6	1권 80쪽	因吳氏弟兄位尊，回帖上寫的是：“天朝後學教弟多某、唐某頓首拜。”	12회 121쪽	삭제
7	1권 80쪽	眾水手把倭瓜、燕窩抬到后梢，到晚吃飯，煮了許多倭瓜燕窩湯。都歡喜道：“我們向日只聽人說燕窩貴重，卻未吃過；今日倭瓜叨了燕窩的光，口味自然另有不同。連日辛辛苦苦，開開胃口，也是好的。”彼此用箸，都把燕窩夾一整瓢，放在嘴裡嚼了一嚼，不覺皺眉道：“好奇怪！為何這樣好東西，到了我們嘴裡把味都走了！”內中有幾個啞嘴到：“這明明是粉條子，怎麼把他混充燕窩？我們被他騙了！”及至把飯吃完，倭瓜早已乾乾淨淨，還剩許多燕窩。林之洋聞知，暗暗歡喜，即托多九公以照粉條子價錢給了幾貫錢向眾人買了，收在艙里道：“怪不得連日喜鵲只管朝俺叫，原來卻有這股財氣！”這日收口，正要停泊，忽聽有人喊叫救命。	12회 122쪽	삭제
8	1권 226쪽	林之洋道：“請問九公，俺聽有人把女兒叫作‘千金’，想來‘千金’就是女兒了？”多九公連連點頭。	31회 320쪽	삭제

<별첨5> <경화연>과 <제일기연>의 중국 풍습 삭제 비교

[별첨6]

<경화연>			<제일기연>	
1	1권 44쪽	俺聞前朝并無探花，這個名號是太后新進取的。據俺看來：太后特將妹夫中個探花，必因當年百花齊放一事，派你去探甚花消息哩。	8회 77쪽	삭제
2	1권 44쪽	小弟記得那年百花齊放，太后曾將牡丹貶去洛陽，其餘各花至今仍在上苑。所有名目，現有上官昭儀之詩可憑，何須查探。舅兄此言，未免過於附會。	8회 77쪽	삭제
3	1권 50쪽	林之洋到：“怪不得今人射鵠，每每所發的箭離那鵠子還有一二尺遠，他卻大為可惜，只說‘差得一米’，俺聽了著實疑惑，以為世上那有那樣大米。今聽九公這話，才知他說‘差得一米’，卻是煮熟的清腸稻！”唐敖笑道：“‘煮熟’二字，未免過刻。舅兄此話被好射歪箭的聽見，只怕把嘴還要打歪哩！”	9회 86쪽	삭제
4	1권 105쪽	唐敖伸手取了一本，面上簽子寫著‘第一弓’。林之洋道：“原來盤古舊案都是論弓的。”那官吏聽了，不覺笑了一笑。唐敖忙遮飾道：“原來舅兄今日未戴眼鏡，未將此字看明。這是‘卷’字，並非‘弓’字。”	16회 152쪽	삭제
5	1권 125쪽	若以‘秀才’兩字而論，可謂有名無實。適才自稱‘忝列膠庠’，談了半日，惟這‘忝’字還用的切題。	18회 174쪽	삭제
6	1권 134쪽	好在俺從來不會談文，他要同俺論文，俺有絕好注意，只得南方話一句，一概給他‘弗得知’。任他說得天花亂墜，俺總是弗得知，他又其奈俺何！	19회 182쪽	삭제
7	1권 134쪽	林之洋道：“世人都像山雞這般烈性，那裡死得許多！據俺看來，只好把臉一老，也就混過去了。”	19회 196쪽	삭제
8	1권 164쪽	今日偏偏‘詩思’不在家，不知甚時才來；好在‘詩思’雖不在家，‘對思’卻在家。	23회 224쪽	삭제
9	2권 491쪽	共成‘兩當十五之年了’。秀英道：‘此話怎講？’小春道：‘難為姐姐還是博學，連這出處也不知？這是當日有位才子做‘三十而言’破題有此一句，叫做‘兩當十五之年，雖有板凳椅子而不敢坐焉’。’	66회 622쪽	삭제
10	2권 515쪽	我不愁別的，我只愁若不釘上兩根帽絆兒，只用小小一陣風，就吹到‘爪哇國’去了。	70회 648쪽	삭제
11	2권 515쪽	並且久而久之，還充作‘老胚兒’。若帶些紅色，就算‘窩瓜瓢兒’了。	70회 648쪽	삭제
12	2권 516~517쪽	也不枉辛辛苦苦盤了幾十年。小春道：‘姐姐這個‘干’字如今還用不著，我替你刪去罷。’紫芝道：‘我那壺兒當日在人家手裡業已盤了多年，及至道我手裡又盤好幾年，前後湊起來，豈非幾十年麼？這個‘十’字是最要緊的，如何倒要刪去？幸虧姐姐未到場里閱卷，若是這樣粗心浮氣，那裡不屈死人！’小春道：‘姐姐才說要把壺兒多賣幾兩銀子，原來你玩鼻於壺兒並非自己要玩，卻是藉此要圖利的。’(중략)設或一時‘馬扁兒’來的不接濟，少不得也買些‘干銃兒’或‘玫瑰露’勉強敷衍。就只干銃兒好打噴嚏，玫瑰露好塞鼻子，又花錢，又不好，總不如‘馬扁兒’又省又好。小春道：‘他們諸位姐姐都要聽閨臣姐姐外國話，我們只顧打岔，未免不近人情。’	70회 649쪽	삭제
13	2권 517쪽	紫芝又附耳道：‘這是妹子用‘昔西兒’泡的。’小春道：‘‘昔西兒’是何藥料？賣幾兩銀一個？我也買兩個。’婉如笑道：‘他這‘昔西兒’也同‘馬扁兒’一樣，都是拆字格。’小春聽了，這才明白。	70회 649쪽	삭제
14	2권	紫芝道：‘姐姐：這不是長人國聞鼻菸，叫作‘老虎聞鼻’	70회 650쪽	삭제

	517~518쪽	菸’，沒有的事!’		
15	2권 530쪽	紫芝道：‘我不喜別的，難得五個人竟會一齊住’因向井堯春道：‘剛才五位姐姐彈過琴，此刻該弄五管笛兒吹吹，才不缺典哩’堯春道：‘此話怎講?’紫芝道：‘姐姐豈不聞俗語說的‘牧童橫騎牛背上，短笛無腔信口吹’?五位姐姐彈過琴，如今都變作牧童，難道不該弄個笛子玩玩麼?’眾人都笑道：‘紫芝姐姐好罵’	72회 663쪽	삭제
16	2권 544쪽	又一小蟾把他足上皮撕下一片道：‘你說!這是什麼?’他道：‘這是佛赤腳’	73회 682쪽	부분 삭제

<별첨6> <경화연>과 <제일기연>의 중국식 유머 삭제 비교

[별첨7]

<경화연>		<제일기연>	
1	1권 5쪽		1회 34쪽
2	1권 10쪽		2회 41쪽
3	1권 15쪽		3회 46쪽
4	1권 21쪽		4회 52쪽
5	1권 27쪽		5회 58쪽
6	1권 35쪽		6회 70쪽
7	1권 41쪽		6회 76쪽
8	1권 48쪽		8회 83쪽
9	1권 56쪽		9회 94쪽
10	1권 64쪽		10회 105쪽
11	1권 70쪽		10회 114쪽
12	1권 81쪽		12회 122쪽
13	1권 88쪽		13회 130쪽
14	1권 96쪽		14회 139쪽
15	1권 120쪽		17회 169쪽
16	1권 128쪽		18회 177쪽
17	1권 144쪽		19회 196쪽
18	1권 174쪽		24회 243쪽
19	1권 188쪽		26회 266쪽
20	1권 216쪽	未知如何，下回分解 °	30회 310쪽
21	239쪽		33회 338쪽
22	1권 244쪽		33회 345쪽
23	251쪽		35회 355쪽
24	372쪽		50회 445쪽
25	2권 379쪽		51회 458쪽
26	2권 413쪽		55회 505쪽
27	2권 421쪽		56회 522쪽
28	2권 465쪽		63회 586쪽
29	2권 473쪽		64회 595쪽
30	2권 483쪽	65회 609쪽	
31	2권 501쪽	67회 632쪽	
32	2권 508쪽	68회 640쪽	
33	2권 520쪽	70회 653쪽	
34	2권 526쪽	71회 660쪽	
35	2권 535쪽	72회 671쪽	
36	2권 545쪽	73회 683쪽	
37	2권 552쪽	74회 689쪽	
38	2권 566쪽	76회 701쪽	
39	2권 575쪽	77회 707쪽	

삭제

<별첨7> <경화연>과 <제일기연>의 회차상 편차 구성 차이

[별첨8]

	<경화연>		<제일기연>	
1	1권 2쪽	百花仙子道	1회 28쪽	빅화선지 쇼왈
2	1권 2쪽	百果仙子笑道	1회 28쪽	빅과선지 역쇼왈
3	1권 8쪽	嫦娥道	2회 37쪽	상에 오히려 분연왈
4	1권 8쪽	百花仙子道	2회 37쪽	빅화선지 닝쇼 왈
5	1권 9쪽	百草仙子道	2회 39쪽	빅초선지 웃고 대왈
6	1권 12쪽	麻姑道	3회 42쪽	마괴 대쇼왈
7	1권 21쪽	不覺大怒道	4회 51쪽	발연대로 하야 향안을 두드려왈
8	1권 34쪽	紅孩兒道	6회 68쪽	홍희익 위로왈
9	1권 34쪽	紅孩兒道	6회 69쪽	홍혜익 대쇼왈
10	1권 39쪽	唐敖道	6회 74쪽	당싱이 송연이 씨드라 왈
11	1권 43쪽	唐敖道	8회 76쪽	당싱이 완여를 도라보아왈
12	1권 43쪽	林婉如道	8회 77쪽	완에 날호여대왈
13	1권 44쪽	林之洋道	8회 78쪽	님원의 쇼왈
14	1권 45쪽	林之洋道	8회 79쪽	님원의 대쇼왈
15	1권 46쪽	唐敖道	8회 80쪽	당싱이 무러왈
16	1권 48쪽	林之洋道	8회 83쪽	원의 구공을 향하여왈
17	1권 50쪽	唐敖道	9회 85쪽	당싱이 대경왈
18	1권 50쪽	多九公道	9회 85쪽	구공이 닝쇼왈
19	1권 51쪽	多九公道	9회 88쪽	구공이 쇼왈
20	1권 52쪽	多九公道	9회 89쪽	구공이 닝쇼왈
21	1권 53쪽	唐敖道	9회 90쪽	당싱이 발이 쓰히 다흔 후 비로쇼왈
22	1권 55쪽	多九公道	9회 94쪽	구공이 원외를 향하여왈
23	1권 58쪽	唐敖道	10회 96쪽	당싱이 대경왈
24	1권 58쪽	唐敖還禮道	10회 96쪽	당싱이 빗비답네 왈
25	1권 58쪽	女子道	10회 96쪽	너즈 휴연대왈
26	1권 59쪽	唐敖道	10회 96쪽	당싱이 공경왈
27	1권 60쪽	唐敖道	10회 99쪽	당싱이 연망이 손샤왈
28	1권 64쪽	眾人道	10회 104쪽	중인이 괴피하물 의의지 못하여 일제히 구공을 향하여왈
29	1권 64쪽	多九公道	10회 104쪽	구공이 쇼왈
30	1권 92쪽	多九公道	14회 133쪽	구공이 머리 흔드러 왈
31	1권 172쪽	嫵兒道	24회 239쪽	미익 함누대왈
32	1권 176쪽	多九公道	25회 246쪽	당싱이 정히 침음헌더니구공 왈
33	1권 176쪽	徐承志道	25회 246쪽	세충이 손을 저어왈
34	1권 248쪽	國王道	35회 350쪽	국왕이 침음양구에 왈
35	1권 340쪽	林之洋道	46회 420쪽	원의 것호로 조츠 듯고 대경왈...
36	1권 343쪽	婉如也垂淚道	47회 425쪽	완에 쏘흔 손을 잡고눈물을 썩려 왈
37	1권 344회□	小山不覺垂淚道	47회 429쪽	쇼산이 황망이 니러 절하며 눈물을 느리워 왈
38	1권 345회□	小山道	47회 430쪽	쇼산이 놀느며 깃거 왈

39	1권 346회	若花道	47회 432쪽	약해 이옥이 생각해야할...
40	2권 377쪽	紅紅道	51회 454쪽	홍이 닝쇼할...
41	2권 377쪽	仙姑道	51회 455쪽	도괴 미쇼할
42	2권 381쪽	林之洋道	52회 460쪽	원의 머리 흔드러할
43	2권 396쪽	閨臣道	53회 477쪽	규신이 공경대할.
44	2권 409쪽	若花道	55회 496쪽	약해 강잉하야 우음을 흘리며 할
45	2권 410쪽	閨臣道	55회 499쪽	규신이 미쇼 <u>활동</u>
46	2권 412쪽	末空道	55회 503쪽	말공이 십분 당황하야 다시 규신을 향하야 할
47	2권 412쪽	閨臣道	55회 503쪽	규신이 이에 은취치 못하야 할
48	2권 412쪽	末空道	55회 504쪽	말공이 희어 장탄 <u>완제</u>
49	2권 415쪽	駱紅葉見了嫂子，因想起哥哥，不覺垂淚道	56회 506쪽	냥잠이 십분 깃부며 쏘흔 붓그려 말 숨을 미쳐 못하더니 흥게 의외 수수 를 만느미 거거를 생각해미 <u>더욱 간 결하야</u> 눈물을 흘너 할
50	2권 419쪽	宋良箴道	56회 519쪽	송낭밤이 미쇼 <u>할</u>
51	2권 419쪽	顏紫綃道	56회 519쪽	안즈최 즈리틀 써너 <u>할</u>
52	2권 431쪽	文蕪道	58회 535쪽	문송이 대쇼 <u>할</u>
53	2권 441쪽	紫綃道	60회 552쪽	즈최 십분 난처하야 오린 후 <u>할</u>
54	2권 441쪽	閨臣道	60회 552쪽	규신이 혼연 <u>할</u>
55	2권 448쪽	閨臣道	61회 562쪽	모다 웃고 윈여논 쇼춘을 예시하거 늘 규신 <u>할</u>
56	2권 485쪽	國舅道	66회 612쪽	국귀 실식 <u>할</u>
57	2권 499쪽	卞濱道	67회 630쪽	변빈이 허락하야 <u>할</u>
58	2권 513쪽	閨臣道	69회 643쪽	규신이 미쇼 <u>할</u>
59	2권 522쪽	蘭言道	71회 654쪽	난언이 닝쇼 <u>할</u>
60	2권 526쪽	紫芝道	71회 660쪽	벽지 닝쇼 <u>할</u>
61	2권 529쪽	紫芝道	72회 663쪽	벽지 거긷 놀나 <u>할</u>
62	2권 565쪽	紫芝道	76회 701쪽	벽지 머리 흔드러 <u>할</u>
63	2권 578쪽	題花道	78회 709쪽	제해 닝쇼 <u>할</u>

<별첨8> <경화연>과 <제일기연>의 인물 행동 비교